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6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1월 25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99 호

"화합의 대작불사 이루자"

조계종 사태 해결위한 각계 목소리

19일 오후2시 서울 영화사에서 월주스님이 제29대 총무원장 후보를 공식 사퇴한 이후 교계에서는 "이제라도 대화합의 대작불사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선문제를 둘러싸고 알과만과 확산돼 온 조계종 선거 바람이 엄청난 종단위상 실추로 이어진 현실에서 근사안적 주도권 싸움을 더 이상 지속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불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을 생각하니 괴롭다"는 한 원로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비켜가고 딴 마음을 먹으니 종단이 어지러워지고 불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통탄했다. 스님은 "다시 출가정신과 승려의 본분을 각인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원로스님도 "선량한 불자들에게는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탐심이 없어야 세상이 밝아진다"고 말했다.

이들조차 드러내길 꺼리는 불교계 재가원로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불자로서 이 일을 입에 담을 자신도 없고 시시비비를 경가할 만큼 뚜렷한 명분이 서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원로회자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3선문제)이 사라진 만큼, 어느쪽의 스님을 막론하고 보다 큰 이익을 위해



◇ 월주스님이 19일 서울 영화사에서 총무원장 후보를 공식 사퇴했다. 사퇴회견에는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과 부의장 명진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영담스님 등이 배석했다.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월주스님 후보 공식사퇴

19일 기자회견서 밝혀

월주스님이 제29대 총무원장 후보를 공식 사퇴했다.

월주스님은 19일 오후2시 서울 영화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종단이 맞은 삼각한 위기 앞에서 개인적인 명분이나 단기적 종단 이익에 앞서 한국불교 전체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헌신적인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자격 사퇴를 표한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총헌유린과 총무행정 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 제하의 사퇴 성명을 통해 "본인의 출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며 "초기에 3선 분쇄를 종도와 국민이 쉽게 납득할도록 설득해 내지 못했던 것은 능력의 한계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월주스님은 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총무관장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총무행정 파탄과 폭력행위는 종단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월주스님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중앙종회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종단 사태의 수습을 위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 그들의 애종심과 종헌종법 수호 의지를 믿고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정화개혁회의 상임의장 월탄스님에 대해서는 "내가 후보를 사퇴한데 대해 현명한 판단이 있을 줄 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19일 총무원청사 충돌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었으며 아는 바도 없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20일 임기 만료

조계종 총무관이 20일로 월주스님의 임기가 마감됨에 따라 총무부장의 총무원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어갔다. 전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임기 마지막날인 20일 총무부장에 도법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중앙종회가 16일 봉은사 회의에서 개정한 '총무원법' 제10조의 신설 조항에 따른 것.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18일 무산…재연기

18일 해인사에서 치를 예정이었던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또 연기됐다.

해인사측이 종단 내분상황에서 선거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선거가 다시 미뤄지게 된것.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덕운스님은 18일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일 연기공고" 제하의 회견문을 통해 "해인사측의 장소제공 불허와 현 총무원장, 종회의장, 정화개혁회의 의장, 총무원장 후보 지선스님 등이 선거연기를 요청해와 선거일을 재연기한다"면서 "재선거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 결정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se@buddhapia.com)

국난극복법회 관련 대통령, 불교계에 감사

김대중대통령은 불교계가 국난극복을 위해 전국 순회 참회법회를 열고 있는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박상규부총재(연등회장)는 16일 태고종 선암사 국난극복참회대법회에서 기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부총재는 이와 함께 김대통령이 불교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위영란 기자
(yryu@buddhapia.com)

선암사 국난극복법회
기사 2면-이모저모 5면

도움말 주신분

정화개혁회의 홍보실.

원로 관응 서옹 벽암 운경 탄성스님, 종회의장단, 교구본사연합회 의장단.

자신을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존경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꼬집었다.

중회의장단 스님들은 "월주스님의 사퇴로 정화개혁회의의 청사 접수 명분은 없어진 것"이라며 "종헌종법의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측은 월주스님의 사퇴를 "또 다른 종단 분규의 의도"라며 "정화위원회를 통한 입법 활동과 그에따른 종단 안정"을 주장하고 있다.

교구본사연합회 의장단 스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종도들의 화합"임을 강조하며 "문제를 푸는 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도 문제를 푸는 마음은 화합과 애종심에 모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화합승가를 통한 종단안정에 대한 원론은 한결 같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하는 방법론은 차이가 있어 '화합의 대작불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 3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제8차 국난극복 참회 회향대법회

민족화합 3천배 정진

28·29일 목포 보현정사…인왕경 사경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법륜종이 주관하는 전국순회 제8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가 지역화합을 발원하는 철야 3천배정진으로 2일간 열립니다.

나라가 처해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이번 법회는 1월부터 열어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회향법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법회는 종단과 지역을 초월해서 서울 경기 충청 영·호남권에서 지역 가관장 및 불자 1천여명이 동참해 진정으로 지역화합과 민족화합을 통해 나라의 어려움 극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회향법회에서는 〈호국인왕반야바라밀경〉 상·하권(8륜)을 동참 전 대중이 사경해 부처님전에 공양올리는 대대적인 사경법회를 엽니다. 〈호국인왕반야바라밀경〉은 나라를 보호하는 불경이라 하여 조상대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 사경공덕으로 국난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굳게 믿습니다. 목포 보현정사에서 봉행되는 국난극복 회향대법회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시
3천배 철야정진:
1998년 11월28일(토) 오후9시~29일 오전3시
회향대법회: 11월29일(일) 오후2시
◎ 장소: 목포 보현정사(0632)72-1730
※현장생중계: 불교방송(101.9Mhz) 20일 오후2~3시
※녹화중계: 불교TV(ch32) 12월7일 오전11~12시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재단법인 법륜종
후원: 국민회의연동회·자민련불자회·한나라당불자회·군승단 경승단·불교방송·불교TV·현대불교신문사

등불 보살들



처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급선회했다. 그리고 주위로 눈을 돌렸다. 마음 한번 돌리니 의외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경험담. 그중에 한 신부전증 환자가 시청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세가 양호해졌고 '인생을 덤으로 산다'며 흐뭇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돕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경주시내에만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70여명. 이중에 치료비는 고사하고 하루세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2명의 환자에게 그동안 적립해 온 회비중 일부를 전달했다.

"그래도 세상엔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며 돌아서는 환자들을 보는 지혜의 등불 회원들은 가슴이 뭉클해져 옴을 느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12일 경주시내의 한 회방에 중년의 여성불자들이 모였다. 지혜의 등불(회장 박정정화)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는 자리. 이 모임에서 지혜의 등불회원들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치료비가 없어 애태우고 있는 환자들의 모임인 우정의 모임에 회봉투를 전달했다. 성금은 5백61만9천7백30원. 지혜의 등불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듬뿍 채워진 금액이다. 회장 박정정화보살은 "성금의 액수보다 환자들의 쾌유를 바라는 회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지혜의 등불 창립배경은 본래 이와는 달랐다. 한 절에 다니는 마음맞는 신도들끼리 한마음이 되어 친목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95년 모임을 결성하고 신도들간의 애경사를 위해 매월 보시금을 적립해왔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군포교 기금마련 하루잣집

신수회(회장 이영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군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포교기금마련 하루찻집을 엽니다. 원성스님과의 대화시간과 국악연주도 마련됩니다.

■ 일시: 12월5일(토) 오전10시30분~오후8시
■ 장소: 한마음사랑방(02)736-3782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옛 녹수청산)

종헌 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소집

승단의 제 일의는 화합일진대, 작금의 종단 사태에 모든 종도는 참담한 심정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종권에 탐착한 일부 무리가 폭력적으로 총무원 청사를 무단 점거하더니 종헌 종법을 부정하고 종무행정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폭력을 자행하여 불조의 자비 광명을 가리니 이는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냄이요, 전 종도에 대한 폭거로다. 청정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세간을 연민히 여겨 대비원력으로 구제하여야 할승가가 본분사를 망각하고 종권에 탐착하는 중생상을 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전종도의 뜻을 모아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함으로써, 폭력 행위를 자행하여 종단을 나락에 떨어뜨린 소위 "정화개혁회의"를 심판하고, 94년 개혁불사에서 전 종도의 합의로 만들어진 종헌종법을 수호하며, 종단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니 불조와 원로 대덕의 가르침이 이와 같다. 무릇 모든 종도는 전국승려대회에 동참하여 邪法을 폐하고 正法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라.

▣ 일 시 : 불기 2542년 11월 27일(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종헌 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대회장 탄 성

▣ 문 의 : 전화 (02)732-9342, 팩스(02)720-3302

사 설

다시 첫단추 끼우듯

슬퍼하거나 개탄하지 않는다.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 대중들은 저간의 사태를 시린 가을 연못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다. 홍분하면 평정을 놓치고 해결의 전망을 흐리게 한다.

종정은 이판(理判)이고, 원장은 사판(事判)이다. 이판은 구도와 수행을 구경으로 하고 있고, 사판은 행정과 사무를 목표로 한다. 이판은 그 이념적 성취로 숭앙받지만, 사판은 그 효율적 지원으로 평가받는다. 불교의 번성은 이 두 축이 상호존중 하에 화합하고 협력할 때 기약된다. 둘 사이에 틈이 지고 불신이 깊어지면 법등은 희미해지고 어둠은 짙어진다.

대동(大同)이 흔들리면 소강(小康)이라도 기해야 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절차를 밟으며 합의를 모색하는 구차한 방편이 도입된다. 종헌과 종법의 권위가 흔들리면 세속의 법률과 대중의 상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작금 종단의 사태는 이 마지막 둘조차 지키지 않았다. 3선이 이슈가 되었을 때 현 원장이 적단(赤團)의 초발심(初發心)으로 공성신퇴(功成身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어야 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산천초목이 일어나 합창을 불렀을 것을. 그렇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이다. 자격이 있다면 출마를 말릴 수는 없다. 말리려면 그 적격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판정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애매한 태도로 검증을 미루고, 다른 편에서는 사퇴만을 외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적 대치의 평행선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그날, 그 만고에 치욕스럽고 천추에 한을 남길 조계사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는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행태이다. 원장의 직무에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제기했어야 했다. 특정한 사안의 결정과 집행에 사적 의도가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특정한 사업이 종단과 대중의 여망에 부응했는지를 실사적으로 점검했어야 한다. 총무원측에도 잘못은 있다. 접수하겠다고 나서면 죽기로 사수할 것이 아니라 순순히 털고 자리를 비워주었어야 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심판은 사부대중이 한다. 각목 든 몇 사람에 의해 2천년의 전통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불교가 한심하지는 않다. 그런 다음 대중의 공감에 호소하며 차분히 합리적 대책을 모색했어야 했다.

결국 월주스님이 후보를 사퇴했다.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사태의 매듭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다음 집행부는 여전히 과행과 알력 속에서 니전투구하느라, 미래의 불교를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진력하지 못할 것이다.

플라톤이 말했다. 정의란 사태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잘못 끼운 첫 단추는 총무원장의 후보사퇴 선언으로 풀린 셈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두번째 단추이다. 정화개혁회의는 접거를 풀고 화합불사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화개혁회의도 중앙종회도 자신의 입장만 주장해서는 안된다. 중앙종회가 또다른 승려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만약 정화개혁회의만이 종단안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제2, 제3의 승려대회가 열려도 할 말을 잃게 된다. 누가 됐건 종단발전의 소임을 자처한다면 종단은 또 망신을 사게 된다. 이제 더이상 망신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종헌 종법에 의해 총무원장 선거에 임해야 한다. 합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대중과 국민의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그곳에 권위는 기대할 수 없다. 이 점을 사태와 연루된 모두가 불에 덴 듯 깨달아야 한다.

합의문 유무 공방

지선스님 "정화회의 해산 등 4개항 합의"

정화회의 "어떤 내용도 합의한 적 없다"

19일 월주스님의 후보사퇴 이후 정화개혁회의측과 지선스님측이 '합의문'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합의문 공방은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 후보가 종단혼란 수습과 안정을 위해 조율했다는 4개항에 걸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급부상됐다.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가 밝힌 합의문은 △종단안정체제를 만드는데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송월주 총무원장의 3선출마 포기 종용에 노력한다. △송월주 총무원장이 사퇴할 경우 정화개혁회의는 즉시 해산과 동시에 총무원 청사에서 철수하고 29대 총무원장 선거를 조속히 실시한다. △정화개혁회의 해산 후 중립적인 과도적 집행부를 구성한다 등.

이에대해 정화개혁회의는 즉각 "당면 현안에 대해 상호간의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 어떤 것도 합의한게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어 "정화개혁회의를 중심으로 종단안정을 이룰 수 밖에 없다며 정화개혁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던 지선스님측이 있지도 않은 합의문을 마치 양측이 합의한 것처럼 조작해 발표한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화개혁회의는 또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 법안스님으로부터 기자회견 직후 성문스님에게 사과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합의문' 공방의 단초인 월탄 성문 지선 법안스님의 4자 회동은 18일 저녁 코리아나호텔 한식당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조계종에 두개의 입법기구

중앙종회, 27일 종헌종법 수호 승려대회

정화회의, 상임위 구성 선거법등 개정

조계종 중앙종회가 27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승려대회(대회장 탄성)를 개최키로 한 반면 정화개혁회의는 비상입법기구인 상임위원회(150명)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조계종 사태가 한 종단에 두개의 입법기관이 양립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중앙종회는 20일 46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하고 27일 승려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폭력을 방조하는 공권력을 비난하는 대정부 성명서도 결의했다. 승려대회 개최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까지 정해짐으로 중앙종회와 정화개혁회의의 갈등 국면이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정화개혁회의측은 중앙종회가 이미 14일 원로회의에서 해산됐음을 주장하며 한시적인 비상입법기구인 정화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법을 비롯 각종 종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중앙종회는 정화개혁회의 자체를 적법한 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정화회의 상임위원회가 종헌종법을 손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한다.

반면 정화개혁회의측은 종정 교시인 제2정화 불사의 추진에서 종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 절차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입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48명이 참가했던 길상사 종회에 비해 16일 봉은사에서 속개된 종회에는 52명이 참여했다. 중앙종회는 16일 회의에서 총무원장 선거법, 총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을 개정했다. 또 14일 구룡사 원로회의가 원천무효라는 결의도 했다.

임연태 · 김중근 기자 (ytlim@buddhapia.com)



◇태고종 주관으로 선암사에서 열린 제7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수요 인터뷰

국난극복 참회 목포법회 여는 법륜종 이사장 정각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의 회향법회로 28~29일 열릴 제8차 지역화합기원법회를 준비하느라 동분서주 바쁜 재단법인 법륜종 이사장 정각스님(보현정사 주지)을 만났다.

-그동안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7차례 열어왔고 이제 회향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나라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가 각계

"백장청규정신 실천해야"

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참회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회향을 하면서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이라는 백장스님의 청규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회향법회의 취지는.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병폐중 하나는 지역갈등입니다. 동서간에 지역감정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경제난을 당한 우리의 처지를 극복하는 주춧돌은 동서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해 스님의 육화정신에서 실현될수 있습니다. 그 정신으로 이번 법회가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회향법회이자 민족화합의 입제법회로 역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합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을텐데요.

△목포 불자들을 비롯해 서울 경기 호서 영남 불자들이 범종단적으로 모두 동참해 여법한 회향 화합법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 대대적인 사경법회도 열리지요.

△8만4천 부처님 가르침이 모두 거룩합니다만, 특별히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때 보호하는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 〈호국인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사부대중 4천여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사경에 동참하고 완성된 사경모음집은 불단에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게다가 철야 3천배 정진도 하지요.

△3천배는 과거생 1천불 현생 1천불 미래생 1천불을 향해 하는 자기 돌아보기 정진입니다. 3천배를 하다보면 욕심 어리석음 성내는 마음으로 뒤얽혀 가리워진 각자의 불성을 더 가깝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위영란 기자 (ryrui@buddhapia.com)

"대승보살정신 되살리자"

국난극복 선암사법회 5천여불자 수계

대참회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자는 불자들의 간절한 기원법회가 태고종 총무원 주관으로 승주 선암사에서 5천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하게 봉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주요종단이 주관해 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제7차법회였던 이날 법회는 국난극복을 위한 보살계수계를 통해 불자들부터 거듭나 국운이 새롭게 열리기를 기원했다.

선암사 대웅전앞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과 이웃 사회와 나라를 생각하고 이롭게 하는 대승보살의 실천자가 되기를 서원하는 자리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前대통령은 기원사에서 "부처님 가르침따라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대동화합을 기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 따뜻해지져 국민화합이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신낙균문화부장관은 이길융종무실장이 대독한 기원를 통해 "불교계의 구호활동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허경만 전남도지사는 "위기가 곧 기회이며 내힘으로 무엇을 할 수있나 각자 생각하고 실천하기"를 촉구했다. 이어 박상규 중소기업특별대책위원장(국민회의부총재)은 "우리의 급선무는 경제살리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이자리는 제2건국의 실현을 위해 바탕이되는 큰 힘이라고 말했다.

위영란 ·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사태수습을 위해…

종단 정화불사와 학교발전을 위한

봉 救宗救校法會 행

● 일 시 : 불기 2542년('98)11월 25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 개 최 목 적 ·

종정교시에 의한 불기2542년('98) 11월 11일 승려대회 이후 계속된 분규로 종단의 앞날은 요원하기만 하며, 원로스님과 교계 중진 그리고 대중이 각각 파벌화 되어 서로가 반목 고립되어 불교와 종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날로 따갑기만 합니다.

종단과 승려의 존재 목적이 의심받고 있으며,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여 재기불능의 늪으로 추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앙승가대학교 구성원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는 종단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기를 발원하며」** 본 구종 구교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 주 최 : 중앙승가대학교
■ 주 관 : 총학생회, 총동문회

·증 명 : 석 주큰스님
·대 회 장 : 효 종스님
·집행위원장 : 법 매스님, 청 화스님
·집행부위원장 : 지 성스님, 강 하스님
·집행위원(실행위원) : 동문회원, 학생회 각 부장, 차장
- 총 무 : 적문스님, 보원스님
- 홍 보 : 삼각스님, 수산스님
- 재 무 : 종식스님, 덕영스님
- 안 내 : 법광스님, 종석스님, 학생회 차장
·대 변 인 : 적 문스님 (문의전화: 922-7881)

▪월주스님 총무원장 후보사퇴 그 이후

선거방법등 갈등불씨 여전

19일 발표된 월주스님의 후보사퇴는 선거 과정의 뇌관이었던 '3선공방'을 잠 재웠다. 이제 종단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월주스님이 출마를 포기한 이상 남은 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새로운 '선거판'을 짜고 그로인한 합법적인 제29대 총무원장 체제가 출범하는 일.

원로회의나 정화회의 중앙종회등

정화회의-선거법등 개정 추진
중앙종회-대형승려대회 준비

은 빠른 시일내에 종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원론에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현실을 대변해 준다. 정화개혁회의는 150여명이 참여하는 정화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총무원장 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종법을 손질한 후 개정된 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화회의는 이달 내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종회는 20일 봉은사 회의에서 27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승려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종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승려대회를 준비하면서 정화개혁회의와 '쌍사반환, 선거집행부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대화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교구본사 주지연합회도 23일 오후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중앙종회의 승려대회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것인지 주목된다.

중앙종회가 개최하는 승려대회와 이미 승려대회를 통해 새로운 체제를 구성한 정화개혁회의가 향후 대립할 것인지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종단의 안정 기조를 위해 한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인지가 종단 사태 해결의 가장 큰 핵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중앙종회와 원로회의, 정화개혁회의, 교구본사주지연합회, 기존의 후보진영 등이 '선거판'에 대한 미련 보다 '종단 안정'이라는 대의를 앞세우며 서로 양보와 보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게 불자 대다수의 주문이다.

임연태 기자

목어

스님들께 ③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희망이 없다면 포기하겠죠. 불자들은 조계종이 빨리 안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 주세요. 불자들과 국민들이 조계종에 실망하는 날이면 그때는 돌아선 불심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설마"하며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절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신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가 어디 조계종 뿐입니까. 한국의 종교가 어디 불교 뿐입니까.

월주스님이 임기 하루를 남기고 총무원장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거론하고 싶지 않은 '3선공방'의 쟁점이 해소됐습니다. 이제 문제를 쉽게 푸셔야겠습니다. 3선반대를 위해 종정교시도 나왔고, 승려대회도 열렸고, 정화개혁회의도 발족됐습니다. 그 과정에 생긴 불미스런 일들을 사과 한 후,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보이기 위해 조계종은 한 곡소리로 한길을 가야만 합니다.

원로회의, 중앙종회, 정화개혁회의는 화합하여 하루속히 새 총무원장을 뽑는데 지혜를 모아 주십시요. 집단의 이익을 계산하거나 개인의 자존심 챙기려 든다면 일을 또 그르칩니다.

짧은 시일에 여법한 선거를 치루어 21세기를 열 새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21세기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불교계에서도 2천년대 계획을 짜고있는 종단이 있습니다.

금년도 한달남짓 남았습니다. 얼른 정상화하여 98년을 마무리하고 99년 예산도 세우고 2천년 맞이도 설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편가르지 마세요. 내편 네편이 어디있습니까. 종무원들도 다 제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히 승적업무도 보고, 포교사고시도 제 날짜에 치뤄지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주세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스님들이시기 때문에 쉬울수도 있습니다. 비운 마음으로 서로 합장하고 악수하고 실추된 종단의 명예를 회복해 주십시요.

만약 월주스님이 증명하는 금산사 10선운동, 월탄스님이 조성한 법주사 미륵대불, 지선스님이 연 무차대회의 뜻이 퇴색하면 한국불교 조계종도 퇴색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단의 분쟁을 화합시키면 해탈문을 여는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들께서 다 함께 해탈문을 여시길 발원하옵니다.

서로 정법 주장…접점 어디에

조계종 사태

원로회의 종회해산등 결의(14일)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소집한 원로회의가 14일 구룡사에서 열려 의장 혜암스님의 불신임을 의결하고 중앙종회 해산요청서를 월하 종정스님에게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 회의에는 월하 종정스님과 원담, 응답, 청하, 비룡, 벽암, 도견, 정영 스님등 7명의 원로의원이 직접 참가하고 일타, 도원, 운경, 지종, 석주, 성수, 정천, 종산스님등 8명이 위임및 동의서를 보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회의는 의장 혜암스님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벽암스님을 새 의장에 원담스님과 정영스님을 부의장에 각각 추대했다.

원로회의는 11일 전국승려대회와 결의문을 추인하고 종화해산 요청서를 종정 월하스님께 제출했다. 월하스님은 원로회의가 끝난 직후 종회 해산을 승인했다.

또 원로회의는 18일 선거의 원천무효, 제2정화불사 추진, 청정승가화합 등에 대한 결의도 함께 했다. 원로회의는 또 종헌 제 5장 24조, 종단비상시 종정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헌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직후 원로회의 사무처장 효림스님은 공식 사임의사를 밝혔다.

혜암스님 "구룡사회의 무효"(14일)

●…구룡사 원로회의 직후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은 서울 봉익동 대각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룡사에서 회동한 몇분 원로의원 스님들의 모임은 간담회에 불과하며 종헌·종법상 효력이 없는 정식 원로회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법등, 청화, 명진스님 등 종회의장단이 배석한 기자회견에서 혜암스님은 △구룡사에는 원로의원 7명만 참석하였으며, 나머지 8명은 위임장으로 대체하였기에 원천무효 △정화개혁회의는 종헌·종법의 체제를 무너뜨렸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조속한 시일내에 원로회의의 공식입장을 밝히겠으니 종도들은 동요됨이 없이 종헌·종법 질서를 수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혜암스님은 구룡사에서 효림스님이 사무처장직을 사임한데 따라 영배스님(종회사무처장)을 원로회의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구룡사 원로의원 모임을 원로회의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혜암스님을 위시한 원로회의를 중심으로 종단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회의, 본사주지 회의 열어(16일)

●…정화개혁회의가 소집한 교구본사 주지회의가 12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정화개혁회의측의 지원스님과 성문스님은 회의가 끝난 후 "오늘 회의에 참석한 주지스님들은 종정스님의 교시를 받들어 종단사태를 수습하는 데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화회의 부·국장 임명(16일)

●…정화개혁회의(상임위원장 월탄)는 16일 오전 집행부 부장급 명단을 발표했다. 상임위원장 월탄스님은 18일 오전 상임위원장 월탄스님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포교원장 지원 △총무부장 현소, 국장 보연 △기획실 감사국장 선법 △재무부장 인행, 국장 각원 △문화부장 진욱, 국장 정인 △사회부장 최지원, 국장 혜도 △호법부장 원학, 호법국장 정관, 정보국장 성조 △홍보실장 부동, 차장 지거, 통출 △상임위원장 사서실장 동성, 차장 송묵, 수행사서 법기 △정화개혁회의 사무처장 종훈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효종 △종정예경실장 영하.

19일 총무원청사 또 충돌(19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접수를 두고 19일 새벽 또 한번의 물리적 충돌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새벽 5시 5분경 10여명의 스님과 100여명의 사설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총무원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정화개혁회의 소속 스님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방패와 방망이 절단기 등을 이용해 청사로 진입하려는 측과 분말소화기 분말과 물을 뿌리며 저지하는 측의 공방이 30여분간 계속되는 가운데 7명의 스님들과 용역업체 직원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임시종무원 고용 배치

●…정화개혁회의(상임위원장 월탄)의 집행부 부·국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 업무에 본격 착수했으나, 재가종무원들의 업무 미복귀로 정상적인 종무행정이 11일 이후 9일째(19일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화회의는 빠른 종무행정 정상화를 위해 임시직원 10여명을 이날 고용해 각 부서에 1~2명씩 배치했다. 정화회의는 총무부와 재무부 업무를 우선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계사 앞 제주은행 건물 3층에 임시 사무실을 낸 총무원측도 기본적인 민원 이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없어 종단 업무 공백에 따른 우려가 높다.

감사국장 종수스님 폭행(19일)

●…19일 저녁 6시50분경 조계종 감사국장 종수스님 숙소에 정화개혁회의 소속 스님과 재가불자등 6명이 무단 침입,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종수스님에 따르면, 이들은 무작정 방으로 들어와 폭행을 가했다는 것. 종수스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중 2명은 19일 밤 경찰에 연행됐다.

정화회의 상대 법적대응(13일)

●…조계종 총무원은 13일 건조물 점거, 파손, 폭력,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내용으로 월탄, 정우, 성문스님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총무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청사침입과 관련 즉각 퇴거 조치를 시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14일에는 건조물 점거에 대한 퇴거가처분 신청및 정화개혁회의 권한무효,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2개 종단대표 성명서 발표(2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2개 종단 대표들이 조계종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고종 천태종을 비롯한 종단 대표들은 20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조계종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성명을 채택했다.

종단 대표들은 성명에서 △폭력 재발 방지 △사태의 조기 수습과 화합승가로 돌아갈 것 △조계종은 거대종단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여타 종단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등을 촉구했다.

재가단체 잇단 성명서 발표

●…전국불교운동연합 등 9개 재가불교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육화관에서 조계종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가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승가적 위의를 갖추지 못한 스님들에 대한 공양과 청법, 예참을 하지 않은 운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국스카웃불교지도자회는 19일 최근 종단 상황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승가는 종권 다툼의 현장을 떠나 수행자의 사표를 보여주어 수습방안의 단초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4일 '조계종단의 분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종정스님의 교시를 봉행하고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특별취재팀 (ytlim@buddhapia.com)



◇14일 구룡사에서 열린 원로회의는 의장불신임을 의결하고 종정스님에게 종회해산을 요청키로 했다.



◇14일 혜암스님은 대각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룡사 원로회의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19일 새벽 5시5분 1백여 용역업체 직원과 10여명의 월주스님측 스님들이 총무원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40여분만에 되돌아 갔다.

중앙승가대학교 '9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 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정시모집 "나"군〉 신입학생 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 과	일반전형 (60%)	특별전형 정원내 40% (대교과출신)	특별전형 정원외 (재외국민등)	비 고
인문	불교학과	18	12	1	
	역경학과	18	12		
사회	포교사회학과	18	12	1	
	사회복지학과	18	12		
합계		72	48명	2명	122명

※ 특차모집 합격자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특별전형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9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인성)고사로만 우선 선발함.

▣ 일반전형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9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종단 승려도 추천에 의해 일정범위내에서 선발합니다.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60%내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400점)	40%(400점)	20%(200점)	100%(1,000점)

■원서 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98.12.14(월) ~ 99. 1. 11(월)
◇ 접수기간 : 99. 1. 5(화) ~ 99. 1. 11(월)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출석 및 중요과목 성적 기록과 작성 교직원 서명, 날인 후 테이프 부착
2) 고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99년 졸업예정자는 제외
4) 승적증명서 1부 : (총무원 발급 - 최초 수계일 기록)
※ 타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5) 강원 대교과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특별전형 지원자
6) 주민등록 등본 1부
7) 칼라사진(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 3×4Cm) 5매 제출(3매 원서부착 2매 별도)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 전 형 료 : 60,000원

■전 형 일 정
◇ 예비소집(특별·일반전형) : '99.1.14(목) 09:00~09:40
◇ 필기(교리)고사(일반전형) : '99.1.14(목) 10:00~11:10
◇ 면접(인성)고사 (일반·특별)전형 : '99.1.14(목) 13:00~17:00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부터 시험·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편입생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인원

계열구분	학 년	전산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계열	제2학년 (일반편입)	12	불교학과	2
		22	역경학과	19
		32	포교사회학과	13
		42	사회복지학과	2
	제3학년 (일반편입)	13	불교학과	OO명
		43	사회복지학과	OO명
	제3학년 (학사편입)	14	불교학과	O명
		44	사회복지학과	

※ 3학년 일반편입은 재입학 희망자 파악후 인원확정

■지원자격
· 제2학년: 대한불교 조계종 승납 2년이상 승려로서 대학 1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학년: 대한불교 조계종 승납 3년이상 승려로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조계종 승납 3년 이상인 승려

■전형방법과 일정등은 신입학 전형과 같음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 (02)925-5507(교 202~5)

교차로 출가



충북불교문화회관 상량식

정일 선학원 이사장은 2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건립중인 충북불교문화회관 상량식을 봉행한다.



선운정사서 법문

삼중 부산 자비정사 주지는 22일 오후4시 제주도 북군 선운정사 11월 특별법회에서 법문했다.



생명나눔회원 만남행사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수덕사 주지)은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뉴월드호텔 4층에서 회원 만남의 장을 연다.



학교무용 발표회 개최

혜광 충북 파라미타회장(법주사 주지)은 6일 청주시민회관에서 안보의식 결의대회 및 학교무용 발표회를 개최했다.



제주 관음불교학교 개강

중원 제주 관음사 주지는 18일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에서 불자들의 신행생활의 밑거름이 될 관음불교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대구BBS 2돌 기념법회

법타 불교대구방송 사장(은해사 주지)은 6일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불교방송 개국 2주년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선본사 악시대종 회향

혜창 선본사(갓바위) 주지는 19일 높이 2.2m 무게 5백관 규모의 약사대종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웃돕기 하루찻집 열어

혜총 감로사 주지는 27일 부산 서면 르네상스 커피숍에서 불우이웃 돕기 하루찻집을 연다.(051)809-0926



청화스님 염주 자선바자에 기증

청화스님(성륜사 조실)은 14일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의 초청으로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법회에서 평생 지니며 수행해 온 염주를 선우측이 추진중인 장학기금마련 자선바자회에 사용해 달라며 전달했다.

이날 법회에는 청화스님의 법회소식을 듣고 찾아온 불자들과 우리는선우 회원 5백여명이 동참해 "거짓의 나를 버리고 참나를 찾자"는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김성동 처녀시 11편 발표

계간 '시와 함께'에…禪 분위기 물씬



소설 〈만다라〉 작가 김성동씨가 최근 창간된 시전문 계간지 〈시와 함께〉 겨울호에 '다시 산사에서' '중' 등을 비롯 동양적 정서와 선(禪)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 11편을 선보였다.

김씨는 지난 겨울 눈덮인 설악산 백담사에서 갑작스레 몰려든 시혼(詩魂)에 사로잡혀 사흘동안 무려 11편의 시를 쏟아냈고, 얼마전 내설악 백담산장에서 시인 고은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시를 발표하게 된 것.

'스물 몇 살 때 였던가 어느 절집에서 였던가/외마치 장단따라 道場繹할 때면/손곧추며 따라돌던 아낙하나 있었지/…/대다라니 건너 뛰고 참회진언 빨리 마쳐/장엄염불쇠북 때려 어둠을 밀어내봤지만/모르겠데 알 수 없데 그냥 다만 서러울 뿐이데/…/바랑끈을 조였던가 눈 맑던 수좌스님' (시 '다시 산사에서' 중)

고씨는 김씨의 시를 받아보고는 "읽고 또 읽었다. 맛이 있었다. 격도 있었다. 이다지 잡소리 다 녹아버리게 익은 것을 그냥 몸속에 박아두고 있었던가"라고 촌평했다.

이은자 기자

"수행하는 군승모습 보일터"

창립 30돌 맞는 군승단장 이희용 법사



"군승제도가 생긴 지 30년. 그동안 군포교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5명의 군승이 1백명이 넘는 인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군법당이 건립되었고, 많은 장병들이 군에 들어와 불교신자가 되어 사회에 배출되었습니다."

68년 11월 30일 군승을 배출한 이래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희용 군승단장(원주 법웅사 주지 법사, 중령)은 군포교의 성과는 한국불교의 커다란 에너지원이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쉬움도 없지 않다. 아직도 인사, 법당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잡음이 그치지 않는다. 올해만도 군법사 인사파동과 금련사 재정파동이 있었다. 근무중 본의와 다르게 법복을 벗는 일도 있었다.

"전출입 등 군의 특수성으로 자칫 수행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군법사의 본분은 포교사이며 수행자입니다. 수행하는 군승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종단과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군포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군포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단장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군포교 발전에 헌신하신 스님과 포교사,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4개국어 능통…코소보서 식량조달

한국인 첫 세계식량기구 활동 임지영씨



"국제기구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 세계식량기구(WFP) 직원으로 발령받은 임지영(26·한국여성불교연합회 국제부장)씨. 임씨는 WFP 식량조달통제관으로 유고슬라비아 내전지역인 코소보에서 일하게 된다. 임씨는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 토론토대학과 대학원(정치학)을 졸업했다.

"언어능력이나 전공은 별로 눈에 띌 게 없었지만 활발한 과외활동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는 임씨는 방학 때마다 국회 사무처, 여성불교연합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서 통역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임씨는 영어, 일어, 스페인어에 능통하다.

"솔직히 분쟁지역인 코소보라 걱정도 되지만,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임씨는 "정치논리를 벗어나 부처님의 불이(不二) 정신으로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만해사상선양회초청 강연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은 21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초청으로 불교대구방송 7층 강당에서 'IMF 시대에 남북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강연했다.

저서 보완 집필차 도미



박경훈 역경위원은 18일 미국으로 집필여행을 떠났다. 3개월 예정으로 〈근세불교백년사〉와 〈경전성립의 역사〉를 보완 정리할 계획이다.

초발심 자경문 윤독법회



권영일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장은 21일 오후 3시 마포 다보빌딩 15층에서 이창호씨의 강설로 〈초발심자경문〉과 〈발심수행장〉 윤독법회를 가졌다.

'조선시대 불전언해' 학술회



홍신선 한국불교어문학회장(동국대 교수)은 20일 동국대 학술관 제3 세미나실에서 '조선시대 불전언해에 대한 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리마 국제조각심포지엄 참가



박찬갑 한국불교미술인협회장(조각가)은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 1회 국제조각심포지엄에 참가한다.

삼성화재서 특강



연기영 동국대 법대학장(정부 제조물책임법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삼성화재 임원진과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조물책임법 입법 추진현황과 보험업계 대응반안에 대해 특강했다.

내달 참선 기초교실 개원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장은 12월 8일 참선의 이른과 자세, 호흡법, 생활참선법 등을 지도하는 참선기초교실을 연다.



태고보우 학술회 및 전서 출판회

대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무공스님)은 18일 오후 1시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태고보우국사 사상과 법통 재조명' 2차 학술발표회와 〈태고보우국사 전서〉 완간판 출판기념법회를 가졌다.

출판기념법회에는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덕암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진흥원 서돈각이사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청담대종사 열반 27주기 추모법회

청담 대종사 27주기 추모법회가 15일 서울 구이동 도선사 호국참회원 강당에서 봉행됐다.

주지 등광스님의 개회사로 시작된 법회는 청담스님 육성법어,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추모법어, 밀운스님(연백문도회장), 지선스님(연백문도회 부회장)의 추모사, 혜성스님의 인사로 진행돼 청담스님의 생전 유덕을 기렸다. 이 자리에는 문도등 사부대중 8백여명이 참석했다.



인천 자비의전화 개통 5주년

인천 자비의전화(총재 무찰스님)는 14일 교원연합회 강당에서 개통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재 무찰스님을 비롯 도해(인천불교연합회장), 홍제(인천불교련 사무총장), 우경(인천 청학사 주지)스님과 부평구청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7번째 자비의전화인 인천 자비의전화는 93년 7월 설립, 현재 12명의 상담원이 불자·시민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다.



'산은 산 물은 물' 출판기념회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산은 산 물은 물〉 출판기념회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성철스님문도회 주최로 열렸다. 기념회에는 원택 원영 일감스님 등 문도회 스님들과 원명스님(연등국제불교회관 주지)을 비롯해 한갑진(한진영화사 사장) 성낙승(불교방송 사장) 김광삼(현대불교신문 사장) 조정래(작가) 최인호(작가) 정영호(교원대 교수) 홍기삼(동국대 교수) 송현호(아주대 교수) 박맹호(민음사 사장)씨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초의선사 성상

조성 불사 동참 안내

한국의 다성이신 초의선사의 성상을 목불로 조성하여 선사께서 출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 생가터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점안식은 내년('99년)음력 4월 5일 선사께서 출생하신 날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불사에 동참해주시는 분들께는 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艸衣禪院長 釋龍雲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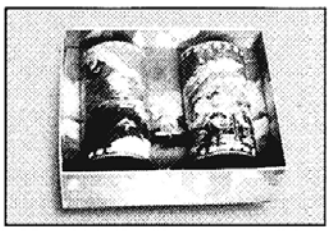
주최 : 초의문화재단
전화 02-732-2317
팩스 02-732-2319
인터넷 http :\\www.teancha.co.kr\
국민은행 006-01-0452-791
농협 053-01-193314
우체국 010579-0026125
예금주 전중석



초의문화재단 에서는
무안군에서 주최하는 현창사업에
서 복원되는 생가에 모실
불사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어령 장관시절
문화부에서 선정하여 외국의
국가 수반에게 선물되었던
초의다기와
동참금 200,000 이상



특별한 제다공법으로 완성시킨
100g × 2통
문수차 · 보현차를
동참금 30,000 이상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소개

1. 초의선사 께서는

대각등제보제존자초의대선사(大覺登階普濟尊者艸衣大禪師)의 사상과 업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차(茶)에 관한 것과, 선(禪)에 관한 것과, 시(詩)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초의스님을 가리켜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초의선사를 말할 수 없으리라(석용운 스님의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2. 5월의 문화인물 초의선사(지난해 1997년)

선사의 탄신 21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문화인물로 선정 되었습니다.

3. 선사께서 수행정진 하시던 일지암

선사께서 옛 인연의 터에 몇 칸 집을 짓고, 못을 파서 달이 비치게 하셨던 일지암 그 후 소실되어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용운스님께서 1975부터 복원사업에 진력 하셨습니다.

4.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초의선사께서 탄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삼향면)에서는 초의 의순 선사에 대한 현창사업을 실시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자 '97.4.19(토) 72명으로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가 복원(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7,143) 유허비 건립 (생애, 업적등 기록), 추모각 건립 20평(초상화, 유품등 전시) 등의 현창사업을 실시 합니다.

5. 선사의 법손인 용운스님께서는

초의선사 현창사업에 참여하여 생가 복원시 초의선사 성상을 조성하여 봉안 하고자 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茶山, 秋史, 海居, 申耘등 많은 명사들과 교유하며 그들에게 禪사상을 가르치시고 한국의 차문화 중흥을 도모했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정신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

후원:명차 유통 02-427-7373,4
인터넷 :http:\\www.shinbiro.net\~teancha E-mail :teancha@shinbiro.net

"장병들의 어머니 되겠어요"

심우회 군법당 불사에 불상·탱화등 보시
향지모임 근로봉사 장병·김장·간식제공
보문회 육사·공사·해사 등 장교포교 주력



◇3사관학교 법당건립불사에 시주한 심우회 이지성심보살이 3사관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장병들을 포교하는 불교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심우회, 향지모임, 보문회가 대표적이며 논산훈련소 불교어머니회와 군불교진흥회 후원회등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5일 경기도 75사단 법당 입주법회에 참석하여 대형 보온물통 2개등 필요물품을 보시하고 대중공양을 펼쳤다. 법당이 없던 마지막 사단인 75사단은 심우회 회원들의 원력으로 부처님을 모시게 됐다.

군장병 3백명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밀운스님(봉선사주지)은 "군법당이 생긴 것을 계기로 더욱 군생활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물심양면으로 군불자 포교에 앞장서준 심우회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심우회는 올해만해도 12사단 낙성식, 3사관학교 법당건립, 육군특수전학교 법당건립, 75사단 법당건립불사에 불상과 탱화를 모시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1사단등 군부대를 방문하여 이번 여름 한달간 수해지역에서 근로봉사하는 군장병들의 위문등을 통해 군부대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심우회는 앞으로 28일 이번 여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의정부 기무부대 법당에 보일러를 보시하고 12월에는 21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에게 대중공양할 예정이다.

경기도 연천지역에 소재한 향지모임(회장 양춘연)은 경기도 북부지역 군부대를 찾아 군법당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매주 일요일 군장병위문등 자원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 군법당 건립불사에 앞장서온 향지모임 회원들은 기금마련을 위해 김, 미역등 수산물을 팔아 군불자장병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고양 의정부 벽제지역에 복구봉사나온 군장병들에게 김장김치 50양동이와 빵 우유등을 20여일간 보시했다.

향지모임은 5사단 14개 법당에 봉사활동을 펼쳐온 자비회가 모체이며 지난 9월 1일 사찰신도회등 군부대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작은 단체들이 모여 새롭게 창립했다.

양춘연회장은 "불심으로 군생활에 활력이 됐으면 한다"며 "군불자 장병들에게 어머니가 되어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문회(회장 박명희)는 육사, 공사, 해사, 3사관학교등 장교후보생 포교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보문회는 군장교를 육성하는 4개학교 법당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생도들에게도 다양한 위문활동을 펼쳐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지성심보살(심우회 회원)은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부대에 불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군불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환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분당 새 법당불사 도와주세요"

한통불자회 시주자 찾아

한국통신불자회(회장 이문옥)는 분당 신사옥 이전과 함께 지하 5층에 45평 규모의 법당공간을 확보하고 법당장엄불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장불교단체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주자를 찾고 있다. 문의는 (0342)727-2201 김범기과장.

한국통신불자회는 전국연합회를 결성한다는 목표 아래 10개 지역본부에 지부를 개설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4백여 전화국에 불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초 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한국통신불자회는 10월 18일 대전 신원사에서 6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모임을 가졌다. 김원우 기자

대불련 취업센터 열어

'부처님 일도 하고 일자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

대불련 불교취업교류센터는 신심있는 대불련 출신 동문불자가 불교활동을 계속하여 재가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취지를 두고 불교계내 인력뱅크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불교취업정보교류센터는 회원제로 운영하며 구직자들에게 소정의 교육과 연수과정을 통해 관련분야의 내용과 제반사항을 갖추도록한다는 계획이다. 구직자는 입회원서와 소속지부장 추천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1매를 제출해야 한다. 또 대불련출신 불자를 구인하려는 교계사업체와 기관, 단체등 구인처에서는 입회원서와 업체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1매가 필요하다. (02)732-0239

(주)태고 업무 시작
차량·연금등 보험취급

김철회 前태고종 신도회장이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와 제휴하고 총괄법인 형태의 주식회사 '태고'를 10월 24일 창립했다.

주식회사 '태고'는 자동차, 화재, 상해, 운전자보험과 연금보험 암보험등의 보험업을 취급한다.

김철회회장은 "보험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불교분화 발전과 중흥을 위해 (가칭)한불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며 "보험사에서 가입을 꺼리는 사찰화재보험 상품등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02)392-6233

김원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직장단체 연수 연기

조계종 포교원이 28일부터 29일까지 마곡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직장·직능단체연수회가 종단사정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금강메아리 창립5돌

금강메아리산악회(회장 최혜명)는 12월 6일 포천 족포가든에서 창립5주년 기념법회및 송년모임을 갖는다. 기념법회 참가는 6일 오전 8시30분 동대문 이스턴호텔앞에서 출발한다.

한편 금강메아리산악회는 12월 20일 한해를 마무리하며 남해 보리암으로 사찰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017-277-6758

하불동 첫 정기법회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상일)는 29일 오전 10시30분 영주 부석사에서 제1회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이어 앞서 하이텔불교동호회는 28일 도착하는 회원들을 위해 참선정진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아침공양후에는 박상표씨(바로보는 우리문화답사회 기획담당)가 부석사를 안내하며 설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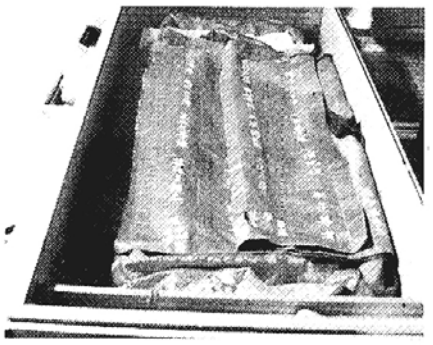
'국난극복' 선암사 참회법회 이모저모



◇대웅전앞 단상에 자리한 종단 지도자들.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사진 왼쪽부터 전두환 前대통령, 박상규 국민회의 연등회장, 허경만 도지사, 함종한 한나라당 불자회장.



◇법회 기간 동안 최초로 일반에게 공개 친견된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직접 수했던 가사.

대각국사 가사 첫 공개

○…태고종은 이날 대각국사 탄신 943주년 다례제에서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친히 수했던 가사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나무상자에 보관된 대각국사 가사는 대체로 흠집이나 얼룩이 없이 깨끗한 상태라 친견하는 불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대각국사는 고려 선종9년(1092년)부터 선암사에 주석하면서 천태선종을 창종했고, 선암사를 현재의 대가람으로 중창불사를 일으킨 주역이다.

3박4일간 인산인해

○…국내에서 가장 원형 그대로 보존된 전통사찰 선암사는 고색창연한 52동 당우들과, 울긋불긋한 단풍옷을 입고 조계산을 뒤덮은 나무들 그리고 태고종스님들의 홍가사가 삼위일체로 어울어져 그 빛을 더했다.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만등이 장엄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태고종이 주관한 첫 종단 연합법회의 자리였다. 또한 이 법회 이외에도 합동득도식·승정추대법회·대각국사 탄신다례·사리친견법회도 함께 열려 태고종 단일불사로서는 가장 큰 법회로 치러졌다. 3박4일 동안 선암사에는 연 1만여 신도가 모여 일주문쪽 주차장부터 대형버스들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또 식단인 대웅전을 향해 앞비당을 중심으로 빙 둘러싼 심검당 만세루 관음전 설선당에는 발디딜틈도 없이 신도들로 가득찼다

겨울폭우 법회직전 그쳐

○…겨울을 재촉하는 폭우가 오전까지 계속해서 내리다가 법회 1시간 전부터 완전히 멈추자 행사 진행 관계자들과 불자들은 한결같이 부처님 가피라며 입을 모았다. 이날 법회는 민방위훈련 관계로 2시30분에 시작됐다.

전 前대통령에 '달걀시위'

○…전두환前대통령의 참석과 관련 전남경찰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백여명의 경찰병력을 행사장에 투입했다. 경찰들은 행사전날부터 경호예행연습을 한것으로 알려졌으나, 행사당일 전前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위해 내린 접견실인 북전을 막 나서는 순간 5·18구속자회 회원 2명이 '진상규명' 요구를 하며 던진 계란시위는 막지 못했다.

수계법회 이타행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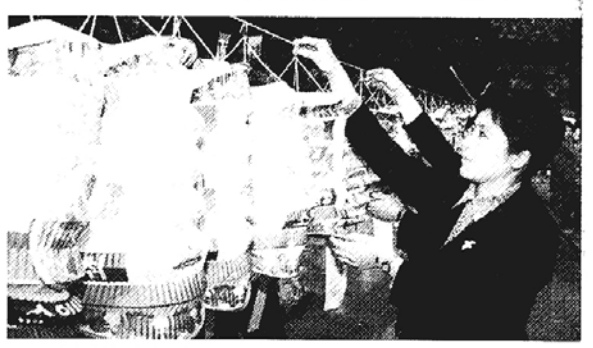
○…보살계수계법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그동안 열렸던 6차례 국난극복 법회와는 달리 '우리의 다짐'에서 지계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주목을 끌었다. "어떤 경우에도 계를 지켜지니겠습니다."

"어지러운 나라와 사회를 정화하고 대중제도에 모든 노력을 다해 이타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수계와 지계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아냈다.

위영란·김원우 기자
(yryul@buddhapia.com)



◇보살계 수계로 다시 국운을 열어보자고 기원했다.



◇선암사 진입로부터 경내 곳곳을 장엄한 국난극복 기원 만등.

봉행

3,000 옥불 조성 봉안

동원정사 대웅보전 삼존불 점안 대법회 초대의 말씀
- 자비행 정우장학금 수여식 -



결실의 계절 불보살님의 크신 가피력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방에 대덕스님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당사 대웅보전(목조 60평 내 11포, 외 7포)을 3년 동안 건립불사를 마무리하고 삼존불을봉안하는 대법회를 월운, 월탄 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모시고 봉행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비와 행함이 하나 되어회 근본도량
조계종 동원정사 송 묵 합장

■ 일 시 : 1998년 11월 29일(일요일) 오전 11시
■ 법 어 : 월운 대종사 (동국대 역경원장, 봉선사 회주)

제 1 부 ⊙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점안 법회
⊙ 자비행 정우장학금 수여식
(생활곤란 학업성적 우수자 20명 1,200만원 지급)

제 2 부 ⊙ 축하공연(국악공연 및 수화발표)

♠ 교통편 : 좌석버스 765-1, 330-1를 청량리역에서 마석 차산리행 타고 광암낚시터 앞 하차.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05번지 **동원정사**
문의전화 : 0346)593-6829, 7584

금강불교 교양대학 강좌 개설안내

금강사에서는 금강불교 교양대학 강의실인 제불보전 현겁/천불상(古佛像 高1尺)을 개금불사 하여 새롭게 봉안하고 그 무량공덕을 기리고저 금반 불교경전 독송·강설과 교리·신행 교양대학 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고 수강불자를 모집합니다.

⊙ 다 음 ⊙

■ 개 강 : 불기 2542년 11월 25일 10시 30분
■ 기 간 : 11월 19일 부터 불기 2543년 5월 9일
■ 장 소 : 1) 교리강좌 : 매월 음력 1일·24일 제불보전
2) 신행강좌 : 매월 음력 7일 (특강) 큰 법 당
■ 강 좌 : 매월 음력 1일·7일·24일 10시 30분~12시

강좌 내용
◇ 불 자 예 절 ◇ 불교의 기본교리 ◇ 불 교 예 식
◇ 6법공양실습 ◇ 불교의 신앙생활 ◇ 생활불교실천
◇ 성 지 순 례 ◇ 삼귀의·5계수계 ◇ 금강경 강설

▶ 접수·안내 : 금강사 종무소 ☎ 02)993-3744

132-031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531-8(우이동 8번버스종점뒤 300m)
금강불교 교양대학 학 장 강 자 우

18일로 연기됐던 총무원장 선거가 또다시 무산되는 등 11일 있었던 조계종 사태 이후 조계종의 내부분란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각 재가단체들이 모든 승가가 사심을 버리고 합심화합하여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는가 하면, 불자들도 스님들이 초발심으로 돌아가 모든 문제를 여법하게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처님 법을 따르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승가 본연의 자세다. 출가자는 누구나 이런 서원으로 산문에 발을 들여 놓는다. 이런 초발심을 되찾는다면 작금의 혼란은 풀기 어렵지 않은 문제다. 초발심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초발심 보리를 향해 흔들리지 말라

▩초발심을 발한 보살이 보리심을 내면, 무한한 과거로부터 활동해 온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으며,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을 수가 있으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지혜를 알 수가 있다. …이 초발심을 발한 보살이야말로 실은 부처님인 것이다. 〈화엄경〉

▩선남자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함이요,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요,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우바새계경〉

▩허공은 두루 뒤덮지 아니함이 없나니, 보살의 발심도 이러하여 온갖 중생을 뒤덮지 아니함이 없다. 중생의 세계가 무량무변하여 다할 수 없는 것이리면, 보살의 발심도 무량무변하여 다함이 있을 수 없다. 〈발보리심경론〉

▩보살이 생존 중 처음으로 발심할 때, 오로지 보리를 구해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의 일념공덕이 깊고 넓어서 끝이 없을 것이니, 여래가 설하사 한 겁(劫)을 다 소비하신대도 능히 다하시지 못하리라. 〈화엄경〉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대집비유왕경〉

▩보살은 마땅히 네 가지 더럽히는 작용이 없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무엇이 넷인가? 첫째는 번뇌가 더럽히지 못하는 것, 둘째는 명리(名利)가 더럽히지 못하는 것, 셋째는 하승(下乘·작은 뜻)이 더럽히지 못하는 것, 넷째는 악한 중생들이 더럽히지 못하는 일이다. 〈대승사법경〉

▩바른 가르침을 수지하고 여러 지혜를 닦아, 보리를 증득하기 위해 발심한다. 항상 청정한 태도로 온갖 부처님을 공경·존중하며, 법과 승(僧)에도 이같이 하여 지성으로 공양하기 위해 발심한다. 〈화엄경〉

▩만약 사람들이 큰 광명이 되어 온 암흑을 없애고자 원한다면, 모름지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출생보리심경〉

▩너희들은 마땅히 법 가운데서 서로 화합하고 순종하여 서로 송사를 일으키지 말라. 한 스승에게 배우고 있으니 우유와 물이 잘 혼합되듯 화합하라. 〈장아함경〉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 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사문답지 못하면서 사문이라 말하고, 범행(梵行)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말하고, 정법을 듣지 못했으면서 정법을 들었다 말하여 맑고 깨끗한 법을 갖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불 속에 뛰어들지언정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 〈증일아함경〉

제 언

시청자운동은 인간방생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 회장

어느 사람이 가게에 들러 빵을 사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 빵이 변질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가게에 알려주어서 그 빵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방송과 시청자의 관계도 그와 같다.

흔히 '시청자 시대'라고 말한다. 어렵게 표현할 것도 없이, 시청자 시대란 시청자가 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시청자의 권리와 책임이다.

시청자의 권리는 좋은 방송을 수용하는 데 있다. 좋은 방송이란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공익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방송이다. 시청자의 책임이란, 방송이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충고해주며,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방송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주는 책임이다. 시청자는 방송에 대하여 책임의 일단을 지고 있다. 이렇듯 진정한 의미의 시청자는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특히, 불자들은 방송이 만들어내는 삼보를 잘 지켜보아야 한다. 불자들은 방송에 의한 불교왜곡이나 편파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막고 개선해야 하는 사천왕과도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방송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뜻 있는 동참이요, 진정한 인간방생이다.

열린마당

軍 종교화합

군내 종교화합을 위한 세미나가 17~18일 국방부 군종실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군의 정신전력 증강과 종교화합의 새로운 모델 제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군내의 종교갈등은 전 해병대사령관의 종교편향 발언, 군종사병들의 공공장소 집단선교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군내 종교갈등은 심각하다"는 것이 군종관계자의 진단이다. 군 종교화합의 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우월논쟁 중단 대화로 화합을

정병조 〈동국대 부총장〉



종교갈등의 본질은 대화부재 때문이다. 종교인들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이 점이 종교갈등의 근본원인이다.

한국에서의 종교적 대화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며, 본질적이기보다는 현상적이다. 따라서 대화의 패턴은 보다 지성적이어야 하며, 그 주제 또한 보편적이어야 한다.

종교끼리의 외형적 비교나 우월논쟁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속에서 진여(眞如)를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종교적 진리를 얼마만큼 내면화했으며 또 실현했느냐 하는 점이 논의의 초점이어야 한다.

타종교 배타는 믿음의 미성숙

정명조 〈천주교군종교구장〉



군종장교가 군을 또 신앙인을 각각의 배타적 집단이기주의의 길로 이끌고 있다면, 그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종교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언정, 참뜻에서의 성직자는 아닐 것이다.

자비의 실천이 불교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손의 안팎처럼 가까운 것이다. 참다운 군종장교들 사이에서는 화합과 친교와 우정이 있을지언정 배타적인 무한경쟁은 있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출가의 첫 순간의 그 설레던 마음으로 새롭게 인식할 것과, 사랑과 자비의 실천의 첫 걸음으로 종교적 다원성을 기쁜 마음으로 껴안기를 제안한다.

다원주의 수용 가치혼동 극복

윤이흠 〈서울대 종교학과교수〉



이 땅의 종교인들은 다종교사회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고 다만 자기 종교의 시각으로 사회를 보아왔다.

다종교 상황에서는 다원주의 원리를 수용하는 길만이 가치혼돈을 극복하는 길이다.

현대종교들은 각 종교들이 지닌 유일한 정신적 권위인 도덕적 권위를 사회에서 확보하고 또 행사해야 한다. 이제는 혼탁해진 사회 안에서 빛을 발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도덕적 실천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들이 제각기 도덕적 모범이 되는 경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오늘의 혼돈이 극복되고 내일의 성숙한 사회를 창조하는 역사적 안내자가 될 것이다.

종교-정치 결탁 종교갈등 심화

전호진 〈횃불신학대학원 부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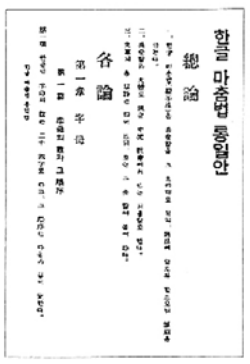
이 시대는 문화와 종교의 다원화사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도 독점사상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혼합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종교가 정치의 힘을 빌려서 세력을 확장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종교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선거 때만 되면 자기 종교인들을 정치에 진출하도록 종교적 힘을 동원한다면 여기에 사회갈등의 위험이 따른다. 또한 각 종교단체는 한 신도가 자기 종교의 상징을 훼손하거나 비난한 것에 대해 마치 그 종교 전체가 개입된 것처럼 문제를 확대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종교간 선의의 경쟁을 제안한다. 종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한다.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45년11~12월)

강습회 준비, 교과서 구입

- 1945년 11월18일(일)

이만흥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스님이 들어와 하던 말을 중단하였다. 이만흥 스님이 아까 말한 주지 다음 직책인 감사(監事) 정문학 스님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이번 강습회는 송만암 주지스님의 뜻을 받아 감사가 주관하는 듯 보였다.


한글 마춤법 통일안
總論
谷論
第一章 字母

◇한글강습회의 교재로 썼던 '한글맞춤법 통일안'.

강습회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백양사에서 진행중인 행사가 끝나는 26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습을 시작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아 이것저것을 물었다. 특히 책상은 북하면 약수리에 있는 학교에서 빌려올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 그때 풍금도 함께 빌려오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풍금이 있으면 한글노래를 가르쳐 졸업식 때 합창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에 정문학 스님은 절에도 풍금이 있기는 하나 조금 망가져 고쳐야 한다면서 고치든지 빌려오든지 준비를 해주겠다고 했다.

한글강습회의 수강생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될지도 궁금했다. 대략 보통학교 졸업 정도를 보통부로, 중등학교 졸업 정도를 고등부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형편을 봐서 결정하자고 했다.

강습회 교과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 1945년 9월 11판을 주로 하고, 최현배의 〈한글의 바른 길〉 1945년판을 보충용으로 할 생각이다. 책을 서울에 있는 조선어학회에 서면으로 부탁해 놓았다고 하자 내일쯤 사람을 시켜 가지러 보내겠다고 했다.

'북하청년동맹' 결성식

- 1945년 11월19일(월)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문이 열린 향적전에 '사회과학강습회'라고 쓴 것이 보였다. 잠깐 엿보니 세워놓은 칠판에 '북하청년동맹(北下靑年同盟) 결성식'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전남 장성군 북하면 면단위 청년들이 결성을 하는 듯 보였다. 돌아와서 혜화전문학교에서 등사를 하였다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들쳐 보았으나 어려워서 눈이 감겼다.

국문과 설립, 사원학교

- 1945년 11월22일(목)

아침에 이만흥스님이 와서 광주에 같이 가자고 한다. 스님과 함께 길을 가며 이야기중에 한글문화보급회를 상설기관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왕 사회사업으로 하려면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침하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백양사가 아주 조용해 공부가 잘 될 것이니 일요일이면 산에 가고 강에 가 감상을 하고 그것을 글로 짓도록 하면 한글도 잘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소질도 계발할 수 있고 국사과와 불교과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만흥스님은 영어과를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군산에서 강습회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영어과는 대만원이고 국문과는 1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국문의 보급과 연구를 위해 국문과에서 국사 불교 영어 등을 넣어 가르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은근히 절의 재정이 걱정되어 절의 재정은 근심없느냐고 물었더니 스님은 절의 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계속〉

공 고

대한불교 법성종을 창종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①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 서 덕 암

② 원로원장 : 법주 박 영 식 ③ 총무원장 : 덕암 서 장 근
④ 종회의장 : 혜승 고 대 환 ⑤ 교육원장 : 만원 이 홍 종
⑥ 포교원장 : 재령 김 선 중
⑦ 총무부장 : 혜운 안 병 엽 ⑧ 규정부장 : 혜윤 김 승 만
⑨ 교무부장 : 혜선 류 지 형 ⑩ 재무부장 : 옥천 유 옥 순
⑪ 포교부장 : 보혁 조 보 현

초장파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제품!! 대동

황토방玉~매트

황토와 옥의 신비가 과학적으로 입증!!

침대, 안방, 거실, 어디서나 사용가능!

현대인의 건강비결 황토 玉 매트에 맡기십시요!!



⊙ 이런분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

- 물리치료를 원하시는 분
- 사고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수험생 운동부족 집중력 강화
- 숙면이 필요하신 분
- 냉대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한 분

스트레스와 세멘트문화에 찌들린 현대인!!
옛날 초가집 황토흙 그대로를 재현시킨 황토방!!
당신을 편안한 잠자리로 만들어 드립니다.

초장파란	교번자장이라고도 하며 자장의 강도가 일정주기로 변화하는 변동자장으로 체내의 세포를 자극하여 세포재생력을 촉진시켜 줍니다.
옥 매트는…	옥에서 발산하는 파동이 우리 인체에 공고루 침투 공진공명작용으로 조직의 부활, 혈액순환개선, 혈액의 약알카리화, 체내 유해노폐물제거 등 건강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대 동 황토방은	대동 黃土는 독성이 없고 원적외선 방출로 생명의 재생, 소생작용을 하여 우리몸에 氣를 넣어주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줍니다.
숯요법은	숯은 전자와 자장이 얽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氣場을 높혀주며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 독소를 배출, 노화방지, 체질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초장파 매트는 주문생산으로 한정수량만 공급합니다.

구 분	정 가	할 인 가
초장파 옥황토	780,000	380,000
황토매트KING	730,000	350,000
황토매트(2人)	390,000	290,000
황토매트(1人)	290,000	198,000

※ 초장파 황토옥매트 주문분에 한하여 숯 매트방석(35×50cm)증정

대동 황토방 Tel. (02)454-0646(代)



◇광덕스님이 작사한 찬불가 21곡 발표회를 갖는 불광사 마하보디합창단.

창작국악교성곡 들을 기회

광덕스님 작사 찬불가 21곡 발표
불광사합창단-중앙국악관현악단
12월5일 리틀엔젤스회관



◇광덕스님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현행원으로 불국 이루리."

92년 초연된 창작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박범훈 작곡)은 불교음악계에 창작교성곡 붐을 일으키고 불교음악도 대형 이벤트화시킬 수 있다는 선례가 된 대곡이다. 이 곡을 위시해 창작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과 찬불가 '두손 모아 합장하옵고' '연꽃피는 날' '보디스바하' '열반의 노래' 등은 모두 광덕스님(서울 불광사 법주)이 작사했다. 광덕스님이 작시한 찬불가 21곡 모두가 발표되는 음악회가 12월 5일 오후 7시 서울 중곡동 리틀엔젤스회관에서 열린다.

룩동열씨의 지휘로 200여 불광사 마하보디 합창단과 중앙국악관현악단의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 1부에서는 '임은 태양위 태양' 등 17곡이, 2부에서는 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과 '보현행원송'이 각 25분씩 연주되고 탑돌이가 펼쳐진다.

광덕스님은 한국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법회의 한글화와 도심포교에 진력해 오며 전법과 신행을 위해서는 음악의 중요성에 주목, 불광사 마하보디합창단과 바라밀다합창단을 창립해 새로운 불교음악 시도에 앞장서 왔다. 찬불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광덕스님은 따라서 부처님말씀을 노랫말로 옮기는 작사에도 심혈을 기울여, 쉽고 고운 한글로 이루어진 찬불가 가사를 만들어 부르기에 흥겨운 것은 물론 불자들의 신행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어왔다.

이번 음악회는 찬불가를 통한 광덕스님의 전법의지를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념이 되며, 불광사주지 지암스님과 국악인 최진숙씨 등도 출연한다. (02)413-6060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음악 명상여행 떠나요"

인도명상음악 CD 시리즈 발표 김창수씨



"인도명상음악은 명상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 자체를 소리로 들려주는 소리와 함께 떠나는 명상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소리의 조화를 느끼다 보면 어느새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지요."

5년전 티벳불교예불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던 김창수(38)씨가 이번엔 8개로 이루어진 인도명상음악 CD를 출간했다. 4년 전 기획을 바탕으로 아예 인도 현지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유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담고 직접 연주한 곡도 수록했다. 인도미학에 근거한 명상적 주제가 담긴 이 음반들은 경건한 명상의 분위기가 풍기는 비스마야(경이로움), 구도의 길 떠나는 명상가의 발길을 연상케 하는 사드나(구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패의 짓소리 홑소리 인도전통 성악과 유사"

인도 음악에 매료된 김씨는 88년 인도로 건너가 바라나스 힌두대학 공연예술대학에서 인도 전통악기인 따불라를 전공했다.

"인도의 음악은 악보가 없고 전통음계인 라그(Rāg)에 의해 연주됩니다. 5백여개의 라그가 실제 무대에 올려지는데 연주하는 사람 개개인의 철학과 사상이 그대로 녹아들 수 있는 음계지요. 범패의 짓소리 홑소리도 인도 전통 성악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김씨는 인도 전통음악에서 부처님의 자비심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서울대에서 후학들에게 인도음악을 강의하는 김창수씨는 "장애인을 위해 뭔가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예술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포교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지요"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초의선사 성상 봉안사업 전개

초의문화재단, 생가-일지암-수중사 등에



◇초의선사 상.

"초의선사(1786~1866)는 한국 차문화를 중흥 발전시킨 다성(茶聖)일뿐 아니라 선과 교에도 출중했던 조선시대 고승입니다. 스님의 선사상과 차정신을 오늘날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님의 상을 스님과 인연있는 곳에 차례로 봉안해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초의문화재단 이사장 용운스님은 초의선사 성상(聖像)봉안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지난해 5월 초의스님의 탈에 서울 인사동 초의선원에 실물 크기의 초의선사 목각좌상(인간문화재 박찬수씨 제작)을 봉안했고 내년에는 초의스님의 탄생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봉안한다. 스님의 상은 태평양 박물관에 봉안되어 있는 영정을 토대로 목각으로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초의재단은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초의선사 성상조성을 위한 기금마련' 모연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02)732-2317

용운스님은 "일지암과 수중사 등 스님이 거쳐간 곳은 물론 전국의 다원 등에도 초의스님 성상을 봉안하여 어디서든지 친근하게 스님을 대하며 차생활을 해 선사의 정신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51〉

오르는 달에 경을 읽다

數叢烏竹入斜簷 (수총오죽입사첨)	두어 떨기 오죽이 기운 처마에 드니
一室淸凉頗不廉 (일실청량파불렴)	방안이 썰렁해도 청렴할 수는 없구나
每待高枝上新月 (매대고지상신월)	항시 높은 가지에 새 달 뜨기 기다려
閒憑經几誦楞嚴 (한빙경궤송능엄)	한가로이 경상에 기대어 능엄경 독송타.

혜즙(惠楫)대사의 〈산거잡영(山居雜詠)〉이다. 대사는 〈철선소초(鐵船小艸)〉라는 시집을 남기고 있어 거기에는 1백여수의 시만이 수록되어 있다. 그 외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상고하기가 어렵다.

대사의 시는 스님이라는 신분 속에서 불교적 교리를 부각시키는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자연의 서경이나 서정적 시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사대부나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한 도구로 작시의 여가를 가졌던 것이다.

스님들의 시집에서 산에 사는 이야기가 책 머리에 실리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기에, 위 시도 시집의 맨 앞에 실려 있다. 어쩌면 자신들이 입산하게 된 심정적 동기나, 산에서 생활하는 여러 사실들이 스님들의 행적을 대표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위 시에서도 산에서 사는 한 때의 사실로 그저 한가함으로 비칠 생활상이다. 집을 둘러싼 대나무 숲은 이미 기울어진 처마로 들고 있다. 그것은 검은 오죽이다. 오죽이란 일반 대나무보다는 어딘가 신선스런 느낌이 든다. 아마도 흔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이 대가 기울어진 처마를 들고 있다. 하필 기운 처마인가. 역시 산사의 가난한 풍경이다. 이런 가난이기에 방안은 싸늘하다. 여기에 오죽이 찾아들었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청렴치 못하다는 것이다. 자연의 풍요로움도 스님의 삶에는 사치스럽다는 것이니 철저한 청빈이다.

이런 청빈에서는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요, 또 제 스스로 주인노릇이 될 수도 없는 것의 하나가 봉우리 위의 달이다. 이 달이 높은 가지 위로 돋기를 기다려 사심없이 독경이나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송나라 때의 소동파의 말이 생각난다. 그가 〈적벽부〉에서 세상 사물 중에서 가져도 나무라지 않고 아무리 사용해도 다하지 않는 것은 오직 산간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 했다. 스님도 이러한 달의 소유주가 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달을 이용하더라도 세속의 선비와는 다르다. 소동파는 달이 질 때까지 종류를 즐기려 했고, 스님은 능엄경을 읽겠다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승·속의 거리를 또다시 느낄수 있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문화 단신

전통불교화혼식 재현
29일 육법공양회

육법공양회(회장 정승연)는 29일 11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통불교화혼의식을 거행한다.

육법공양회는 복식의 경우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와 고려시대 왕가의 의상을 바탕으로 하여 팔정도등 불교문양을 현대적인 기법으로 표현하고 의식도 학문적 고증을 거쳐 재현했다.

불교혼례복식은 프라젼야(대표 이정희, 역동적이라는 범어) 디자이너 제선아씨가 디자인 했으며 의식은 정승연 육법공양회회장이 5년전 발표한 연구논문을 토대로 새롭게 보완했다.

정승연회장은 "혼인은 불교적으로 법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통불교혼례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도록 복식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육법공양회는 내년 5월경 관정의식을 재현하여 불교 성년식을 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일제하 한국시 100인전

한용운 윤동주 이광수 등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시인 1백인의 육필 원고와 대표 시집들을 모은 '일제하 한국시 100인전'이 아트선재센터에서 내년 1월 17일까지 열린다.

이번 100인전에는 친필원고 17점과 명시집 180여권 외에 시인들의 사진 50여점도 함께 전시된다. (02)733-8945

제주 수정사터 고려 유물 발견

인왕상 음각등 불교미술사 연구자료

제주 수정사 터 건물지에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공개된 이 유물에는 국내 조각미술에서 보기 드물게 상체부분 근육을 실감나게 묘사한 인왕상(仁王像)이 음각돼 있어 우리나라 고대불교미술사를 연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대 박물관 강창화학예연구사는 "석탑인지 사리함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인왕상이 새겨진 기단면석은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왕상 역시 신라시대의 분황사석탑등 몇 개의 고대사찰에서나 볼 수 있을 뿐 제주도에서 발견되기는 처음"이라고 중요성을 밝혔다. 인왕상은 사찰이나 불상·불사리를 지키는 수문장으로 흔히 금강역사나 이왕(二王), 이천왕(二天王)으로 불리기도 한다.

6월부터 10월까지 수정사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제주대박물관은 인왕상이 새겨진 기단면석을 비롯해 수천점의 자기류, 명문기와, 금동제품, 철제품, 중국 송나라시대의 화폐인 원례통보(1078~1085) 등을 공개했다.

■北서 열린 남북합동 윤이상통일음악제-추모재

"반야심경 독경소리에 묘향산도 숙연"



◇윤이상추모재 봉행을 위해 남북불교관계자들이 4일 광법사 법당에 모였다.

댕댕댕~ 2일 묘향산 자락을 휘감아도는 청정한 종소리가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윤이상통일음악회와 남북합동추모재를 위해 함께 자리한 남북불교 관계자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울려퍼졌다. 평불협 미주본부 정산스님과 지현정사(평불협 상임부회장), 박법훈 국립국악관현악단장, 명창 안숙선씨는 북한의 최형민스님(보현사 주지) 안순찬스님(광법사 주지) 등과 함께 10여년 동안 옮아맸던 철사줄을 끊어 종을 치며 통일을 기원했다.

3~6일 윤이상통일음악회를 위해 국악관현악단을 이끌고 방북한 박범훈씨는 "스님들의 모습과 예불형식이 우리와 다르긴 했지만 염불선법만은 다름이 없다는 사실에 음악인으로서 기뻤다"고 말했다. 안숙선씨는 "윤이상 선생님이 '안숙선의 남도민요' CD를 접하시고 격려편지를 보내주신 적이 있다. 그 인연때문인지 4일 광법사에서 열린 추모재와 음악회에 참여하는 감회가 남달랐다"며 "매 행사마다 육자배기를 비롯한 우리 창을 부르며 분단의 사실을 잊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한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날의 감격을 전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외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겨울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1998년 12월 2일(수)오후7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해탈을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붙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

주지직인 개인공고

■ 사 찰 명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위 사찰의 주지직인을 1998년 11월 17일부로 改印하였음을 공고하며 아울러 전주지가 사용한 구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함.

1998. 11. 17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 지 원 혜

새로나온 책



▲붓다의 대예언=현재 우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행동과 말이 쌓여 새로운 행동의 방향이 업력(業力)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함경〉안에 있는 경전 등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부처님의 말씀과 현대과학과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저자는 범어사 금강암 정묵스님. 〈출판시대, 7천원〉



▲극락세계3=불광출판부가 내놓은 '극락세계 시리즈'의 세번째 권. 〈불설아미타경〉을 해설한 것으로 극락세계에 대한 건립과 장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역자 공파스님 특유의 시의적절한 해설이 이해를 도운다. 〈불광출판부, 7천원〉



▲바람의 노래='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청천(靑天)에 들 수 없는 것이 새 뿐이랴 산들도 나무, 짐승들도 산문(山門)에 들어서면 사문(沙門)이 되는구나'.

너와 내가 들이 아닌 하나라는 진리, 김현문시인은 이 시집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불국토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솔과학, 5천원〉



▲나도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좌선을 하고 앉아 주변의 소리에 귀기울여 봐.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기울이는 거야" 무용가 홍신자씨가 딸에게 주는 사랑과 자유, 명상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서정적인 언어로 말한다. 〈안그라픽스, 7천5백원〉

스스로 깨달을 것이냐 신의구원 받을 것이냐

유재신씨 '불교와 기독교'

붓다와 예수의 권위 승가와 교회의 본질 계율등 비교-분석



한 여인이 죽은 아들을 붓다에게 데리고 와서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붓다는 그 소년을 살릴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 다만 "집안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었던 집을 찾아 그 집에서 작은 불씨를 가져오라"고 했다. 한편 예수는 한 관원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말고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하면서 아이의 손을 잡아 살려냈다.

붓다는 그 어미가 자신의 이성과 인생무상에 대한 심리적 경험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풀도록 한 반면 예수는 기적을 통해 죽은 아이를 살려낸 것이다. '지혜의 눈'과 '이성을 초월한 신앙', 두 종교가 출발하면서 드러낸 극명한 차이점이다.

유재신씨(한국종교문화연구원장)가 펴낸 〈불교와 기독교〉(민족사刊)는 불교와 기독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붓다와 예수 두 교조(敎祖)의 권위와 승가와 교회의 본질, 계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특히 불경과 성경을 통해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놓은 기존의 비교서와는 달리 초기 불교와 기독교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발전과정과 구조를 파악해 나가는 접근방식이 독특하다. 저자가 말한 '초기'의 개념은 붓다와 예수의 사후 1백년에 걸친 기간이다. 초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비교하기에 가장 좋다는 판단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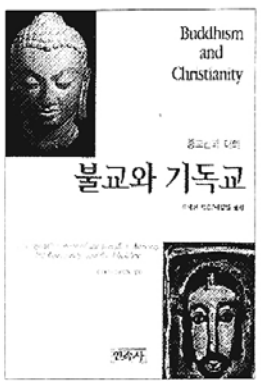
저자는 먼저 붓다의 권위는 교리와 법을 주는 자로서 자율적으로 부여받은데 반해 예수의 권위는 율법보다 우월하며 타율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즉 불교가 개개인의 해탈을 위해 법을 추구한 자율적인 신앙으로 자리잡은데 비해 기독교는 예수가 신앙의 목적인 타율적인 절대적 신앙이라는, 두 종교의 뚜렷한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앙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불교가 법·율에 기초한 반면 기독교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예수의 권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2백50개의 계율과 승려총회 등은 불교 연합을 도모해 주는 초기 기독교가 갖지 못했던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계율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교에서의 계율이 본질적으로 합리적이고 자명한 교훈이라면 기독교의 계율은 신 중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혜와 명상을 동반하는 인격적 모범을 강조하는 것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본받는 생활방식을 요구했다는 차이다.

저자 유재신씨는 신학대학을 나왔으나 한·중·일 삼국불교를 연구했으며, 〈초기 조선 불교〉〈한국 불교 개론〉을 펴낸 바 있다. 또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동양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문화와 불교를 서구 학계에 널리 알려 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화엄사상의 요체 알기쉽게

탄허불교문화재단 '화엄경론회석' 펴내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전으로, 대승경전 중에서도 교학적·사상적으로 불교의 핵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경전이다. 따라서 이 경전에 대한 주석서도 여러 형태로 찬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화엄사상의 핵심을 가장 잘 밝혀 놓은 것으로는 당나라 이현통(635~730)이 지은 〈화엄경론〉이 꼽힌다.

탄허불교문화재단이 탄허스님 15주기 기념으로 펴낸 〈화엄경론회석(華嚴經論會釋)〉은 〈화엄경론〉의 여러 편(編) 중에서도 화엄사상의 요체를 개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는 이현통의 〈화엄경론회석〉을 탄허스님이 현토·번역하고 후학인 각성스님이 강해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현통은 출가사문이 아닌 거사의 신분으로 전통적인 화엄학 위에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창조해낸 것으로 유명하다. 〈화엄경〉을 해석하면서 이현통은 다른 주석서와는 달리 선종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화엄세계보다 더 이상의 경지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책 앞부분에서는 이같은 이현통의 화엄사상을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 화엄종 4조(祖)인 청량국사 징관과의 화엄관 비교를 통해 이현통의 화엄관이 갖는 특징과 오늘날 화엄학에 미친 영향 등을 밝혀 놓았다. 값 5만원.

한명우 기자

'밀교학연구' 제1집 발간



대한불교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이 지난해 가을 창종 50주년 기념으로 개최했던 밀교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단행본으로 묶은 학술지 〈밀교학 연구〉(진각종 교육원 刊) 제1집을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한국 밀교의 특성과 법신사상'(서윤길·동국대교수) '한국에서의 밀교의 수용과 전개'(종석스님·중앙승가대교수) 등 9편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학술발표회 당시 벌어졌던 토론 내용도 그대로 담겨있다. 값 1만원.

한명우 기자

'불교용어사전' 출간

8만여 용어풀이…팔리어등 원어도 표기



8만여개의 용어를 쉽게 풀이한 〈불교용어사전〉(경인문화사 刊)이 2권으로 출간됐다. 이 사전은 기존에 나와 있는 〈불교대사전〉(홍법원 刊)과 큰 차이는 없으나 용어설명에 있어 현대적 어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활자체를 크게 해 편안함을 도운 것도 일반 사전류와는 다른 점이다.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등 원어를 표기해 일종의 원어사전 구실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파나 시대에 의해 읽기를 달리하는 경우까지 수록했다. 또 현대 일상용어라든가 서양 철학의 번역어가 옛 불교문헌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박애(博愛)·평론(評論) 등 현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불전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도 검토했다. 불교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이나 현대어 중에서 불교적 색채를 띤 용어들도 표제어로 설명해 놓았다.

지난 74년 작업을 시작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이제서야 마무리를 하게 된 한상하씨(경인문화사 회장)는 "사부대중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행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출간의미를 밝혔다. 각 권 8만5천원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민음사
2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3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반영규	솔바람
4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5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사성	장승
6	불성이란 무엇인가	다카사키	여시아문
7	불교개론 강의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8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9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송찬우	보현각
10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이효걸 외	예문서원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소원성취 하소서 혜성스님 지음

기도는 나와 이웃 모두 살리는 길



질병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병을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된다. 병이 발생하기까지의 잘못된 일상을 참회하고 그 병에 매달려 일으킨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혜성스님(도선사 회주)이 쓴 이 책은 소원성취란 바로 그러한 중생의 삶이 보살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특정 선남자 혹은 선여인이 등장해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일상에서부터 부처님에 의해 구제 받은 인물들, 선문답 등 60여가지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된다. 〈밀알, 7천5백원〉

화제의 책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이라네 윤보스님 지음

희망을 버리면 삶을 포기하는 것



인생은 희망이 있다. 오늘 괴로움과 시련으로 희망을 버린다면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 즐겁지 않은가.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임을 알기만 한다면.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이라네〉는 스님이 불자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차 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 사랑과 우정 등 생활 속의 소재들을 통해 읽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수필집. 윤보스님은 보국불교 염불종 종정으로 현재 경주시 안강읍 대흥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효형출판, 8천원〉

화제의 책

화두와 참선 운주사 편집부 편역

선사들의 일화로 배우는 참선법



어떤 스님이 선의 근본 이치를 들려달라고 조주선사를 졸랐다. 그러자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했다. "난 지금 오줌이 급해. 생각해 보게나. 이런 사소한 일조차도 내 자신이 직접 하는데…." 깨달음은 치열한 자기 고민과 뼈를 깎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이 책은 허운대사의 〈참선요지〉와 좌선법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는 〈좌선의〉를 편역한 것으로, 참선에 관해 '왕초보'라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어져 있다. 내용이 쉬워 '선이 이렇게 쉬운건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 참선의 개요와 함께 입문방법과 참선방법 등이 스님들의 일화와 함께 재미있게 펼쳐진다. 〈운주사, 3천5백원〉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 - 교리·입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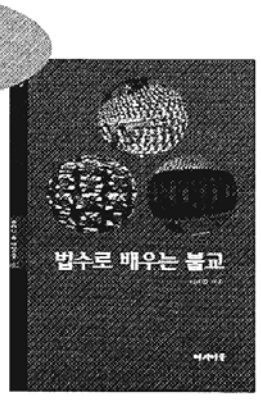
"팔만사천 법수에 담긴 깨침의 묘리"

경전에는 숫자가 붙은 불교 용어가 무수히 많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판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값 4,500원
여시아문 펴냄

법수로 배우는 불교



▶ 수록된 법수 목록

일념(一念), 일단일체단(一斷一切斷), 일불승(一佛乘), 일심(一心), 이공(二空), 이변(二邊)과 중도(中道), 이장(二障), 삼계(三界), 삼법인(三法印), 삼보(三寶), 삼성(三性), 삼업(三業), 삼처전심(三處傳心), 삼학(三學), 사덕(四德), 사성제(四聖諦), 오개(五蓋), 오온(五蘊), 오망상(五妄想), 오안(五眼), 육도윤회(六道輪廻), 육바라밀(六波羅蜜), 육신통(六神通), 칠각지(七覺支), 칠변(七辯),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 팔난(八難), 팔부중도(八不中道), 팔식(八識), 구상관(九想觀), 구품(九品), 구종식(九種食), 구횡사(九橫死), 십금강신(十金剛身), 십력(十力), 십인(十忍), 십이연기(十二緣起), 49재(齋), 53선지식(善知識), 32길상(吉相), 80종호(種好),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팔만 사천 법수(法數)

여시아문은 "붙은 바 한 적의 아곳날도 없이 전하겠다"는 경전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여래장 사상은 공성의 방편설"

대장경硏 6차 세미나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여래장(如來藏) 사상은 공(空) 사상의 방편설로서 자비의 표현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공성(空性)에 도달하게 하는 이타행으로서 대승불교의 궁극적 요의를 완성한다."

11일 동국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6차 세미나에서 문을식씨(동국대 인도철학 강사)는 '여래장 사상에서 공성(空性)의 이해'를 통해 공 사상의 역사적 발전형태의 하나인 여래장 사상을 고찰하고 "공 사상을 떠나서는 여래장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공성이 대승불교의 궁극적인 의미로 간주된다면 더 이상 새롭게 여래장 사상을 설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여래장 사상은 본성공성(本性空性)으로서 인법무아(人法無我)인 공 사상을 모든 중생에게 믿고 이해하도록 하는 공성의 방편설로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원효스님의 화쟁사상 대립-반목 해결 열쇠"

부조화의 현실을 완전한 조화의 현실로 바꾸는 일은 실천을 통해서만 도달 가능하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 원효스님. 원효스님의 이러한 삶과 화쟁(和諍)사상이 이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분단된 현실과 교계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지켜보는 불자들에게 원효사상은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원효사상은 통일 등 오늘날 전반적 사회문제에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어 원효를 연구하는 각 학회와 연구원의 원효사상에 대한 연구가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원효사상 학술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24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종교학회 '98정기학술발표회에서는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의 '원효학분과 발표회'가 처음으로 열려 원효사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학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원효학회(회장 김영태)와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타스님)이 2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원효성사의 교학과 통일이념'을 주제로 제3회 원효학연구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원효학회-원효학硏 '원효성사의 교학…' 학술발표

원효학회와 원효학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발표회는 원효스님의 참정신으로 대표되는 일심(一心)·화쟁(和諍)·무애(無碍)사상을 통해 통일방안에 대한 제언과 종교갈등 등의 분열현상, 반목과 대립 등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태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미리 배포된 자료 '원효의 〈열반경종요〉에 나타난 화회(和會)의 세계'에서 "화회의 세계란 '화쟁'과 '회통'의 세계를 일컫는 것으로 〈열반경종요〉에는 화쟁과 회통이 하나의 논리체계로 전개되고 있다"며 "서로 다르고, 모순되어 있는 여러 가르침을 화회하고 소통하여 하나로 모아 귀결시키는 원효스님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효스님 진영

이봉춘 교수(동국대)는 '원효의 무애원융(無碍圓融)과 그 행화'에서 "우리시대의 가장 절실한 문제로서 당면해 있는 민족통일의 문제에 있어 원효의 일심(一心)과 화쟁회통(和諍會通), 무애의 행화가 주는 사상적 안목과 실천을 따른다면 상호 몰이해와 적대감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대립의 오류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 드러나 있는 현상에 대한 의식의 일대전환 위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껴안는 보살적 실천만이 지금의 대립을 풀어나가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은정희 교수(서울교대)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를 통해 일심(一心)의 원리'에서 "원효가 대중교화라는 실천수행에 뛰어든 것은 절대세계의 부인이 아니라 중생과 부처의 구분을 뛰어넘는 절대세계의 자기확충, 자리(自利) 실현이였다"며 "절대세계의 확충은 오늘날 자시비타(自是非他)의 편견과 오해, 사회적·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분열 현상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일심의 원리"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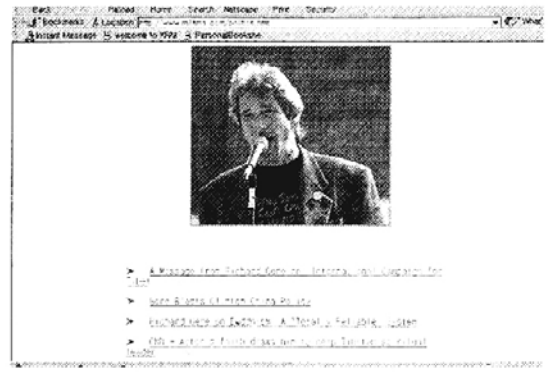
'원효의 〈법화종요〉로 본 일승(一乘)'에서 김영길 교수(동국대)는 "〈법화종요〉는 한마디로 모든 갈등과 대립의 해결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는 한 힘의 논리나 정복이 되풀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영스님(동국대)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서 이입설과 일승'에서 "원효의 '일승회통' 사상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교계 원효사상 관련 연구소

연구소	대표	전화
국제원효학회	송석구	(02)260-3835
원효학회	김영태	(0561)742-9922
원효학연구원	성타스님	(0561)746-9912
원효사상연구소	심재열	(02)3672-9097
원효연구원	운제스님	(02)457-9467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자 글로벌 스타

리차드기어 · 티나터너등 신행 '열람'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스타' 대접을 받는 글로벌 연예인들 중에는 달라이 라마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와 록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를 비롯해 비스티보이스, 존 바에즈 등 불자스타들이 상당수 있다. 인터넷의 검색사이트 야후를 잘 이용하면 이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작품 그리고 신행을 엿볼 수도 있다.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는 달라이 라마와의 인연, 적극적인 불교 신행생활, 티벳 독립과 인권을 위한 사회 활동, 환경운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 독특한 배우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그의 전기 및 인터뷰 기사들과 함께 그가 출연했던 영화 장면을 열람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와 티벳 불교에 대한 리차드 기어의 오랜 헌신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요즘 중국 정부가 디즈니사에 가하는 압력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디즈니사와 중국의 불편한 관계는 마틴 스코시스 감독이 '쿤둔'이라는 영화를 제작한데서 비롯됐다. '쿤둔'은 중국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망명한 티벳의 종교·정치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중국 관리들은 파렴치하고 뇌물이나 밝히며 약자들에게 무자비한 사람들로 나타난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당장 디즈니 영화사에 항의한 것은 물론 영화 제작을 강행할 경우 디즈니 회사는 앞으로 중국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위협했다. 티벳의 독립운동과 달라이 라마에 대한 변함없는 후원을 보내온 리차드 기어가 디즈니사를 지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독재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나쁜 선례가 되어 계속 따라해야 된다. 강력하게 나가야만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티나 터너

무대 위에서는 록큰롤의 여왕으로, 무대 뒷편에서는 폭력과 좌절로 살아간 티나 터너도 불교신도이다. 그녀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영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동기'에는 좌절과 고독 가운데서 만난 불교와의 인연이 잘 그려져 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그 당시 만났던 불교는 일본에서 들어온 정토진종이었다. 나는 일본 선사에게서 배운대로 묘법연화경을 읽으면서 힘을 되찾았고, 오랫 동안 추구해 오던 정신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노래와 가사, 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홈페이지, 그녀의 종교생활을 엿볼 수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다.

이외에도 △비스티보이스 △존바에즈 △리치 헤이븐스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글로벌 스타들이 불교에 귀의한 인연과 신행생활을 엿볼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리차드 기어 http://www.pair.com/marilynn/gere.htm
티나 터너 http://www.tina-turner.com/english/index.htm
http://www.dauis3.ece.utexas.edu/tinaturner.html
비스티 보이스 http://www.auburn.edu/~neilsoa4/beastiea.html
존 바에즈 http:/baez.woz.org/jbphotogal.htm

"용수의 이상정치론 배우자"

이현옥씨 '보행왕정론' 고찰 방법 제시

"용수(龍樹)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의 제반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이상적인 정치이상을 갖고 있었다."

지난 20일 동국대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 제30회 추계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대회에서 '용수의 정치이상과 그 실제'로 발표한 이현옥씨(동국대 불교학부 강사)는 용수의 〈보행왕정론(寶行王正論)〉 고찰을 통해 용수의 이상정치와 그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일반적으로 대승 경론(經論)은 보살의 육바라밀이나 십지행(十地行) 등의 수행론만을 한정적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지만 〈보행왕정론〉은 전륜성왕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왕이 궁극적으로 대승의 진정한 보살행을 닦아가는 모든 과정을 설하고 있다"며 "대승불교가 현실세계에서 지향하는 이상국가의 이념과 그 실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용수의 이상정치로 첫째, 불교의 정법이 국왕의 공덕과 지혜로써 구현되는 자비와 보시의 선정정치(善政政治) 둘째, 국왕의 왕위는 개인에 의해 소유·찬탈되는 것이 아니라 자질과 덕목을 가춘 자에 의해 후천적으로 터득되는 자리로 인식함으로써 왕권신수설을 부인 셋째, 국왕이 범법자를 다스림에 있어 어디까지나 자비를 바탕으로하여 갱생과 자비의 교육적 효과에 목적을 두고 극형을 피하고 관대하게 다스릴 것을 요구 넷째, 공공시설과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관리 보존하고 비상시에 대비할 것과, 특히 혜택의 범위가 인간외의 다른 생명체에까지 미치는 평등사상과 생명존중사상 주장 다섯째,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고 모든 종교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관대한 조치를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다종교사회에서 다른 종교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제시했다. 이씨는 "〈보행왕정론〉에 소개되어 있는 치안과 사법정책, 공공복지와 재해구호정책, 교육과 종교정책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은 오늘날의 국가정책론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용수가 주도했던 대승불교운동이 세간과 출세간을 포괄하는 실천적 신앙운동이었다는 점에 비중을 둘 경우 이상국가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는 〈보행왕정론〉의 가치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해설 보살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남만을 사랑한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라면 응당 중생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 중생을 애호(愛護)하되 제몸과 같이 해야 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화제의 신간

李道源 求道記

신국판/408면·값 7,500원

그냥 갈수 없는 길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북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함장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하여 자연과 인생,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진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 [redacted]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픈 이들에게 그 진솔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이 책은 불교와 처음 인연한 이야기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내듯 진솔하게 써내려간 이도원의 자전적 구도기로, 책에 담긴 글들을 읽다보면 그냥 갈 수 없는 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은이 이도원(李道源)은 1945년 경남 진주생으로 1975년 청담 스님의 명상록을 읽고 발심, 1980년 범어사에서 성운지효(聖雲智曉) 스님께 수계, 재가불자로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초대 이사장,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 지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통개량한복 '고운 우리 옷'의 대표로 경남 천성산 대적선원(大寂禪院)신도회장의 소임을 맡아 그 빛을 나눠가고 있다.

불광출판부 대표전화 : 420 - 3200 팩시밀리 : 420 - 3400

신비의 약용버섯 아가리쿠스버섯

⊙한국에서는 1996년말 농촌진흥청에서 다년간 연구하여 인공재배에 성공 농가에 보급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아가리쿠스에서 액기스화하여 미국, 일본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 및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분검사 결과 아주 우수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증강작용, 세포활성화작용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고 특히 암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
순환기계통 :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협심증등
소화기계통 : B형간염, 간경변, 만성위염, 변비등
뇌신경대사 : 당뇨병, 관절염등
호흡기계통 : 만성기관지염등
생식기계통 : 생리불순, 갱년기장애, 부인병, 유방염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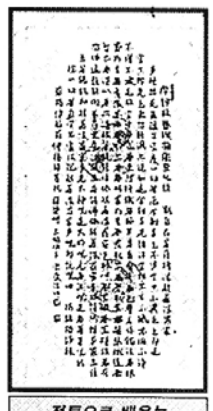
仙氣泉(골드)
· 아가리쿠스 추출액 100% (고형분 5%이상)
· 대용량 : 100ml × 30포
· 가격 : ₩660,000



아가리쿠스 건버섯
· 신토불이 한국산
· 용량 : 300g
· 가격 : ₩250,000

주식회사 아가리쿠스 강남구 역삼동 668-5번지 · 구입문의 · (代)02)564-6464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梵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대사 그림, 觀자그림 (수액파 차단) 특별보시!
특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42-0331,242-0255 (야)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한형조 무문관 방장

73

파초의 지팡이

* 파초화상이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다. "너희가 지팡이를 갖고 있다면 내가 지팡이를 주겠다. 만일 지팡이가 없다면 너희에게서 그것을 뺐겠다."

* 나 혜개가 말한다. "(그것을) 의지해 다리가 끊긴 물을 건넜고, (그것을) 벗삼아 달없는 마을을 찾아들었다네. (이것을) 만일 지팡이라 한다면, 화살보다 빠르게 지옥에 떨어질 것.

* 송하여 가로되, "제방(諸方)의 깊고 얕음, 이 모두가 내 손 안에 있다. 하늘을 괴고 땅을 떠받쳐, 이르는 곳마다 종풍을 휘날린다.

芭蕉柱杖:

芭蕉和尙, 示衆云, 爾有柱杖子, 我與爾柱杖子. 爾無柱杖子, 我奪爾柱杖子. 無門曰, 扶過斷橋水, 伴歸無月村. 若喚作柱杖, 入地獄如箭. 頌曰, 諸方深與淺, 都在掌握中. 撑天幷柱地, 隨處振宗風.

당(唐)의 수도 장안(長安)은 국제적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안사의 난 이후 제국의 영화가 기울어갔어도 변방으로부터의 유학의 행렬은 그치지 않았다.

그 속에 파초(芭蕉)라는 신라의 승려가 끼어 있었다. 〈오등회원〉 권 9에 그의 행적이 실려 있다. 본명은 혜청(慧淸)으로 위앙종의 법계이다. 위산은 스승 백장이 낸 시험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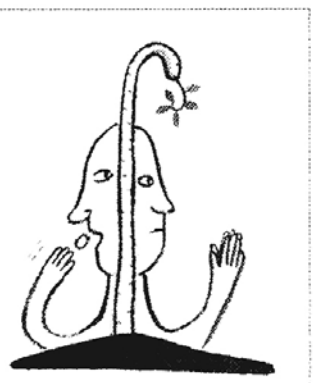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를 발로 차버림으로써 대위산의 주지가 되었고(제67강), 그 뒤를 이은 앙산은 꿈 속에 미륵과 대면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은 출격(出格)의 대장부였다(제40강). 그들이 연 선의 한 큰 줄기인 위앙종의 문하에 남탑(南塔)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파초는 스물 여덟의 어느날 앙산(仰山)에 거하고 있는 남탑을 찾아간다. 남탑이 당에 올라 이런 설법을 폈다. "대장부라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찌 사자후(獅子吼)를 토하지 않겠느냐." 이 소리에 그의 심신이 문득 헐득(歇得), 편안해졌다. 그 후 다섯해를 이곳에서 머물며 법을 익혔다. 선의 전기들이 대개 그렇듯이 그의 이력은 여기서 멈춘다. 대신에 오고간 법담과 화두가 나머지 공간을 채우고 있다. 그는 아마도 신라에 다시 돌아가지 않은 듯하다. 파초라는 이름을 얻은 것을 보건대 중국의 영주(郢州) 땅 파초산(芭蕉山)에서 머물며 법을 폈던 모양이다.

그런 그가 어느날 법상에 올라 이런 소리를 했다. "너희들이 지팡이가 있다면 그것을 주겠고, 없으면 도로 뺐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의 문헌에 나타나는 수많은 역설과 모순에 접했다. 한 두번도 아니고 화두마다 독자를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는데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을 사무치게 품는 것이 문제에 이르는 결정적 일보이다.

우리는 이른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현실'이란 인간의 편의와 욕망을 위해 필요한 물질로 구성된 세계이다. 인간의 의식적 활동과 문화적 성취는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장악할 것이냐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사의 울고 웃는 거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연유한다. 섹스와 돈, 권력과 명예야말로 인간사의 키노트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인간 삶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야스퍼스가 기축시대(axial age)라고 부른 인류의 위대한 현자들의 시대, 즉 소크라테스와 헤라클레이코스, 공자와 노자와 석가,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인간을 조망한다.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의 근원은 초월적인 지평에 있다. 성적 욕망이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문제는 남는다. 인간의 문제는 동물적 충동과 자기보존의 지평에 있지 않다.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자연과 더불어 일체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여전히 불만족과 불완전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선은 바로 그 '인간'의 본질 속으로 뛰어든다(直指人心 見性成佛). 그러자

"영원의 지팡이에 의지하라"

짐 내려놓은 도인에겐 모든게 풍류

면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물질적 욕망의 네트워크를 찢어발겨야 한다. 파초의 지팡이는 바로 그 그물의 벼리를 끊어내려는 방법적 장치이다. 너는 지금 자아라는 맹목의 지팡이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것을 내던지고 초월과 영원의 지팡이에 의지하라. "지팡이를 갖고 있느냐. 내가 진짜 지팡이를 너에게 주마." 이 제안에 반발하는 부류도 있다. "나는 이미 그같은 맹목과 무지를 벗어났다. 나는 나의 주인이다." 파초는 그런 사람들의 어설픈 자만심과 착각을 두드린다. "지팡이가 없다 하는냐. 그렇다면 너의 그 지팡이를 뺏어야겠다."

조주의 노파심을 기억한다. 그는 어느날 학인에게 다짜고짜 짐을 내려 놓으라고 다그쳤다. "아니, 빈손인데, 무슨 짐을 지고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조주 왈, "그럼, 계속 지고 다니게나."

자아의 고착이 다름 아닌 무명(無明)의 정체이다. 그 근본불각(根本不覺)의 짐을 내려놓은 한가한 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풍류요 만행이다. 그는 그 지팡이 아닌 지팡이로 다리도 없는 여울을 성큼 건너고, 달도 없는 마을의 어둠 속을 휘적이며 걸어간다. 갑자기 다리가 근질거리기 시작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모든 현상 비어 있음 보자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3



"선과 악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주의깊이 지켜본다면, 우리가 일생을 바쳐 연구해야 할 주제를 얻게될 것이다. 이 주제는 결코 우리를 권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방에 앉아서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면 된다."

아잔차 스님의 지적은 수행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좌선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에서 운전을 할 때에

수행의 장애 ④

도, 결혼을 할 때에도, 친구를 사귈 때에도, 사무실에서 일할 때에도 스님의 지적은 동일하게 큰 힘을 발휘한다.

사실 법은 우리의 눈길 닿는 어디에나 있다. 집을 짓는 일, 길을 걸어가는 일, 선방에 앉아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법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면, 이 세상에서 법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바르게 보지 않으면 안된다. 행복과 불행, 고통과 즐거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그 본질을 이해하면 부처와 법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명료하게 볼 수 있으면 그때 순간 순간의 모든 경험은 다 법인 것이다.

19세기 미국의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돌멩이는 얼마나 행복할까(How Happy Is the Little Stone)'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길 위에 홀로 뒹구는

희로애락 어떤것도
자신의 것 아닌 줄 알면
해탈로 가는 지름길

하찮은 돌멩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성공을 걱정하지도 않으며
위기를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의 코트는 자연의 갈색
우주가 지나가며 걸쳐준 것,
태양처럼 자유로이
결합하고 또는 홀로 빛나며,
덧없이 꾸밈없이
어떤 우연에서도 섭리를 지킨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개 즐거운 것이면 무엇이나 "참 좋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져라, 저겨워, 필요 없어" 하면서 맹목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디킨슨의 돌멩이처럼 어떤 일을 겪든지 그 경험의 본질에 대해 아주 소박한 자세로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우리는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르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은 너무나 소박하고 순수하다. 즐거운 일이 생기더라도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을 자신인 듯이, 혹은 자기가 그 소유주인 듯이 여기지 않게 되면 마음의 균형을 얻게 된다. 이러한 균형이 바로 팔정도이며 수행자를 해탈로 이끌어주는 부처님의 정법인 것이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감각을 갖는 일이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상상만 해보거나 이곳 저곳으로 방황할 일이 아니라, 지도를 들여다 보든가 아니면 이전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아 가는 길에 대한 감을 익혀야 한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가르친 해탈에의 길은 감각에의 탐닉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행도 아닌 중도였다. 수행자의 마음은 균형을 잃거나 이러한 양극단에 빠지는 일이 없이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든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그대로 하여금 되잡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혐오함이 없이 사물을 대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이 균형을 이해하게 되면 팔정도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팔정도를 더욱 더 수행해가다 보면 마침내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매달려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도 시달림당하거나 상처입지 않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된다. 그런 한 길이 바로 우리를 해탈로 인도하는 길인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82

불교와 수학

77

문화와 문명

김 용 운

문화는 여과 거쳐서 자국화
일즉다 다즉일 원리와 유사
문명, 타문화권에 그대로 전달

최근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S. 헌팅튼의 '문명충돌론',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 문명·문화라는 말이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문명과 문화에 관한 정의가 애매하여 혼동될 때가 많다. 불교 역시 불교문명과 불교문화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태인은 2천년 전에 고국에서 추방되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폴란드인은 러시아, 독일, 헝가리 등 3국으로 분할되어 있을 때도 단일 민족이었다. 우리는 일제식민지하에서 모진 강압에 의해 일본인 문화를 강요당했고, 그후 남북으로 분할되어 있으면서도 단일민족임을 의식해 왔다.

이와 같이 민족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언어·종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중 어떤 하나만 두고 그것이 곧 단위집단을 민족으로서 존속시키는 결정적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각종 문화 요소를 파생시키는 기층적인 문화의지(원형)가 존재한다.

우리가 민족임을 처음으로 자각했을 때(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단군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개의 부족적 언어가 융합하여 원한국어가 되었고, 즐거움과 슬픔 등 온갖 원초적 감정을 예술화시키고 또한 순박한 윤리적 바람이 한국 원시종교를 형성했다. 언어, 종교, 예술, 과학 … 등은 본야마다 다른 목적과 수단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민족사회의 정신적 욕구에 대응하면서 서로 깊은 관련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단위 문화권을 구성한다. 타문화와의 교류없이 자력으로만 가꾸어 온 순수한 문화란 있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타문화와 교류하면서 민족 고유의 정신(原型) 위에 종교, 과학, 예술 등을 개화시키는 것이다.

가령 이것을 교향곡에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 교향곡에는 바이올린·첼로·클라리넷·트럼펫 등의 수많은 악기가 동원된다. 이들 악기마다 나오는 소리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의 악보를 가지고 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해 낸다. 이 공통의 악보에 해당하는 것이 원형이며, 각 악기의 음악은 각종 문화분야에 해당된다.

민족은 위대한 생명체이며 그것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 생명력이 있는 원형이 갖추어졌다.

민족의 구성원은 태어나고 죽으면서 생명체로서의 민족을 유지·보존하며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문화는 역사성을 지니며 민족 고유의 내용이 타문화권에 그대로 옮겨 갈 수 없다. 또한 외래문화가 유입될 때는 반드시 원형에 여과되어 자국화 된다. 일제시대 한국불교가 그처럼 일본화를 강요당했으면서도 한국 특유의 불교 정신이 건재하고 있다. 또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된다 해서 한국문화가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오해이다.

한편 타문화권에 자동차, 미국식 햄버거 처럼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문명이다. 한자는 중국에서는 문화였으나, 한국에는 문명으로써 전달되어 한국(또는 원형)에 여과되어 독특하게 읽혀지면서 한국문화로서 정착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일은 한자 문명권 속에서 특유의 한자문화를 갖는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 문명권이 있고, 특히 한국 특유의 불교가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 불교가 지닌 개성적 요소는 승화되어 세계적 종교의 성격을 지닌다. 보편화와 개별화가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동양문명권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한자, 불교 …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최근 어느 외국 학자는 젓가락 문화권을 주장하고 나왔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에서는 모든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이용하지만 동시에 숟가락을 이용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일본에서는 수저를 쓰지 않으며 중국에서는 수저를 한국처럼 이용하지 않는다. 동양 문명권 속에서도 나라마다 세가지의 젓가락 문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곳에 관련되지 않으며 의복, 음식의 종류, 가옥구조, 종교관 등에까지도 관련되어 있다. 스스로 고립된 문화요소는 하나도 없음을 실감시키는 것이다. 또 이들 문화요소는 해당 문화권을 상징하며, 여기에도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원리가 관통하고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양심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자

자기 버림의 위대한 승리자로 살 것을
서원한 출가 수행자여!
무슨 염치로 무슨 낯으로 말하여야 하나
눈 뜨고는 참회 하여야 할 말을 잃어버린
이 자리 피를 토하고 뼈를 태우는
아픔으로 용서를 빈다.

자기 정화와 인간 자각을 위해 하심과
인욕행으로 정진하여야 할 수행자여!
종단의 도덕성이 무소유의 삶이 훔쳐지고
자기 기만과 독선의 노예되어 사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양심이며 자존심일수는 없다

인연있는 출가수행자여!
해와 달이 허공에 눈이라면
인간의 양심은 인간 존재의 뿌리요
인간의 존엄한 양심에서 정의의 줄기가 나오고
신용의 꽃이 피고 성실의 열매가 열리며
도덕의 향기가 살아 숨 쉰다
양심이 행방불명되면 도둑 살인 배신자
파렴치한 자로 전락하게 된다
깨지는 아픔이 있어도 출가 수행자여
양심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여야 산다.

선 밥덩이에는 파리만 끓게 되고
거지는 왕궁에서도
식은 밥덩이를 구하여서일까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젖을 베풀고 뱀은 독을 뱉는다
얼빠진 쓰레기들의 속보이는 짓에
숨 막히고 절망적인 종단의 현실

때를 씻고 먼지를 닦는
헌길레 빗자루 보기 부끄러워
나 자신에게 버림받고 싶다.

정직과 겸손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할 수행자여!
어느 누구도 남을 속이거나 경멸하며
아집과 독선의 노예가 되고
돈과 권모며 술수로서 지도자 짓은
자기 얼굴에 침뱉는 짓이며
불신과 경멸 받을 천한 짓이요
인과적으로도 씻지 못할 죄업이다.

정의와 정도를 위해 오늘을 살며
내일을 역사해야 할 전법 수행자여!
진리와 정의는 위선과 위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물안의 물고기가
저 죽을줄 모르고 그물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다.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없고
그물로는 바람을 붙잡아 둘 수 없다

정법 수호를 위하는 일이라면 한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은 서원으로 정진하는 수행자여!
거짓은 남을 속이는게 아니다
자신을 먼저 속이고
죄와 악의 씨앗을 낳는다
모래로 밥을 지어 씹을 수 없고
똥으로 향을 만들어 쓸 수 없다
제 귀를 틀어막고 소리는 들을 수 없고
타버린 씨앗에서 싹은 찾을 수 없다
똥은 비단으로 싸도 그 냄새는 막을 수 없다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잃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
정직과 겸손은 인간승리의 등불이 된다.

눈과 손이되어 정진하여야 할 출가수행자여!
내몸의 썩은 부위는 아픔의 고통이 있어도
수술하여야 한다.
치료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불조의 혜명을 계승하는데
연꽃되고 등불되어야 할 출가수행자여!
빛이 되고 거울 되어야 할 수행자여!
여기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중되어야 할
승단의 생명은 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공경하며 신뢰와 화합하는 일이다.
정직과 겸손으로 거듭나
성찰의 눈을 떠 화해와 화합의 장을 열자

나 자신부터 거듭나야 한다
양심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서원과 화합으로 정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시작하는 마음 씨 뿌리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만이 우리의 길이다.

출가수행자여! 출가 시절로 돌아가자
사문의 고향은 푸른 산이다
침묵의 산 기도의 산
제몸 썩혀 뿌리 찾는 나뭇잎을 보라
출가사문이여
산으로 돌아가 산되어 살자
님의 눈빛 미소
우리들 가슴에 등불로 타게하자

생명의 나라 진리의 고향 백련 참회굴에서 **시인 대 우 합장**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마음 흔들리면 소리도 흔들려요"



◇진정한 우리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섬세한 청음능력으로 음을 조율해야 한다. 대금의 구멍을 다듬으며 조음작업을 하고 있는 장용해씨.

산문밖의 禪 — 대금장인 장용해씨

찬 바람은 밤시간을 재촉하는데(寒風催夜補)/ 어디선가 구슬픈 젓대소리(何處笛聲哀)/ 나그네 시름을 일깨우고는(暗引愁客至)/ 다시 고향 생각을 아득히 이끌어오네(去來鄕思來)

〈부휴당(浮休堂)대사집〉에 나오는 '젓대 소리 들으며(聞笛)'란 선시. 선사들의 고요한 마음도 고향길로 내달리게 하는 젓대 소리. 한국인이면 누구나 한 번씩 듣고 아스라한 추억에 잠겨보았을 법한 청아하고 애절한 우리의 소리. 젓대를 부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어느덧 미묘한 선율에 하나가 된다. 그렇다면 '젓대'를 만든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

국악의 대표적인 관악기인 젓대(大等)를 비롯, 중금 소금 단소 양피리 세피리 당피리 등 대나무로 만든 온갖 '젓대'를 30여년동안 만들어 온 장인(匠人) 장용해(53)씨. 전통적인 방법으로 옛것을 잇는 장인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대전시 대화동 아담한 작업실에서 변함없이 옛 소리를 되살리고 있다.

전남 담양이 고향인 장씨는 어려서부터 우리 소리를 좋아했고, 남달리 손재주도 뛰어나 전국을 유랑하며 피리제작 기법을 터득하는 등 국악기 제작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20세까지 생계를 위해 담양에서 대나무 문발 등 죽공예품을 만들어 왔으나, 국악이 너무 좋아 한 평생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제작한 악기들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30세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10여년간 악기를 만들며 거리의 악사 노릇을 했다. 소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전국을 유랑하며 제작기법과 연주능력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다.

이런 수련과정이 있었기의 그의 악기에는 생명력이 배어있다. 민중의 애환을 담은 혼의 소리가 배어 나온다. 특유의 정교함과 섬세함으로 인해 그의 '장골(張笛)'이란 아호가 널리 알려지고, 그가 만든 악기들이 '남도(南道)피리'란 상호까지 붙어 팔리고 있는 것도 당시의 끊임없는 정진의 결과다.

"9년 장구, 10년 통소"라는 말이 있듯이 피리 만드는 작업은 10년이상 작업해야 어느 정도 제작기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그는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 작품에 임할 때 한 순간 '바로 이거다' 하는 때가 온다"고 말한다. 마치 화두일념으로 장좌불와 10년만에 공안을 타파한 선사의 오도 경지처럼.

이런 경지에 이르면 마음이 정갈하고 잡생각을 떨쳐 버려야만 좋은 제품이 탄생된다. 소음이 들리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는 일손을 놓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작업에 임한다.

전국유랑 피리제작기법 독파
소리가 좋아 30여년 젓대외길
수시로 산사참배 마음공부
"무욕의 생활 청정음 만든다"

전남 담양, 경남 하동, 지리산 등지에서 최상품 쌍골대(雙骨竹)를 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제작과정은 길고도 지루해 인내와 집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쌍골대를 6개월간 그늘에서 자연건조, 대나무를 삶아 진액 빼기, 수공작업, 1주일에 한 번씩 조율(調律)하며 건조하기, 장식 및 실감기(대마루가 안터지도록) 등 공정은 잠시라도 방심하면 모든 것이 헛고생이 된다. 특히 조율작업은 섬세한 청음(聽音)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거의 독학으로 갈고 닦은 그의 연주실력이 상당한 경지에 달한 것도 이런 이유. 악기 제작은 물론 소리강습까지 하게 된 것은 보다 청아한 소리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소리를 누구보다 즐기기 때문. 서울 외국어고 선생님들과 대전 동방여중 국악반을 지도하는 등 배출한 제자만도 2백여명에 달한다.

그의 악기의 소리가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그가 이끌고 있는 1백50명의 용해산악회 회원은 물론 신심깊은 불자인 부인 최희임(51) 보살과 함께 전국의 산사를 찾아 수시로 마음공부를 한다. 자연속에서 산사를 참배하고 고즈넉히 대금을 불다치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 자연과 하나된 기법으로 욕심없이 살기에 그의 악기는 더욱 청정한 소리를 낸다.

"마음이 흔들리면 소리도 흔들려요. 마음을 제대로 비울 때 대금에서 오묘(微妙妙有)한 소리가 나와요. 산사를 찾으면 찾을 수록 텅빈 바람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산사를 다녀온 뒤 어느때보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대나무 육환장(六環杖)이나, 죽염주(竹念珠), 죽비, 관욕식에 쓰이는 물잔 등 불교용품을 만든다. 특히 육환장을 만들 때는 어느 때보다 마음을 모은다. '여섯 개의 고리가 소리를 내어 미몰을 깨친다'는 육환장은 구세구난과 뭇생명에 대한 자비와 법을 상징하는 지팡이. 도력이 높은 고승들이 주로 사용하는 법력의 상징이기에 여간 정성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발심한 때만 제작한다.

대나무의 고장에서 태어나 9세부터 우리 소리와 대나무에 빠져 한 길을 달려 온 그는 휴대용 해금, 대나무 타악기 등 국악기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문의: 011-433-0343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대금은 최상품 쌍골대로만 만든다. 장씨가 쌍골대를 다듬고 있다.



◇신사에서 부는 청아한 대금소리는 자연과 장인의 마음을 하나되게 한다. 장씨는 '마음 비우는' 공부를 위해 수시로 산사를 찾는다.

취재수첩 — 주말마다 인사동에 피리좌판

토요일 오후1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 대금 장인 장용해씨가 좌판위에 직접 만든 대금 중금 소금 단소 등을 진열해 놓고 손님들과 흥정을 하고 있다. 손님이 안 모이면 대금을 불며 눈길을 모은다.

그러나 다가와서 문의하는 사람, 명함을 가져가는 사람은 많아도 직접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문가용에서부터 일반용에 이르기까지 상품은 다양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

하지만 장씨는 악기를 파는 것도 좋지만 국악을 좋아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때때로 대금을 산 이들에게 무료로 3개월씩 소리강습까지 해준다.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 다방에서 지도한 제자들도 적지 않다. 3년 정도 걸리는 연주기법을 석달만에 숙달하도록 돕는단다.

대전에 사는 그가 매주 토·일요일 인사동에 좌판을 벌이게 된 원인은 IMF사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국악 동호인들의 악기 수요가 크게 위축된 때문. 2백여 곳에 달하던 거래처에서 조차 발길이 끊길 정도. 그나마 문화의 거리인 인사동에는 아직도 그의 악기를 찾는 동호인들이 있다는 것이 그의 작은 행복이다.



성인은 생사 자유자재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21 — 부활

종교가 생긴 이유도 죽음이라는 생사(生死)의 문제때문이다. 깊은 수행을 한 성인들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생사를 자재하게 넘나들었다.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 달마대사는 대사를 시기하는 이들이 음식에 탄 독약을 먹고 열반에 든다. 분도들이 웅이산 정림사에 매장했는데 3년뒤 위나라 대신 송운이 서역에 사신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총령에서 달마를 만난다. 달마는 송운에게 신 한짝을 주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황제가 달마의 무덤을 열어보게 하니 관이 빈채로 신 한짝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왼쪽 그림은 신한짝을 어깨에 멘 맨발의 달마대사를 송운이 총령에서 만나는 장면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힌지 3일만에 부활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앞에 나타난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의 부활에 놀라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발에 경배하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옆에 빈 관을 옮기는 모습을 그려넣어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학림 〈예천 법화암 주지〉



◇해인사 벽화 '달마총령도중도', 조선시대.



◇지오토作 '예수의 소생', 1304~9년, 스코로베니 예배당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19)
(佛言)觀天地 念非常 觀世界 念非常
(불언)관천지 염비상 관세계 염비상
觀靈覺 卽菩提 如是知識 得道疾矣
관영각 즉보리 여시지식 득도질의

'천지만물을 보되 영원치 않다 생각하고 세상만사를 보되 영원치 않다 생각하며 소소영영한 이 당처가 곧 보리임을 관하라. 이와 같이 늘 안다면 도에 이름이 빠를 것이다.'

(20)
(佛言)當念身中四大 各自有名
(불언)당념신중사대 각자유명
都無我者 我旣都無 其如汝耳
도무아자 아기도무 기여환이

'내 몸을 이룬 사대엔 각기 이름이 있지만 어디를 보아도 도무지 '나'라고 할게 없음을 마땅히 알라.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 허깨비 같을 뿐이로다.'

(21)
(佛言)人隨情欲 求於聲名 聲名熾著
소아지지즉 유할설지환

'사람들이 재물과 색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마치 칼날에 묻은 꿀은 한번 맛보기에도 넉넉치 않거늘 어린아이가 이를 핥다가 혀를 베이게 되는 것과 같다.'

(23)
(佛言)人繫於妻子舍宅 甚於牢獄
(불언)인계어처자사택 심어뇌옥
牢獄有散釋之期 妻子無遠離之念
뇌옥유산석지기 처자무원리지념
情愛於色 豈懈偈馳
정애어색 기탄구치
雖有虎口之患 心存甘伏 沒泥自溺 故
수유호구지환 심존감복 몰니자익 고
曰凡夫
왈범부
透得此門 出塵羅漢
투득차문 출진나한

'사람들이 처자식과 가정에 얽매이는게 감옥에 갇힌것 보다 심하다.
감옥은 그래도 석방될 때가 있건만 처자의 경우는 멀리 떠날 염두도 내지 않는다.
색에 대한 정과 사람을 어찌 뿌리치고 멀리 도망쳐 나오랴. 비록 호랑이 입에 든듯한 화가 있더라도 마음으로 즐겨 엎드리니 스스로 진흙탕에 빠진 것이라 그래서 범부라 한다.
이 문을 뚫고 티끌세계를 뛰쳐나와야 아라한인 것이다.'

(24)
(佛言)愛欲莫甚於色 色之爲欲 其大
(불언)애욕막심어색 색지위욕 기대
無外
무외
賴有一矣 若使二同 普天之人 無能爲
뢰유일의 약사이동 보천지인 무능위
道者矣
도자의

'색정보다 심한 애욕은 없다.
색욕은 그 크기가 가이 없다.
다행히 한가지이기 망정이지 만약 그같은게 둘만 되었더라도 하늘아래 도닦을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세상사 인과법으로 풀면

혜명스님 〈혜명정사 원장〉



· 1927년 경북 문경 生
약 · 47년 봉암사에서 청담스님 은사로 출가
· 66년 도선사 실달학원 대교과 졸업
· 55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께 구족계 수계
· 74년 서울 도선사 주지, 혜명양로원 이사, 청담중고등학교 이사
· 74년 불교사회문제연구소 이사장
· 93년~現 서울 도선사포교당 혜명정사에 주석

"향이 다 타고나면 재가 되는것 처럼 오욕칠정따라 명성 구해도 허깨비"

(불언)인수정욕 구어성명 성명현저
身已故矣
신이고의
貪世常名 而不學道 枉功勞形
탐세상명 이불학도 왕공노형
譬如燒香 雖人聞香 香之燼矣 危身亦
비여소향 수인문향 향지진의 위신지
火 而在其後
화 이재기후

사람들이 오욕칠정을 따라 명성을 구하지만 그렇게해서 명성이 두드러져도 몸은 이미 없도다.
세간의 명성만 탐해 도를 배우지 않으면 공력을 굽혀 몸만 피로케하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비록 사람들이 향을 태워 향기를 맡지만 향이 다 타고나면 재가 되는것 같이 몸을 위태롭게 하는 불이 그 향기의 뒤끝인 것이다.

(22)
(佛言)財色於人 人之不捨
(불언)재색어인 인지불사
譬如刀刃有蜜 不足一餐知羨
비여도인유밀 부족일찬지미
小兒舐之卽 有割舌知患

'해방직후 절대적 빈곤이었다면 현재는 상대적 고통을 겪고있죠 IMF도 업이니 풀고 녹이세요"

요즘 경제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거리로 방황하는 실직자들, 졸업을 앞두고 마땅히 일할 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사회초년생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생산현장 등 그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해방직후 봉암사로 출가했던 시절을 부쩍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어찌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풍족했다가 그 편안함을 빼앗기다 보니 힘들게 느껴지는 강도가 더 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직후의 어려움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현재는 상대적인 고통을 겪고있는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해방직후 희양산 봉암사에는 은사이신 청담스님과 성철 자운 월산 상월 향곡스님을 비롯 많은 큰스님들과 수좌들이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큰스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대중이 아래 마을로 가셔서 탁발을 해다가 공양을 하셨지요. 또 공양거리가 충족치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수행차 하루 2끼로 오후불식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 정신을 지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당장 처한 이 고통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의 해법을 인과법으로 풀려는 노력이지요. 왜 살기가 어렵게 됐는가를 경제지수가 어떻고 외환보유고가 어떻고 등으로 풀 것이 아니라 어떤 업을 지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온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힘들다"를 되뇌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업을 풀고 녹일까를 더 많이 새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2보 전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此有故 彼有 此起故 彼起)"라는 진리처럼 불교는 연기법이고 인연법입니다.

얼음은 영하의 날씨와 물이 어울리는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탈 수 있는 땔감과 발화점(發火點) 이상의 고온이 만나서 불길을 이루는 것 또한 인연법입니다.

자연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이치가 다 인연법이며 과학의 원리가 그대로 또한 인과법입니다. 동물세계의 암수가 만나는 것도 인연일테지만, 옆에 사는 친불친(親不親)의 다른 동물과의 관계도 또한 다 인연법 이지요. 한 나무의 높은 가지에는 새가 둥지를 틀고, 또 기둥구멍에는 다람쥐나 집게 벌레 등이 살기도 하고, 매미는 나무껍질에 의지해 노래도 하고 잠도 자는가 하면, 뿌리 가까이에는 뱀이나 벌레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기도 하지요. 또한 원숭이나 다람쥐들도 그 나무를 의지해서 노닐고 먹을 것을 구하고 여러 가지로 함께 얽혀서 좋든 나쁘든 인연법으로 산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세계를 두고 볼 때 우리 한국사람은 백 수십의 나라, 수 백의 민족, 60억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 배달겨레라고 하는 한겨레로 뗄 수 없는 깊은 인연 관계에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위에 한 마을 이웃 간에 만나서 날마다 이 일 저 일로 상부상조하는 사이, 또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운명의 배를 탄 동료들 사이의 인연이란 따지고 보면 얼마나 귀한 인연이겠습니까. 더구나 한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한 집안에서 한 솥밥을 먹고 매일 조석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형제간의 인연은 얼마나 지중할 것이며, 나아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와의 인연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깊고 막중한 인연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속을 떠난 출가 비구는 세속의 여러 가지 인연을 다 쉬어야 하는 만큼, 육신을 위주로 하는 혈연 같은 인연은 당연히 멀리 등지고 오로지 수행과 중생제도의 포교라고 하는 출세간의 인연법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법은 인연따라 생기고 모든 법은 인연따라 멸합니다. 만일 연기의 원리를 보면 모든 법을 볼 수 있고 모든 법을 볼 수 있으면 연기법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내가 출가 사문이 된데는 봉암사와의 인연이 컸습니다 봉암사는 나의 출가 본사이자 내가 봉암사 아랫마을에 살았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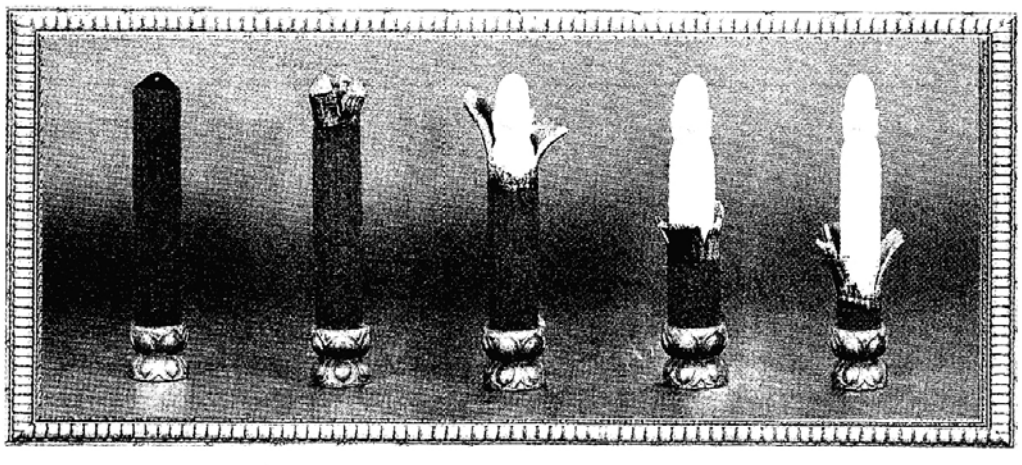
속가 모친이 내 나이 어릴때 돌아가셔서 그 충격이 컸습니다. 학교 가고 올때마다 모친의 산소에 절을 하면서 봉암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때 꼭 알고 싶었던 것이 '어머니는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마을 어른이 "절은 스님네들이 염불하고 수도하는 곳이다. 죽은 다음의 세상을 풀어주고 인도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해주어 절에 자주 놀러갔습니다.

내 나이 스물이 되자 봉암사에 수행을 많이 하신 도인스님들이 오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인들이 많이 산다는 마을에 퍼진 소문을 믿고 도대체 도인이 어떤 이들인가 보고싶은 마음에 봉암사에 가 찬찬히 살폈습니다. 대중들은 모두 푸르둥둥한 누더기옷에다 머리에는 관같은 것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정말 한눈에 반했어요. 나도 절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괜히 봉암사 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먼발치서 봤던 것이지요. 그런데 때마침 봉암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도우신 것이지요. 독신으로 절에서 살

■ 의장등록 : 98-19350
■ 상표등록 : 98-28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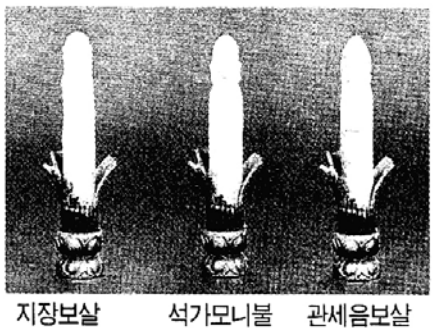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향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전부 타고 난 다음에는 향 연기도 소멸되고 타고난 재의 모습은 예술형상으로 남으며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고 부처님의 진리를 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제일 돛 법회와 각종 기념행사,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전국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 · 경기/대전 · 충청남,북/ 광주 · 전라남,북/
부산 · 경남/대구 · 경북/강릉 · 강원/제주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Tel : 051) 466-3731~2 Fax : 051) 466-3733
卍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卍

큰스님 수행한담

어떤 어려움도 해결돼요"

"탁발해서 대중공양 은사스님 장삼 해드렸어요 봉암사 대중되려고 매일 나무하고 능엄주 외웠죠"



◇74년 도선사주지로 도선사를 참배한 태국 종정을 맞이 하고 있는 혜명스님(사진 왼쪽).

면서 중이 돼도 좋고 안돼도 상관없이 일도 하고 잔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그즉시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출가하겠다는 맘보다도 도인스님들 곁에서 생활하기만 해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절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 청담스님은 묵언을 하고 계셨고, 대중을 거느리는 것은 모두 성철스님의 몫이었습니다.

성철스님께 "처음 불법을 공부하는데 좋은 책하나 주십시오"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각해일륜〉이라는 용성스님의 저서를 내주셨습니다. 불교의 대의를 이리저리 풀어 설명한 책이지오. 당시 불교계는 경학 제일로 한영스님, 법력제일로 수월스님, 역경·포교제일로 용성스님 같은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저녁이면 이 책을 읽었고 낮에는 천수경 자경문을 읽었고 나무하러 산에 가서는 능엄주를 외웠습니다. 그후 청담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고 행자노릇을 했습니다. 봉암사 대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엄주〉를 외워야 하고 하루 나무 한짐을 꼭 해야 하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굶는다는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의 정신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긴 능엄주를 죽어라고 외웠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법입니다. 곧 심성(心性)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은 명상(名相)이 아니고 문자를 뛰어넘는 것이며, 귀신도 아니고 불건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요 하늘도 아니로되 지극히 크고 지극히 적으며 지극히 비었고 지극히 신령하며 지극히 굳세고 지극히 부드러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에 눈을 뜬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가장 혹독하게 교육받은 과정이 탁발이었습니다. 지금은 탁발이 사회에 잘못 응용돼 종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들었는데 탁발은 내게 큰 공부였습니다. 출가 수행인의 본분은 스승을 존중 공경해야 하고 고행을 통해 공덕을 쌓고 탐 진 치 3독의 항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런 출가정신을 단련하고 아상(我相)을 꺾는 한 방법이 탁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사스님을 위해 장삼을 해드리고 대중스님네가 수행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양식을 사중에 공양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10계를 받고 얼마 안 되어서 봉암사 원주스님의 지시로 도반스님과 충청도로 탁발을 가게 됐습니다. 희양산 준령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멀건 죽 한 그릇 먹고 한참 나이에 솥 잎을 따 먹으면서 한 마음에 도착했습니다. 도반스님은 반야심경을 외고 나는 집안에 들어가서 동냥을 받는데 처음이어서 어찌나 부끄러웠는지 사람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염불도 잘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노보살이 큰 바가지를 들고 나오길래 한 바가지인가 했는데 바닥에 조금 깔린 쌀을 가지고 나와서 조금 붓고는 얼굴 한번 쳐다보고 또한번 조금 붓고 쳐다보기를 10분 정도는 걸렸을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시주를 받았다고 해서 곧 돌아서서 울것이 아니라 독경하던 반야심경을 다 마쳐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꼭 법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나절을 탁발했지만 시주된 쌀이 얼마되지 않아서 그로부터는 둘이 나누어 따로따로 하기로 하고, 음성을 거쳐 괴산에 이르기까지 1주일쯤 탁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시주물로 우리 스님께 장삼을 해드리고 설탕 찹쌀을 사서 떡을 해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내 평생의 살림살이를 장만했던 곳은 대승사 산내 암자인 묘적암이었습니다. 나옹화상의 삭발도량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산 정상에 있고 도량이 작아 내 혼자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끼니는 밥 대신 생식하는 벽곡을 하기로 했습니다. 솔잎을 따다 그늘에 말린 다음 가루를 만들어 조청이 반죽을 하여 먹기 좋게 환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마음이 흩어질세라 장삼을 벗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오로지 화두를 일념으로 붙들어 마음과 화두가 하나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움직이지 않아 선정의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기가 평생 중노릇하는데 밑천이 되고 양식이 되었습니다.

불교와 처음 인연맺은 초참 불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는 계를 지키라고 답해줍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계를 지켜야 합니다. 계율은 그릇된 삶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실천지침입니다. 그것이 있고 없음은 마치 망망대해의 일엽편주에 나침반이 있고 없음과 같습니다. 혹자는 계율이 없어도 바르게만 살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계가 없으면 바른 생활의 지속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르게 행동하다가도 마음이 헝클어지고 방일해지면 곧 잘못되기 쉬운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계는 악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선을 길러주는 기름진 땅이 되며, 특히 불교에 있어서의 계는 생사의 고해를 건너 깨달음과 해탈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자항(慈航)이 됩니다. 그래서 계는 악의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암흑의 구렁텅이로부터 광명의 세계로 전진하게 하는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면, 계는 곧 그 그릇을 깨끗이 하고 빛나게 장엄하는 일에 비유됩니다. 만일 그릇을 더럽히거나 잘못 다루어 깨뜨리면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계를 깨뜨리면 몸도 마음도 따라서 상처를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악담을 자주하면, 성격까지 파괴되고 얼굴의 인상도, 몸가짐도 따라서 거칠어지게 됩니다. 또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마음도 몸도 간사하게 거짓으로 물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거짓말 과장된 말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 등 망어를 하는 것이지요. 망어는 진실의 종자를 끊는 행위이므로 불교본연의 자세를 본질적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교단에서는 견성하지 못했으면서 견성했다고 하고 보살이 아니면서 보살이라 함도 또한 바라이죄를 범한 것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마음을 깨닫고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하여 자유자재하고 불생불멸하는 본래불의 청정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일체의 연기법 자연계 현상계의 인과법을 남김없이 사무쳐 깨달았기 때문에 전지전능의 실현자가 됩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래면목 불조(佛祖)의 혜명(慧明)'이란 법명 '혜명'을 주신 은사 청담스님께 감사드리고 법명을 지니고 부끄럽없이 수행하려고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발원했던 것 가운데 한가지는 70세가 될 때까지 매년 섣달 그믐날 1천배 정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작년 70세까지 실천했습니다. 그후로는 몸의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발원이 끝나서인지 5백배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 발심과 원력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잘 알아 늘 원력을 가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리=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연기의 원리보면 모든 법이 보입니다"
"계율은 악을 막고 善 길러주는 나침반"

나의 수행일기



이 영 현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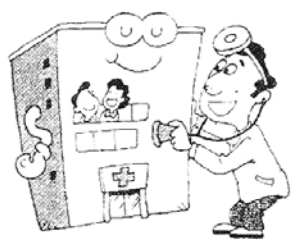
내가 근무하는 동국대 경주병원이 위치한 이곳 경주는 신라불교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이다. 곳곳의 불교유적과 부처님처럼 인자한 미소와 소박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아마도 불교에서 말하는 억겁인연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병원 불교회의 대표직을 맡아 외술전달과 불교활동까지 함께 해내는 중책을 맡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곳 동국대 경주병원은 불교병원의 기치를 걸고 전직원이 불자로서 여법한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처음 경주라는 이 지방도시에 그것도 외곽지역에 병원을 짓는다고 하니 주위의 많은 분들이 너무 외진 곳이라 손님들이 오겠느냐며 걱정을 했었다. 그때 초대 병원장이자 학장이시던 박수성선생님은 "절이 심산에 있어도 대은 가고 또다시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를 맞는다. 자리에 앉아 마음을 정돈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단순한 의료인으로서가 아닌 한사람의 인간으로 다가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는지를 스스로 물으며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내겐 큰 공부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한마디 따뜻한 눈길, 함께 기뻐하고 걱정하는 것까지도 나누어 가지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다.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진정한 마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 내가 배운 의술을 병들고 힘없는 이들과 나누는 일로 불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서원을 세웠다.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처럼, 퍼내면 퍼낼수록 맑게 고이는 샘물과 같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환자 대할땐 수행하는 마음으로
"나눌수록 넉넉해진다" 늘 되새겨

덕 고승이 계시면 사람들이 온다"는 한말씀으로 그러한 염려를 일시에 불식시켰다. 그 말씀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 의사로서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이끌어 주고 있다.



병원이 개원된 지 8년 가까이 흐른 지금, 병원 앞으로는 경주시내 중심부와 바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뚫렸다. 처음 운영했던 연 건평 5천여평의 병원 공간이 좁아 새로이 3천여평 가깝게 증축을 해 올 8월에 준공검사 및 고불식을 마치고 이사까지 마쳤다. 그야말로 모범적인 불교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일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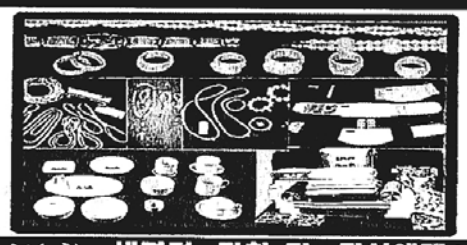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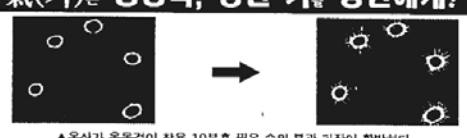
나의 신행과 수행생활은 소증한 생명을 다루는 이곳 병원 한가운데서 이뤄진다. 매일 아침 염불소리를 들으며 출근을 하고, 제일 먼저 법당을 찾아 부처님전에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그리고는 줄곧 숨가쁜 진료 스케줄 속에서 한사람 한사람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점검한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시간은 가고 또다시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를 맞는다. 자리에 앉아 마음을 정돈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단순한 의료인으로서가 아닌 한사람의 인간으로 다가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는지를 스스로 물으며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내겐 큰 공부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한마디 따뜻한 눈길, 함께 기뻐하고 걱정하는 것까지도 나누어 가지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다.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진정한 마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 내가 배운 의술을 병들고 힘없는 이들과 나누는 일로 불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서원을 세웠다.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처럼, 퍼내면 퍼낼수록 맑게 고이는 샘물과 같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한다'는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욕심없이 모든 일상생활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경주병원 불교회는 해인법사와 회장, 수석부회장, 남녀 각 1명의 부회장 및, 고문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불교정신에 입각해 여러가지 행사를 주관하며 신행활동과 명실상부한 불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회원들과 함께 하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신행생활의 기초를 다진다.

정기법회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스님이나 회원 및 그 가족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꽃바구니 및 병원생활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또 불교서적을 정리 구비하고, 불교관련 영화상영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봄가을 성지순례행사를 통해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불우 이웃 돕기와 환경정화운동등 신행활동으로 수행의 기반을 계속 다져나갈 것이다. 〈끝〉

심야전력기기
IMF·고유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영업부 : 0343)445-6090
·FAX : 0343)445-3370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신가 옥욕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과장이 활발하다
연욕 사용전 1.5㎷ 연욕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여자히음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玉山家 옥만을 삭힘에서 사이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이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신가 욕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건욕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02)777-0105(우편판매可)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 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동양철학 길잡이 ~ 사/주/박/사
사주박사
위기가 낭는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인생의 등대가 되어 줄 오묘한 진리, 역학의 세계
역학의 등불을 사주박사가 들겠습니다.
동양철학 수천년의 寶書를
가장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정상의 역학 전문 소프트웨어 사주박사
생활의 필수품 컴퓨터에서
역학의 진리를 펼쳐보십시오.
▶ 사주박사는 출시8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가장 완벽한 역학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 DM발송 및 고객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사찰 운영에 불편이 없습니다.
▶ 정서 수백권을 참고하여 수록된 해설자료는 백과사전 49권 분량에 달합니다.
▶ 사주원국(용신), 종합해설, 행운, 대운, 세운, 육효, 천전즉시운, 택일, 궁합, 감명, 사명, 귀곡산명술, 기문둔갑 오운육기, 자미두수, 토정비결, 당사주, 만세력
정가
<사주박사 5.0 전문가용> 150만원 ▶특별할인가 79만원
<사주박사 5.0 팬샘최저용> 300만원 ▶특별할인가 150만원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9-6 평화 B/D 7층
☎ 02)522-3268 FAX. 02)522-3263

용화세계에 서니 속세시름 잊고…

불교문화 체험기행 11월

법주사 · 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



◇법주사의 법(法), 청동미륵대불은 용화세계를 발원하여 그렇게 서있다(높이 33m).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체험기행단은 15일 〈직지심경〉의 고향 흥덕사지와 법주사를 찾아 나섰다. 두 시간 남짓 중부고속도로를 달려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최진석)에 도착했다. 박물관은 '청주시 흥덕구'라는 다소 낯익은 지명에 위치해 있었다. '흥덕'은 바로 〈직지심경〉이 인쇄된 흥덕사지(사적 제315호)의 이름에서 빌린 것이다. 황정하 학예연구관이 기행단을 맞았다. 고인쇄박물관의 왼편 너머로 복원된 흥덕사 대웅전 치미 자락이 보였다.

'흥덕사'라는 절 이름이 세간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유네스코에서 '세계 도서의 해'로 지정했던 1972년부터다.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은 그 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인쇄본인 〈백운화상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심경)〉을 처음으로 세간에 소개했는데, 경전 후기에 "1337년(고려 우왕 3년) 7월 청주목 흥덕사에서 주자 인쇄"라는 기록이 있었다.

청주사에서 흥덕사지를 찾으려는 노력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13년이 지난 1985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흥덕'이란 명문이 기록된 '금구(金鉤)'를 우연히 발굴하면서 흥덕사의 실체를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흥덕사 건축물을 기록한 문헌이 없어 92년 금당(金堂)만을 복원한 채 끝났다. 금당에는 충주 대원사 대웅전의 형식을 빌려 세운 대웅전과 철불이 있었다. 〈직지심경〉의 흔적은 더더욱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대 최고(最高) 정보기술이 사찰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은 큰 수확이다. 문헌상으로 우리나라 최초 금속활자본은 1200년대에 인쇄된 〈증도가〉이다. 그렇다면 흥덕사의 〈직지심경〉은 120여년을 거슬러 오르는 정보기술의 화신(化身)이 아닌가. 고구려의 고승 담징이 610년 종이와 먹을 일본에 전해주고, 불국사 석가탑에서 최고(最古)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1년)이 발굴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직지심경〉에는 고려시대 최고의 정보기술을 사용해 발간했다는 유형의 가치도 있지만, 선대의 선지식과 불교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무형의 가치도 있다. 박물관이 금당의 경계에 서 있는 것은 〈직지심경〉의 진면목을 찾기 위해서다. 프랑스에 하권이 있다면 어딘가에 상권이 있을테니까. 인연을 기다리기보다는 찾아 나선 것이다.

우리의 찬란한 고인쇄문화를 설명한 황정하 학예연구관은 말했다. "박물관에서는 25일까지 '고서 및 판목 특별전'을 여는 한편 〈직지심경〉과 관련이 있음직한 사찰 20여곳을 선정해 그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서를 뒤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모습을 바로 가리킨다'는 〈직지심경(直指心經)〉의 진면목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부처님의 혜안을 저버린 업장이 너무도 커서 이미 〈직지〉는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직지〉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기행단은 오늘의 불교를 걱정하며 속(俗)은 다 떠나고 법(法)만 남아 머무는 속리산 법주사로 향했다.



◇"팔상도중 다섯번째 '설산수도상' 입니다. 그런데 설산이 없죠. 부처님의 출가와 수행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법주사 팔상전 경내를 안내하는 문성스님의 설명을 듣고있는 기행단

법주사 경내엔 민족의 보물 즐비
'직지심경' 고향 흥덕사지서 자긍심
고인쇄박물관 전시품 대부분 불경

법주(法住)란 '법이 머문다'는 뜻이다. 신라 고승 의신스님이 천축국에서 경전을 가지고 돌아와 흰 노새 등에 싣고 이 곳으로 들어와 절을 짓고 금신장육상(金身丈六像)을 모시니, 법(경전)이 머무는 법주사가 되었단다.

서쪽일가람(西第一伽藍) 법주사 경내로 들어섰다. 대웅보전(보물 915호)과 팔상전(국보 55호) 사이로 극락전·원통보전 등의 전각과 요사 등 그 너른 마당에 넓린 것이 다 민족의 보물이었다.

용화의 세계를 그렸다는 석련지(국보 64호)가 눈에 들어온다. 음직한 돌 연못의 조각 솜씨는 참으로 곱고 부드럽다. 그러나 아름다움도 세월의 풍상을 견디지 못하는 모양이다. 금가고 부서진 것을 꿰맞추어 얼기설기 엮어 놓았으니 보는 마음이 무상하다.

1989년 월탄스님이 주지로 재직할 때 용화정토를 발원 조성한 33m 청동미륵대불도 그 무상함을 일러주는 듯 경내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용화정토는 〈미륵상생경〉에 나오는 세계로 미래의 부처님이 다스리는 안용의 세계이다.

사실 미륵불은 진표율사가 776년 법주사를 중창할 때 처음 세워져 있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미륵불이 파괴되자 벽암 각성스님이 1624년 미륵불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그 미륵불도 대원군 집정 당시(1872년) 경복궁 중수를 위한 당백전 형태로 징발되어 1938년까지 연화대석만 남아 미륵불의 자취를 전했을 뿐이었다.

1962년 시멘트 미륵불을 접안했지만, 그 미륵불도 오래 서있지 못했다. 지금의 청동미륵대불이 조성된지는 10여년 남짓 된다.

그동안 미륵불은 민족의 영락을 지켜보면서 자신에게까지 번져온 역사의 명암까지도 감수해내고 지금껏 중생을 안으로 보듬어 왔다. 청동미륵대불의 진면목은 바로 천년전 진표율사가 세웠던 그 미륵불인 것이다.

미륵불의 비계 안에는 이상한 석상이 있었다. 의견 보살(倚見菩薩·지방유형문화재 98호)이다. 조금도 기뻐 보이지 않고 기쁘게 바라볼 수도 없는 석상의 이름이 하필이면 의견이다. 그러나 억겁의 세월을 다기(또는 항로)를 이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저 의견보살은 미화이 아닌 신앙으로 감상해야만 한다. 보살의 기원이 너무도 간절해 처절해 보이기까지 한다.

쌍사자석등(국보 5호)과 사천왕석등(보물 15호)이 포해내는 천년 세월의 숨결을 뒤돌아 금강문 왼쪽 기슭에 이르렀다. 추래암이다. 원래 뒤편 수정봉에 있었는데 제멋대로 자리를 타구었다가 산신에게 밀보여서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 바위에는 고려시대의 선각화인 마애여래의상(보물 216호)이 있다. 미소를 머금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설법인(說法印)을 짓고 있는 미륵불이다.

대체 신라시대의 고찰 암벽에 고려시대의 미륵불이라니. 법주사 경내를 안내하던 문성스님(포교국장)이 추래암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권했다. 과연 미륵불 원권에서 희미해진 '설화도'를 찾을 수 있었다. 천년의 풍상을 겪은 탓인지 설화도는 겨우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의신스님과 흰 노새였다. 그렇다. 의신스님이 가져온 법은 바로 '정토'였기에 오랜 뒤에도 미륵불이 조각된 것이다. 변하고 소멸되는 압각화 그 자체가, 그들이 남긴 정토의 법은 여기 법주사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여겨졌다.

체험기행단을 태운 버스는 법주사를 벗어나 해발 8백여m 고지의 말티재를 넘어 서울로 향했다. 구절양장을 연상케 할만큼 아슬아슬한 급이들이 이어졌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무심히 흘러가고, 가을 나엽 서로 부딪기는 소리가 들려오는 저곳에 머문 법은 대체 어떤 경계에 있는 것일까.

글=오종욱 기자(gobaco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법주사의 사천왕문을 넘어들면 우리나라 유일의 복조탑 팔상전(국보 55호)과 마주친다. 법주사 경내에는 민족의 보물이 즐비하다.



◇청주 고인쇄박물관 전시실에서 금속활자 목판본 등 찬란했던 고인쇄물을 관람하는 기행단. 25일까지 충북고서전이 열리고 있다.



◇흥덕사 금당. 당시 철제 나발이 발굴돼, 90년 복원된 금당에는 철불이 봉안되어 있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 입증된 「세사미논」 성분을 대량

세사미논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약장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이름이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들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강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神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물질·정신계 함께 작용해야 걸림없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병고·액난 나오는대로 되맡겨 놔야 다시 입력돼 현실의 것 나와


그림·최주현

벌써 날씨는 겨울날씨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찰나찰나 변해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정신계는 무시하고 물질계에만 집착하여 정신계의 50%만 넣고 굴릴려니까 맞지 않습니다.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맞먹어서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가 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바깥에서 끄달리고 바깥으로 이름을 찾고 바깥으로 형상을 찾고 바깥으로 허공을 보고 모든 것을 허무하다 하고 이렇게 나가시니까 50%는 감추어져서 100%가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치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걸리지 않고 순수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모두가 걸리고 액과 액난이 거듭거듭 닥쳐오고 결국 내몸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지요.

살아나가다 어떠한 고난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게된다 합시다. 부처님 말씀과 틀린가 아니 틀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마음에 어떠한 액난이나 고난을 안고 옵니다. 그 안고 오는 고난·액난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악이 솔솔 풀려 나오고 액이 솔솔 풀려 나오고 병고가 솔솔 풀려 나오고 모두 이 과거에 살던 그 인연에 따라서 업이 지어진 관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거기에 다 되맡겨 놔야만이 다시 입력이 돼서 과거의 것이 무너지고 현실의 것이 나오는 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나는 생각해 본 예도 없고 말한 예도 없고 행한 예도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져오시는 것을 마음으로 가져오시죠. 나도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졌을때 그 광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용을 할 때에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내마음이 양면이 없어지고 그 에너지 광만 나오게 돼있죠. 그 양면이 없어지고 불이 번쩍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이 가져온 재료가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중에 어떤 상대가 했다고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좁게 보면 네가 했다,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군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반면에 그러면 바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는데도 낳았다고 내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남편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모든 문제들이 네자식 내자식이 따로 없고 네형제 내형제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이치로 돌아갑니다. 그럼으로써 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했다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했다 안했다 이것이 없습니다. 네자식이다 내자식이다 그것이 없습니다. 네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체중생이 다 무심이 와서 닿는다고 하더라도 무심이기 때문에 모든 게 들여놓은 것이 두드러짐이 없고 그것은 많이 이렇게 굴려서 내보내도 또 주는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영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왜 묘한가 하면 그것은 체가 없고 만물을 다 한가지로 비유할 때 저 목신한테 목신과 인간의 마음이 한마음이 된다면, 내가 목신이 될 수도 있고 목신이 인간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자르면 탈이 난다고 하는 것도 둘이 아닌 까닭에 그 마음을 내 마음에다 넣어서 한 마음이 된다면 그것을 잘라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단을 만들어 놓고 영가의 위패를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모두 없애도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들기 때문에 그 물건은 치워도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뜻이 깊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들은 얘기 또 듣고 수만번을 들어도 흘려버리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오는 예가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감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침착하게 들으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시고 침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생전의 마음으로 항상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만 굴려서 생각하고 이익하게만 굴려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십시오. 이 생각과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해버리는 말과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생각들을 해버리지만 그게 아주 적중되는 얘기입니다. 현실로 나오는 무서운 도리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입자와 반입자가 한데 합쳐지면 두 개가 융합이 돼서 반응작용할 때 두 입자의 질량은 다 없어지고, 없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로 물두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력 즉 에너지광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지 아니하면 성사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여러 정신분열자 등 유전성으로 오는 사람, 영계성으로 오는 사람, 세균성으로 오는 사람, 업보성으로 오는 사람, 윤회성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병원에서 100%를 다해낸다고는 못봅니다. 과거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신계를 발전시키지 아니 한다면 그것을 막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65%든 60%든 커버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내 몸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내 가정도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인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한 가정이라면 한 방통안이라고 봅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하는 얘기를 하죠. 방편으로. 전구는 많지만 전력은 똑 같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내 뒤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면서 온통 야단들을 하지말고 그저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까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다 한마음 주인공!

주인공만이 우리 식구를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몸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성사가 되는 것도 거기요, 성사가 안되는 것도 거기니, 성사가 되게 하는 것이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맡기고 놓았을 때 식구들 마음이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등은 각각이지만 전력이 같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밝아질 것을 애를 태우고 나가서 안들어 오느니,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니,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모두 잠이 안오고, 잠을 못자니 아둥바둥 하니까 병은 병대로 나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오지 못하고 모두가 악화되는 겁니다. 너그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너그럽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속에 벌써 현실로 수억개나 악업 선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구요. 그럼 그 배낭 속에-이 몸이 배낭이라고 해도 됩니다-그렇게 수억겁을 거치고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이 인과를 짓고 업을 지은 이 악업 선업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모두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다 맡겨 놓으신다면 바로 과거의 것은 무너지고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현실에 좋게 생각해서 좋게 말기는 것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숙명통이라고 하죠. 숙명통을 비교한다면 지금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나오는 그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그렇게 해도 안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안되긴 뭐가 안됩니까?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인데.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죠. 여러분이 없으면 상대가 있을 리가 있나요. 무효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게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화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화두예요. 그대로 내가 내 주인공이 화두니까 앉으나 서나, 눕거나, 깨나, 일을 하나, 잠을 자나, 모든 것이 참선 아닌 것이 없어요.

좌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것을 모두 합해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앉았을 때는 앉았고, 설 때는 서서 생각을 하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생각하고, 아 그대로 내가 없으면 일체만법을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바로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 다시 맡겨놔야만이 입력되었던 것이 없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액난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줄 모르고 거기서 딴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겹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하고 별의별 우환이 찾아드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똑바로 믿고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한마음 주인공! 나를 이렇게 해 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해 주시오가 어디 있습니까? 둘이 아닌데 유심과 무심이 어떻게 둘이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둘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 주시오가 아니라 틀림없이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이심전심으로 수없이 통하고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상대 마음으로 가서 바로 해결을 하는 것도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바로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이 업보성을 전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보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보살로 만들 수 없으면 중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무심의 중용,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00%를 작용하면서 굴리는 것이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쯤해 두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보이는 것 안보이는 것 100% 굴려야 중용
"밖으로 찾고 끄달리니 고난이 생기죠"

윤회하는 주체 알고싶습니다

문 큰스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제 안으로도, 그리고 밖으로도 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윤회한다는 것은 유전자를 통해서 후세에게 계속 자기를 복제해 주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3)

탑을 쌓아올리듯이 믿음으로 밀고 가라.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 태어났고, 수행하기 위해 살고 있다. 하루 24시간의 모든 활동 -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세수하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움직이고, 잠을 자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다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바로 진정한 나 자신에게 귀의하고,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다운 수행자라면 진리에 순응하는 마음에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시도 게을리하지 말고 일체를 맡겨 놓고 관해야 한다.

국민학교 학생이 대학 과정으로 바로 가려 해도 안되니까 열심히 해야 하듯이 모든 경계에서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기기를 열심히 하면 알게 된다.

나무를 비벼서 불을 얻고자 할 때 제대로 열이 나기도 전에 문지르기를 그만 둔다면 어떻게 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절실한 데서 불이 나오는 것이니 불이 붙을 때까지 정진해야 한다.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노리듯,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자기 본래면목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야 한다.

말에 걸리고 상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하면 공부하기 어렵다. 지옥에 떨어질까 겁나고 꽁지벌레 될까 겁나면 공부하지 못한다. 경계에 아랑곳 없이, 천방지축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밀고 나가라.

모든 것을 다 걸고 해보는 배짱과 당당한 포부가 있어야 한다. 좀 안다는 사람은 알아서 더는 못 나가고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아 못 나가니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나갈 줄 알아야 한다. 한 철 살다가 가고 또 오고 또 가고 연방 돌아가는데 찰나 생에 알면 얼마나 더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는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눈 하나 깜짝 않는 태도로 믿고 맡겨라. 부처님께서 삼천 대천 세계를 다 집어삼켰듯이 이왕이면 전체를 도둑질하라.

이 공부가 여간 대단한 공부가 아니다. 참으로 광대 무변한 진리이며 끝없는 공부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법인데고 불구하고 수행한다 하면서 절에 다니는 걸로 '이만하면 그냥 저냥 공부하는 것이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 마음 공부 할 수 있는 조건이 스스로 갖춰져 있다는 것을 절실히 생각지 않는 경우이다. 일체를 하나로 뭉어 주인공에 열심히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인과를 녹이고 습을 떼고 참 나를 발견하는 법이다.



모르니까 공부해야 하고 알면 아니까 또 공부해야 한다. 항상 붙들 것 없는 것을 붙들고, 앉으나 서나 일을 하면서도 늘 주인공을 염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허투루 하고 한데로 떨어뜨리면 안된다. 한 번에 몰아서 하거나 크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한 꾸준히 침착하게 해 나가야 한다. 아무것도 바라는 바 없이 그렇게 해 나가노라면 어느 사이엔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이다.

탑이 올라가는 것을 보라. 돌을 하나 씩 쪼아 올릴 때 먼저 주춧돌을 놓듯이 주인공에 일체 경계를 놓고 믿음의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라. 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다시 흐른다. 바위나 언덕을 만나면 끼고 돌아 흐른다. 참나를 찾는 공부도 그와 같아야 한다.

마음 공부는 어떤 학문을 전공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공부는 한시도 끊어질 수 없고 끊어져서도 안되는 공부이다. 그러나 끊어지지도 않는 공부이므로 생활이 곧 불법이자 불법 공부임을 잘 살펴야 한다. 물고기가 물에서 온갖 살림을 다 짓듯이 우리는 주인공을 믿는 마음속에서 온갖 일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앞뒤가 꽉 막혀 어떻게 해 볼 수조차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는 때가 있다. 이러할 때 믿음이 흔들리고 공부가 뒷걸음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더욱 정진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이끄는 근본은 주인공뿐이라는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하에서는 직면한 난관조차도 주인공이 나를 위해 제공하는 공부의 기회가 된다.

공부하기를 몇 년이 되었다, 몇십 년이 되었다 하는 세월 계산은 아무 의미가 없다. 50년 간 공부했다 해도 5일 공부만 못한 경우도 있고 5일 간 공부했다 해도 50년보다 나을 수 있다. 근본 자리에는 시공이 없는 것이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많고 적음이 마음 공부에는 해당될 일이 아니다.
이 공부에는 길다 짧다의 기약이 없다. 삼천 년이 한 찰나가 되는 공부이므로 빨리 해야 하겠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이다. 묵묵히 참구하라. 마음법에는 손자든 오자든 병법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협찬 : 김재영 김순옥 김지양 김하석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일체만법이 모두 자기한테서 벌어져

☞ 15면에서 계속

고 그렇게 개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다시 본래 주인공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업식으로 뭉쳐서 윤회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서 배낭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배낭 속에서 나온 업식은 모양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 물론 그 배낭 속에 생명·의식·모습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 자체는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체가 없듯이 모두가 내 마음이 자체가 하는대로 행은 그대로 따라줍니다. 이 인과의 업식은 잘되고 잘못되고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옴죽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회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윤회라는 것을 못느낍니까? 사계절이 돌아오는 것도 윤회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이것도 윤회입니다. 또 별성도 은하계에서, 별성들의 마음이 태양계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만들었으면 이 옷만 벗지 그 영혼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본과 거기에 에너지가 부합되면 다시 옷을 입고 생산이 됩니다. 인간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있다고, 과거의 업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조금도 에누리없이 자기한테 자기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몸을 받아서 나오죠.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있다고 해서 어린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거기에 한데 합쳐 삼합이 돼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올라가서 비로 내립니다. 비로 내려서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이 생명체들이 다 그것을 먹고 삽니다. 살아 나가는 데도 이것을 독사가 먹으면 독물이 되고 독의 피가 되고, 약초가 먹으면 바로 약초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또 물을 먹고 땀을 흘리고 또 죽고, 물도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또 도랑물을 만들고 바다로 만들고 바다에서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럴진대 어떻게 윤회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윤회라는 것은 이름이지 모두가 일체만물 만생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죽어 그냥 없어진다면 지속되는 끝간데 없는 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문 스님 제가 지금 살아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는데 어떻게 윤회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답 그럼 말입니다. 댁은 이름을 몇 개 가졌습니까?

자식이라는 이름도 가졌겠죠. 사위라는 이름도 가졌구요. 남편이라는 이름도 가졌구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가졌구요. 그런데 순간순간 남편이 될 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의 말을 하고 남편의 행동을 하고 아 이런다 말입니다. 또 아버지 하고 오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또는 자동적으로 얘, 아무개야 부르면 자동적으로 아들의 노릇을 하고 아들 말을 하고 아들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문 제가 지금 살아있는 행동하는 것 자체는 지금 생각하고 또 본래 주인공 마음에서 입력하고 다시 내놓고 그러는 지금,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과거에서 이어져오고 미래에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 없고 현재에 내가 지금 이자리에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하고 같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연대로 뭉쳐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참으로 제 소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답 이해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면 얽매이고, 알면 얽매인 것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말하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자꾸 자꾸 바뀌어서 돌아가는데, 무엇을 생활 속에 있는 것을 그게 뭐가 그렇게 의증이 납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신계의 무심도를 이렇게 생활로서 엮어 나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이 빠졌으면 무효야. 하!하!하! 그런데 정신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부처님 법이라, 여러분이 법이 그대로 부처님법이라. 아, 윤회!하고 말할 건덕지가 뭐있나?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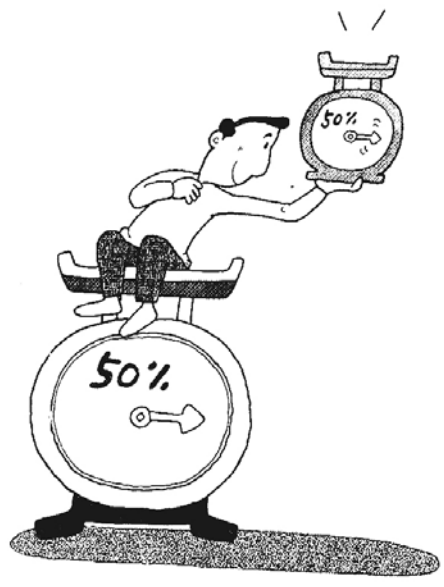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정됨 없이 돌아가는 이치 모르면 매이고 알면 벗어나니 그대로 부처님 法

올바른 관법 일러주세요

문 큰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주인공이 하니까 그 주인공에다가 몰록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관찰해 보면 예전부터 믿어왔던 나가 아니라 참나 또는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에 늘 느낄 수는 없지만 주인공을 찾는데 큰스님께서는 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관을 할 수 있는지 그 관하는 관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여태 얘기 했는데도…하하하! 관법은 누우나, 앉으나 내가 좀 앉아서 참고해 보겠다 하고 앉아있으면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하는 겁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넘고 뛰어넘는 교차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죽을 것이고, 내 쉬고 들이쉴 수 없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 양면이 교차하는 그런 틈에서 숨을 쉬고 그래로 살아있는 바로 그놈이 있으니까 그 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놈밖에 없잖아. 그리고 모든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없다면 들이고 낼 건덕지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이 공부는 어떻게 하누. 그렇기 때문에 이 배낭이라는, 종이라는, 집이라는 육신에 50%가 달려있다 이 소리야. 그래도 이해가 안갑니까?

문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배낭에서 나오는 문제를 관하라고 말씀하시는건데 실제로 관할 때는 전혀 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답 하지 않으나 관하나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 허허허….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안하는 것도 그자리요, 하는 것도 그 자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여여함이야. 그 안한다 끊어졌다 하는 생각은 자기 관념적인 생각이지 포괄적인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쉬라 이 소리야. 하루종일 24시간 얘기를 안하고 그것을 끊어뜨리고 있다 하는 것도 자기 관념의 생각이지 끊어지긴 뭐가 끊어져. 허허 쉬임없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문 그럼 정말 쉬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답 하하하…. 아, 끊어진 것도 거기서 하루종일 일을 하다가 생각을 문득 해도 이게 이런 게 있어. 24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24시간이라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다, 저녁에 생각해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냥 붙어버려. 그 공간이 그냥 없어져버려. 이렇게 묘한 법이야.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관념적인 생각이라 이거야. 하루종일 내가 끊어뜨렸다 하는 생각은.

개미와도 통하는 마음

문 스님 저는 제가 체험한걸 얘기할까 싶어서요. 올마전에 제가 공부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저희집 부엌에 개미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밀을 하다 보면 개미가 물에 씻겨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지라 개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야! 개미야! 제발 부디 살 데서 살아다오. 여기서 살지 말고, 네가 살 곳에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부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가게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날 저도 모르게 "아휴, 개미야"하는 마음이 도더라구요. 그래 그러면서 제발 여기서 나가줘 하는 마음이 무심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보았더니 부엌 싱크대 위에 개미가 참 많았었는데 개미가 흔적이 보이지 않는거예요. 어머 이상하다. 나도 모르게 아까 이상하게 그랬었는데 왜 개미가 한 마리도 없지 하는 마음이 들어 이상해서 개미가 좋아하는 설탕이나 빵부스러기를 일부러 놓아보았지만 개미가 없는 거예요. 부엌과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에는 개미가 있는데 부엌에는 개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그곳도 개미가 없어졌던 거예요. 지금 제 마음도 그래요. 그걸 느끼면서 아 이 마음과 풀 한포기가 본래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있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봐. 내 마음이 개미와 통했구나.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가슴이 아팠었던 것이 개미하고 한순간에 통했구나. 그래 저는 그것을 느끼는데요. 그것과 같은 이치인지 아니면 개미가 여기가 살기 싫어서 갔는지….

답 좀 믿어봐요.
이 우주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하나를 체험해서, 체험할 때는 그 줄을 잡고서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야해요. 그래서 그 모든 풀 한포기, 지렁이 한마리, 진드기 하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거 다 부처의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불성이 전부 있기 때문에 부처님 아니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돌아가니까 우주와 직결이 되어 있고 세상과 가설이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중단을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부처님 한분만 모시려고 그랬더니 자기몸이 자기를 마구 때려서 그냥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치우되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내 한테로 다 넣고 그 물건만 치워야 되는데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도 않은 데서 너는 너고, 나는 난데서 치우니까 그쪽에서는 내몸을 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되면 모든 각처 각곳의 자기가 이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벌써 무심도리에서 중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도 모두가 음죽거려 가지고 같이 이끌어주는 모든 중생들이 보살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거죠. 그래서 보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많은 개미에게 다 마음이 전달될 수가 있구나 하니까, 이제는 풀 한포기를 보아도 꺾지를 못하겠구요. 벌레고 사람이고 누구를 보아도 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답 그러기에 옛날 선지식들은 짚신을 신고 주장자에 방울을 달아서 저렁저렁 딛고 다니셨어요. 그소리를 듣고 밝히지 말고 미리 달아나라고, 그러니까 이 식물 하나 무정물이 전부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속에 내면의 세계에서 나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서 낫게 되는 동기가 이 모든 것을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가 없거든. 이래서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틔워주지, 남이 사기를 칠려고 하는데도 여기선 벌써 자기가 자기사기를 치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싹 돌아서 옆으로 가게 만들지 이렇게 묘한 법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칼을 떨어뜨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몸이 있어서 이것을 알아야지 몸뚱이 없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 저 뭡니까? 의식이, 중생의 의식이 그냥 있어서 죽으니까 여기서 그림자 쫓아다니듯이 나와서 그냥 와글와글하니, 한 발짝도 떼놓을 수 없지. 또 강을 건너갈려니 그 영혼이 자기가 이 몸뚱가 있는 줄 알고 의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봐 건너가질 못하잖아. 배가 올 때를 기다리니 몇천년을 그 강가에서 거닐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이라는 물바퀴 속을 넘어서야 되는데 타 죽을까봐 못 들어가죠. 마음이라는 것이 타죽는게 어디 있고 타죽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보면 그 개미하나 그러는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만물이 다 나와 더불어 같이 놀게 되고 같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하늘을 보고 기가 막혀서 앙청을 하고 땅을 보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뭣고' 생각도 놓아야 합니까

문 제가 금방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일어섰을 때에는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제 가슴만 이 심장이 뛰는 것만 느껴지고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뭐꼬'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면서 화두처럼 참구를 해야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주인공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하는지 법을 설해 주십시오.

답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뭣고'도 그 자리에 놓으십시오. '이 뭣고'라는 말에 착이 붙으면 끊어질까봐 두려웁고 또는 무기공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뭣고, 이게 뭘까 하는 것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이러는 겁니다. '당당히 네가 있으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하는 것 하고 '이 뭣고'하는 것하고 수박을 보고 '이 뭣고'하고 있는 것하고, 그냥 칼로 딱 잘라서 먹어보는 거 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왕지사 배낭지고 한번 나왔다가 이 모습은 원점으로 돌아갈텐데 맛을 봐야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 24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24시간이라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다, 저녁에 생각해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냥 붙어버려. 그 공간이 그냥 없어져버려. 이렇게 묘한 법이야.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관념적인 생각이라 이거야. 하루종일 내가 끊어뜨렸다 하는 생각은.

> 항상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 좋게만 굴려서 생각하고
> 이익되게 굴려서 생각하고
>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자기증명 자기만 가능…내 주인공에 놓아야

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질문할 사람 또 없습니까?

이사갈 날짜 몰라 답답해요

문 이사 말씀이 나와서 저 공부경계와 상관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이사인데 그 이사가는 것을 지금 빨리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선뜻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스님께서 지도하신 대로 주인공에다 모두 맡겨 놓았는데 저 한테 이사를 권했던 분들이 이사를 언제 갈려느냐, 갈래 안갈래 자꾸 물어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 제가 잘 몰라요. 맡기고만 있지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아주 난감해서 그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노릇인가? 나 스스로도 그렇구, 저 스스로도 주인공한테 맡겼는데, 이것이 잘못 맡겨졌는가, 여러 가지로 좀….

답 이 말기는 도리도 이렇습니다. 맡기기만 해서도 이게 좀 딱! 침을 정면에 찌르는 소리가 못됩니다. 정히 급하면 맡기고 당신만이 가게 할 수 있고 또는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을 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마음이 정돈되어서 정하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생각해보면 여기 그대로 눌러 앉는 게 좋겠느냐, 가는 게 좋겠느냐 할 때는 눌러 앉고 싶으면 그냥 눌러 앉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는 것보다는 댁에서는 눌러 앉는 게 더 좋을 거 같지 않아요. 하하하… 더러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음도 알아주고 돌보아 주니까 말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문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답 그걸 말로 하라구요. 요 자리에서 와서 요 자리에 앉았고, 요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것을 이론으로 배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면 내가 나오지를 않았고 갈 것도 없어요. 그 도리를 알려고 하면 돼요. 내가 본래 한 물건 나온 사이가 없기 때문에 한 물건 갈 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우주 33천 · 35천 다른 이유

문 오늘도 법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중에 어느날 수행자 한분이 "불교는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성경에는 35천이 있는데 불경에는 33천밖에 없으니 우주를 다 간파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저의 견해로 볼 때, 유위법으로 보면 사람이 겨자씨만 하지만 영체를 이탈한 성인의 경계로 볼 때는 삼천대천세계가 공만할 건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성경과 경전에 차이가 나서 범부들을 혼동되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스님 한분이 앉아서 백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봐도 백지만 보고 앉았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노스님은 어찌해서 글자 한 자 써 있지 않은 백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과거를 볼 수 있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또 "과거만 봐서 되는 게 아닐세. 백성들을 제도하는 데도 역시 백지를 볼줄 알아야 제도를 할 수 있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이 수긍이 가는 겁니다.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나오는 사실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자네는 내가 말을 해줘도 잘 모르니 이따 보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급제를 해서 박문수 어사가 되었답니다.

협찬 송정빈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특별할인판매(수량한정)

동충하초 + 상황버섯
(1개월분 각 10만원)

■ 셋트로 구입하시면 불로환약을 무료로 드립니다. (판매가 10만원)
■ 암 및 불치병 완치사례 다수 있음.
■ 주문전화(배달 및 통신판매중)
건영백화점 1층
서울 02)926-6981
휴대폰 011)262-6981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물심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는

간 병 인 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환자 간병 - 산모 도우미
◇ 12시간 (주간, 야간)
◇ 24시간 (상주근무)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기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 - 질병상담
문제아 무료상담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468-9632/011)453-8611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옥천사**
주지 대원 합장

• 강 좌 •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파리, 승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제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수원 용인지역임)

활법선원 교육생 모집

◇내용 : - 선불교교리
- 명리학(사주학, 성명학)
- 기공(법륜공)
- 자연치유학(활법-척추교정술, 경혈지압 및 맛사지, 자연건강법)
◇특전: 교육 수료후 선법사, 활법사, 명리역학사 자격증 발급
※스님은 특혜 있음
(위치:7호선 상봉전철 1번출구앞)
교무처:02)434-7576/F.434-7576
생활선불교교육원(대학)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구 인 •

사 찰 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0443)
645-7604

전법도량에서 함께 사실분

◆위치 : 전주시 중앙위치 (고속버스 터미널옆)
◆자격 :
비구스님 - 세속나이 40세이하
비구니스님 - 세속나이 40세 이상
★전법도량 지정 전북불교회관에서는 전법에 뜻있는 스님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0652)275-0108
0652)275-5575(야)

신심이 돈독하신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지리산
백운암
0671)634-3451
0671)634-3041
011)315-3041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한 말 순
◆나이 : 69세 ◆키 : 1m 50cm
052)282-1490
0653)832-5769
(박 차 남)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현대으뜸타워 104동 1004호

한산도의 해경스님을 찾습니다.

0525)336-2328
0110566-1919
분당 진관음사에서 같이 수행했던 **보성 합장**

• 기 타 •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인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1)841-3591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회향암 혜월당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방산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해인 인테리어
02)201-1470
019)369-8000

• 사찰안내 •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홍은동 4거리
◇법당 : 20평, 방, 주방5평
◇보증금 1,300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절충, 즉시 법회 가능
◇욕실 및 일체시설완비, 급히 양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 진 불 사

사찰(급) 안내

◇ 건평 : 103평
◇ 법당 : 43평 목조건물
◇ 요사 : 5칸
◇ 전세 : 5천만원
◆ 신도 700여분
◆ 주차시설 완비(50대)
053)324-2518
019)512-2518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시흥동 대한전선 건너 수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부지 : 750평, 법당 : 30평 (주삼포 목조, 문화재급, 시설 A급)
◆요사채 : 지상 30평, 목조, 지하30평, 산신각 5평(돌벽)
◆채공실 : 17평(조립식) ◆가액 : 15억
◆ 특징 산세수려, 물좋고 납골당, 양로원, 근린시설요지 남서울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중.
서울버스 124번 버스종점근처
서울과 거리는 3분거리, 주차장 30대 가능
※ 운영하실 분은 연락요망
02)899-4281

사찰터(최적지)

◆위치 : 대전시 서구 5동
청학산줄기 절터 15,600평
(입야를 닦을 때 축대를 쌓지 않아도 7천~10,000평 정도가 생김)
단, 큰도로에서 4m 정도의 작은 도로로 500m 들어감
◆가액 : 평당 2만원(급매)
017)401-2459
042)583-1051
※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입니다. ※

사찰안내

◇위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8평
◇총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3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 직접면담 ※
0446)877-9051
012)925-6118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4평,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칠성탱화
◇ 가격 : 2천 8백(월세없음)
◇ 시설비: 천만원(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2)954-128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시화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 건물 : 3층건물 3층(40평), 법당, 방3
◇ 가격 : 전세 2천 2백
◇ 시설비 약간(즉시 법회가능)
※ 포교 최고요지
0345)433-2429

포교원운영하실분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5동
◆평수: 50평 3층건물(3층) 방2,주방1(주차유)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45만원) 전세 5천만원 가능
◆시설비: 상담후 결정요함
◆특 징: 주변전철역 2분거리 교통편리, A.P.T주택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입구 4거리 코너
◆ 평수 : 17평(공양칸1,방1,법당1)
◆가격 : 전세 1천 5백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9백5십만원
◆ 4월 초파일 법회 행사 했었음.
02)549-1129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위치 좋음)
◆평수 : 30평
◆가액 : 전세5천만원(포교원 전부) 시설완비, 월세도 가능.
◆ 직접 문의
018)311-3744
051)503-0177/011)320-9355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평수 : 대지+전 =16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50평
◇ 가격 : 2억 2천 5백만(급매)
◇ 특징: 주의경관 수려, 최상의 기도처
011)493-8936

사찰 안내

◆위치 : 경주 양남 효동 **용담사**
◆평수 : 법당 12평, 요사채 1동, 삼성각 1동, 부지 357평
◆주차장용도 550평
◆특징 : 폭포 2개, 경관수려
◆가액 : 1억 3천만(절충가능)
0522)277-2117
0522)248-7362
018)587-3585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천안역에서 15분거리
◇부지 : 약 500평
법당-대웅전,약사전,산신각,칠성각, 용궁,입상 미륵석불 3미터,세쌍둥이 코끼리 삼층탑(법당내외시설일체)
요사채-큰방 3, 입식부엌 1(1동) 보통방 2(1동)
◆특징 : 조용하고 깨끗한 기도도량 마을에서 1Km 떨어진 야산속
◆가격 : 1억 4천만(사정상 급히 양도)
011)686-99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짐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포교당 최적지

◆위치 : 김해시 어방동 대우 유토피아 상가 3층
◆면적 : 분양가 49평, 실평수 28평
◆가액 : 전세가 3,000만원, 월세가능 ※가격절충 가능
◆ 4,000세대 A.P.T 중심상가, 대단위 주차장, 에스컬레이터, 부대시설 아주 좋음
0525)327-5336
0525)327-7166

사찰안내

◆위치: 충남 ◆요사: 25평,
◆법당: 20평 ◆대지: 400평(문중)
◆가액: 3천만원
⊙ 전국의 사찰,포교당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 법당 : 삼존불,후불탱화, 신중탱화,칠성탱화 약15평(법회가능), 방2,부엌2,화장실
◇ 가격 : 전세가 아주 조그마한 사찰이나 포교하시는 스님께 악간의 전세금만 받고자합니다.
02)823-07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 부지 : 370평(아담한 산속)
◆ 법당 : 39평(주불 약사여래 6자)
◆ 요사 : 30평
◆가격 : 9천만원
0658)542-5859

포교원 안내

◆위치 : 안양 평천 신도시 전철역 입구 4층
◆평수 : 27평
◆보증금 : 1천만원 40만원
◆시설비 : 꼭 하실 스님에 한해 최저가로 절충, 사정상 급매
◆특징 : 전철역 교통편리,포교최적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상가밀집지역
015)8386-1904

포교원 안내

◆위치 : 미아 3거리
◆평수 : 50평
◆시설 : 현대식 시설, 잘 갖추어져 있음.
◆권리금 : 없음
◆가액 : 전세 7천만원
02)-941-3195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대지 : 48평, 2층건물(등기완료)
- 2층 법당 : 30평, - 1층 30평 요사채,
- 방 3개, 주방, 욕실 종무소
- 반지하 식당 13평 : 공양간
◆석가모니불, 동불5자, 후불탱화
◆가액 : 1억 5백만원(은행융자 2,500만원 승계-방1, 전세 750만원)
▶ 7,250만원에 인수가능
◆ 입주즉시 법회가능
011)790-7162 / 053)656-6609

사찰 운영하실분

■위치 : 평택시 근교
◆부지 : 575평 ◆법당 : 40평 ◆요사 : 40평, 방 6칸, 욕탕 3칸
◆기타건물 : 임석 미륵부처님, 해수관음부처님, 법당내 미륵보살님 300불
◆가액 : 답사후 절충
■위치 : 남양주시, 서울서 30분 거리
◆부지 : 대지 474평, 125평 2필지 ◆법당 : 25평 ◆요사 : 35평
◆가액 : 답사후 절충 ◆특징 : 입주후 즉시 법회 가능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서울본사 : 02)512-4447/ 011)736-4447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사찰안내

◆위치: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평수: 100여평
◆건물: 요사채2동
◆암자: 법당10평1동.
◆매가: 1500만원
※산세 좋고 물 좋고 수려
만불사주지 석진범 합장
0397)574-1358

토굴 · 암자안내

◇위치 : 경북 안동군 길안면 금곡리(황악산 용담사 입구)
◇평수 : 675평(대지)
◇가격 : 2천만원
◇특징 : 토담집 1채, 계곡끼고 경관 수려 토굴암자 최적지
되도록 0582)541-2584로 연락요망
011)781-6957/0571)858-3004

포교당 안내

◇위치 : 대전시 도마동 안심사
◇평수 : 40평
◇가격 : 2천 2백만원(전세)
016)564-8553
042)534-1441
052)298-3539

포교원(토굴) 안내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서울에서 열차 2시간거리)
◆조건 : 좋은 위치에 목조기와 단독주택(전면주택과 후면임야 대발)
◆대지 : 774-1번지 등기분 95평내에 기존건물 약50평,775번지 등기 90평
◆구조 : 법당1, 삼존불, 탱화4점, 방 3, 거실 및 조리장1, 샤워 및 보일러실 1, 마루 현관 있음. 옛날 기와집터현재 밭으로사용
◆특별할인가 : 총 3600만원
0451-641-7569/011)401-8259

사 찰 안 내

북한산의 정기가 모인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복호혈의 명당 중의 명당에 자리잡은 고려 말엽의 고찰터로서 오래된 석축이 사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있어 자연 풍광이 잘 보존되었고 기도처와 수행처로써는 북한산 내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도량으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법당 약 30평과 산신각 외 2동이 있으며 대지는 약 500평 사용하고 천연 자연 용천 약수가 있으며 미륵대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찰은 청정한 수행처가 지녀야 할 명당의 조건을 고루 갖춘 기운이 맑고 강한 도량으로 수행이 많이 되신 원만한 스님께 양도하였으면 합니다
■ 가격 : 10억 (절충 가능함)
■ 연락처 : 02)998-1818 주지 합장

불자 세상보기

"사행심-한탕주의 경계하자"

기업-백화점 경품경쟁…결국 소비자 부담

싸고 질좋은 제품으로 건전 소비문화 유도해야

어디서 한 1억원쯤, 아니 몇백만원이라도 하늘에서 안떨어지나…. 인생살이가 쉽지 않을수록 '횡재'를 바라는 사람은 늘어나게 마련.

최근 일부 기업과 백화점 등이 극심한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 경품을 내걸어 고객 끌어모으기 경쟁을 하고 있다. L백화점과 S백화점은 29평짜리와 22평짜리 아파트를, H백화점과 S자동차는 자동차를, H자동차는 금강산관광을, N실업은 러시아관광을 경품으로 내놓고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경품이 고액화되면서 어느 백화점에는 98만명, 다른 백화점에는 40만명의 고객이 몰려들기도 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아파트나 자동차, 수천만원의 현금이 경품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부들 사이에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경품행사장을 순례하는 '경품족'까지 생겨났다. 잡지·신문에 쏟아지는 경품광고 홍수로 경품응모대행업까지 등장했다.



◇ '경품 보다는 질 좋고 값싼 상품을', 한 업체의 경품추첨 행사에 800여명이 엽서를 보냈다.

이러한 경품경쟁의 문제점은 결국 상품가격인상 등으로 이어져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는 데 있다. 또 당첨률도 극히 낮아 사행심과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지난 8일 서울과 수도권소재 유명백화점 11개 업체 사장을 불러 "백화점들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품 제공 등 일회성 행사보다는 가격이나 서비스견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경쟁을 벌여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들도 고가 경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대전주부교실이 주부 3백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6.3%가 일부 백화점의 고가 경품행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 '찬성'(23.7%)쪽보다 훨씬 많았다.

주부들은 '사행성 조장'(54.2%)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꼽았고, 이어 △고객 전체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혜택(19.9%) △충동구매 유발(8.6%) △결국 소비자 부담(8.0%) 등을 들었다.

이와관련 종단협 소비자위원회 서동석 실장은 "고액경품은 충동구매와 과소비를 조장할 뿐 아니라 허황된 물욕만 부추겨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력을 의미없게 만들 수 있다"면서 "업체들은 구매 합리화를 통해 관매가격을 절감, 싸고 질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다"고 말했다.

'고가경품은 소비자를 붙잡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하는 업체들. 그러나 고육지책이기에 일회성의 얄팍한 상혼으로 끝날 수 있음을 명심해 건전한 소비분화 조성으로 정당한 매출신장을 기약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법답게 재물 구하라"

"바른 상도의로 장사를 하라. 힘써 노력하여 늦도록 일하는 재가자가 죽은 후에 '입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들속에 태어난다."〈아함경〉 업체들은 고가의 경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기 보다는 저렴하고 질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른 상인의 태도가 아닐까. 행여 불손한 의도가 있다면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으되 계량기를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면 죄가 된다"는 〈우바새계경〉의 법문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경품에 눈이 멀어 허황된 물욕만을 키울 것이 아니라 분수에 맞게 재물을 구해야 한다. 〈사제경〉은 그래서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라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한다"고 설한다.

시론

'80대 20'의 비밀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최근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조계종사태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평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세의 권력, 재물에 대한 집착을 비난하며 마음을 비우라는 그럴싸한 말씀을 일삼았던 불교계마저 시정잡배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으니 불교체면이 말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역시 한국 사람은 별수 없다'는 자학의 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불교 교단과 교리와 신앙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교단을 구성하는 사람은 한국인이며 한국적 원형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적 병리가 돌출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팔을 안으로만 굽히는 고루함'과 '칼자루 쥐는 자리가 제일'이라는 사고가 있다. 이것은 다소의 이해타산이라도 대립되면 어김없이 발동되는 한국인의 정신적 병리이다.

조선시대에는 도시인 서울과 폐쇄적인 8만개의 마을이 고작이었다. 모두가 감투를 최고로 여기며 특히 자기 마을을 위하는 마음은 특별했다. 이것이 잘못 확대되어 '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남'이라는 이기적인 '우리'의식이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뿌리깊이 잠재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감투제일주의, 지역차별, 학벌차별 등의 한국병은 한결같이 이 고루한 '우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국가를 향한 행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한사람 한사람 행동-의식변화 전체의 20%되면 사회는 바뀐다"

일본 어느 섬의 원숭이무리는 모래나 흙이 묻은 고구마로 사육되었으나 6년이 지난 어느날 그 중 한마리가 흙묻은 고구마를 바다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다른 원숭이가 그 짓을 하게되고 그 수가 차츰 늘어나 일정한 수에 달하자 그 섬안의 원숭이는 물론, 다른 지역의, 그것을 보지 못한 원숭이들까지도 모두 고구마를 씻어먹기 시작했다.

원숭이 무리가 고구마를 씻어 먹고, 새가 병 뚜껑을 쪼아 우유를 마시게 되는 계기 … 등은 집단적인 행동이 개혁되고 진화되는 순간(創發)을 뜻한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한국병의 증상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인이 이러한 전근대적 심성을 바꾸고 국민국가가 되는 순간은 부처님 자비의 마음이 발하는 순간, 즉 불심의 창발과도 같다.

최근 미국에서는 '80대 20'의 법칙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것은 투입되는 원인, 노력의 작은 부분이 산출, 결과, 보수의 대부분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이다. 사람이나 조직이 얻어내는 결과의 80%는 투입한 20%에서 나온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현상은 경제계에서 주로 관찰되어 왔는데 매상의 80%는 20%의 상품과 20%의 고객이 가져오는 것이며, 이익에 있어서도 이 비율은 마찬가지로 성립된다. 또 범죄건수의 80%, 교통사고의 80%는 20%의 범죄자와 20%의 운전자가 저지르며, 의류, 카페트 등의 닳는 부분도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기본 원리는 약 100년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며, 이를 '파레토의 법칙' '최소노력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생명체는 늘 변화한다. 특히 동물은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종을 존속해 가며, 인간사회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으로 민족을 유지해 간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병리를 치유하는 길은 저마다 중생의 자각과 외식개혁 뿐이다. 필자는 여기에도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할 것이라 여긴다. 불교계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진보적 행동과 의식변화가 20%에 달할 때, 전체의 행동이 변하고 조직과 사회에까지 불심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불교계는 이번 사태를 거울로 삼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불자들 누구나 더욱 강한 의지로 불심의 발동을 염원해야 할 것이다.

美서 '半人半牛' 기술개발

'생명질서 파괴' 윤리적 비난 쏟아져

축생과 인간을 오가는 윤회는 이제 무의미하게 되는 걸까.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법한 반인반수(半人半獸)가 탄생할 것인가에 지구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지는 12일 미국의 유전공학회사 ACT사와 미국 매사추세츠대학팀이 공동으로 인간과 소의 세포를 융합시켜 자라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96년 사람의 백혈구와 구강내 점막세포 52개에서 핵을 추출한 뒤 이들 핵을 제거한 소의 난자에 이식하는 실험을 시작해 실패를 거듭한 끝에 최근 이중 1개의 세포를 성공적으로 융합시켰다는 것. 연구팀은 현재 다섯차례 분열을 거듭해 순조롭게 자라고 있는 이 세포가 장래 어떤 모습을 지닐지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ACT사 호세 시벨리 박사는 "생물체의 형태를 결정짓는 유전자는 대부분 핵에서 비롯되므로 이 세포는 소보다 사람에 훨씬 가까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성숙할 경우 장기이식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수반인 창조에 대해 윤리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보도를 접한 미국 과학자들은 대부분 "자연계의 생명창조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공할 실험"이라며 실험중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ACT사는 현재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중이며 공청회를 통해 실험절차와 의미를 공개하고 계속 연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담양·장성에 '환경댐'

수질개선용으로 2000년 착공

수량이 부족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는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에 중규모 댐 2개가 건설된다.

전남도는 내년 부터 오는 2000년대 초까지 6백억원을 들여 영산강에 하천 유지수를 흘려보내는 '환경댐'을 건설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용수·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한 댐이 아닌 수질개선용 환경댐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댐이 건설되는 곳은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오례천 상류와 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평림천 상류 등. 담양 오례댐은 저수용량 924만t·하루 용수 공급량 3만6.000t 규모이고, 장성 평림댐은 저수용량 1.025만t·하루 용수공급량 3만t 규모다.

이 두 댐이 완공되면 하루 8만6천t의 맑은 물을 수량 부족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영산강으로 흘려보내 생태계를 복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랑의 불빛 찾아주기 운동'

한국전력 부산지사 직원 2백8명이 이달부터 관할인 부산·울산·양산·김해지역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과 1대1 결연을 맺어 1인당 월 5천원씩의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사랑의 불빛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기로 해 눈길. 한전 직원들은 IMF한파로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못내는바람에 한전규정에 따라 단전됐거나 단전의 위기에 처한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위해 이같은 아이디어를 냈다.

국립공원내 밀렵도구 제거

환경부는 16일 겨울 밀렵철을 맞아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반달가슴곰, 산양 등을 보호하기 위해 17일부터 한달간 국립공원 및 인접지역에서 밀렵도구 제거와 밀렵방지 순찰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품모아 이웃돕기 25년

25년동안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판 수익금으로 소년소녀가장과 노인 등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아온 윤호례(61·충북 청주시 내덕2동)씨. 그녀는 11일 '유엔환경계획 글로벌 500 한국인회'가 수여하는 '풀뿌리 환경상'을 받았다.

중형병원 10곳 폐수 무단방류

수은, 폐놀 등이 함유된 유독폐수를 방류하거나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려고 병상 수를 허위로 줄인 서울시내 중형병원 10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17일 서울 강서성모병원 총무부장 이평웅, 근화병원 총무부장 양제현, 방주병원 총무차장 고현달씨 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주병원 행정부장 김형곤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청 안 합장

일시 : 1998(불기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회향 : 1998(불기2542)년 11월 29일(음 10월 11일) 오전 10시

• 등(1인1등)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허 록원 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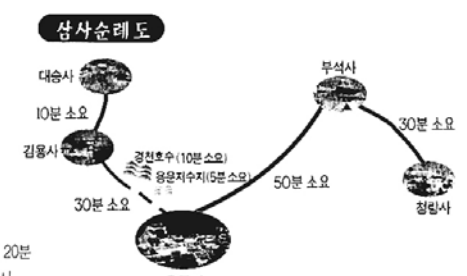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 문 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청 안 사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 10~6 30, 40분간격)
3시간 3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분 오후 5시
이시아나(서울 ⇒ 예천) 오전 8시 오후 6시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조계사앞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새싹포교 방향 찾는다

선재연구모임등 4개 단체 지도자연수

법회·교육·포교환경 개선안 토론
심성계발·답사·놀이 등 내용 다채

겨울을 맞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 이하 대불어)와 선재연구모임(회장 덕진)등 어린이·청소년단체들이 지도자연수회를 잇따라 연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련 대불어는 99년 1월 1~3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27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 지도자의 소양을 키우고, 새싹불자 지도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회 주요 교육 프로그램에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는 새 세기의 어린이포교'를 주제로 한 강연(철오스님)을 비롯해 △우리는 저마다 존귀한 주인(장휘옥) △불교의식에 대한 바른 이해(심산스님·통도사 부산포교원, 덕진스님·울산정토사 △찬불가(풍경소리) △깨어있는 삶을 위한 수행의 길 △참선-마음 밖에서 찾지말라 등이 있다.

이외에도 180분간 진행되는 조별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서로 나누고, 교육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한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조별토론은 △ 종단에 바란다 △스님께 바란다 △어린법회 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교육 현실 등 5개 주제로 진행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12월 5~6일 서울 구룡사에서 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연다. '부처님 품안 즐거운 우리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지도자의 자세-어린이·청소년 교화의 필요성과 지도자 삶의 방향'을 주제로 한 송묵스님(동원정사 주지)의 강연을 비롯해 △싱어롱(오혜록) △발표회 연출법(장명문) △찬불가(정유탁) △만들기 1·2(정선주·이상종) △체조(정기자) △놀이 놀이(이성훈)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선재연구모임 선재연구모임(회장 덕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서울 선재마을에서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제2회 선재 청소년 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다. '나와 부처님은 닮은 꼴'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심성개발(방난승·22일) △법회·취미활동(허혜진·29일) △찬불가(김경녀·12월 6일) △레크리에이션 지도법(이상훈·12월 13일) 등이 준비됐다.

일암청소년육성재단 일암청소년육성재단(대표 이영철)이 12월 14~17일 경기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여는 98 청소년지도자 연수에는 △지도자 역할과 기능 △지도자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 문화 이해 등 이른 교육과 △심성계발 및 답사 프로그램 △문예 및 환경 놀이 등 실천 교육이 마련된다. 이에 앞서 일암청소년육성재단은 28일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모듬활동 △답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해 예비 모임을 갖는다.

오종욱 기자 (gobaocou@buddhapia.com)

◇청소년단체 지도자연수계획

단체명	장소	기간	전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속리산 유스타운	99.1.1~1.3	(051)808-4569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서울 구룡사	12.5~12.6	(02)738-7860
선재연구모임	서울 선재마을	11.22~12.20	(02)433-1506
일암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유네스코청년원	12.14~12.17	(02)990-6365

주부신행담

포교사된 전주댁 ③·〈끝〉

그 시기에 아버지는 포수와 함께 사냥을 다니셨다. 부처님이 지키라고 하셨던 오계의 첫 번째가 바로 불살생(不殺生),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불살생계를 지키시지 못해 좋은 곳에 못갔을 거란 생각에 천도재를 지내기로 했다. 난 다시 서울로 올라와 성룡사로 와서 관음기도를 시작했다. 한 15일쯤 정진을 하니 꿈에 친정아버지가 관을 쓰고 나타나셨다. 너무도 평안한 모습이셨다. 부처님께 감사했다. '아무리 딸자식이지만 만분의 일이라도 자식의 도리를 했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했다.

처음 관음정진을 시작할 때 기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하루는 오늘이 석달째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 떠올랐다. 그 날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마음이 텅비는 느낌이 들었고 일어나 춤이라도 추고 싶어졌다. 그러나 다른 신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꾹 참고 기도정진을 계속했다. 이 일이 있은 후로는 내 욕심을 버리고 정당하게 정의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자유로워졌다. 어려서 엄하게 자랐던 나는 남자들 앞을 얼굴을 들고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는데 부처님 뜻이라고 생각이 되니 누구 앞에서나 당당해졌다.



그림·문병성

욕심 버리니 모든 일 자유로와…

며느리가 개신교도라 가끔씩 고부간의 갈등이 생긴다. 고부간이나 젊은 사람들과 사상이 틀릴 때에는 아무 말없이 방에 들어와 부처님 경전을 사경한다. 사경하다 보면 분한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모두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몸이 건강할 때에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큰스님 법문에는 모조리 따라다녔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흔줄에 들어서 거동도 불편하고 눈도 침침해 법문을 들으러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주로 집에서 불교방송을 들으며 지낸다.

몇 년 전 나는 혼자만의 기도와 경전보기로는 불법을 알기에 너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교대학에 입학해 2년 동안 공부를 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거동도 힘들었지만 불법을 배운다는 생각에 너무도 기뻤다.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불교대학에서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난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강사 스님에게 애원을 했다. 나이 때문에 못배운다면 너무도 억울하다고. 처음엔 안된다고 하시던 스님은 나의 애원에 잠시 망설이시더니 허락을 해주셨다. 덕분에 난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내친 김에 포교사 고시에도 응시해 당당히 포교사 자격을 거머쥐었다.

요즘 나는 교도소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불법을 배운 몸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포교할 기회를 놓칠 수야 없지 않은가. 또 틈틈이 〈법화경〉 사경도 하고 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에 나이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나는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거동이 불편해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모시면서 하루종일 불교일을 하며 살고 있다. 윤성애〈서울시 양천구 신천동〉

"성교육은 부모가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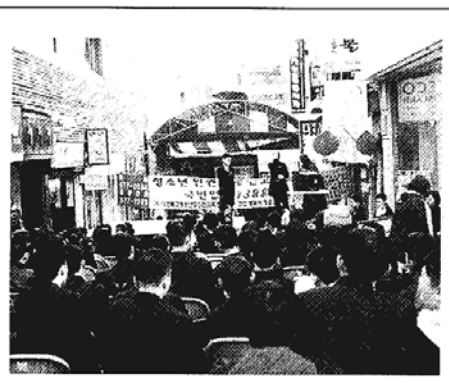
구성애씨 중리복지관서 강연

구성애(내일신문 부설 성상담소장)씨는 16일 마산중리종합복지관(관장 지홍)이 마련한 '올바른 자녀 성교육' 주제로 강연했다.

구씨는 "행위나 오락의 수단으로 격하된 성(性)을 생명과 사람을 낳는 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이해하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건전한 방향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매춘, 낙태, 성의 상품화 등 사회문제에 부모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구씨는 강조했다. 성 행위의 핵심이 생명창조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의 소중함과 행위에 따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1388 홍보' 거리캠페인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14일 인천자유공원과 신포문화 거리에서 중·고교생 3백여명이 참여한 '청소년 긴급전화 1388 홍보 거리캠페인'을 전개하고 건전노래방·기네스대회 등 건강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소개했다.

BBS '정연수의…'

IMF 알뜰정보 창고

전문가 초빙 의학·금융·문화정보 소개



◇정연수씨.

"친구도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있듯이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건강·생활정보와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는 불교방송의 종합 정보 프로그램 '정연수의 정보가이드'(담당PD 최윤희)가 IMF시대 정보에 민감한 청취자들의 주파수를 고정시키고 있다.

월~일, 저녁 6시15분부터 7시까지 생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은 정보시대' '정보 백과사전' '건강 365일' '돈이 몰리는 재테크' '문화탐험' 등의 코너를 신설했다. 또 의학·금융·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유익한 정보도 제공한다.

방송생활 14년 동안 교통·시사 등 정보 프로그램만을 고집해온 정연수씨는 "작은 정보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 주겠다"며 "경전에 들어 있는 부처님 말씀도 틈틈히 소개해 경제 한파로 얼어붙은 청취자들의 마음을 녹여 줄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울 자원봉사 3만명 참가
대전청교련 29일 98대회

청교련 대전지부(지부장 종실스님)는 11월 29일 10시 30분 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98 청소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

대전 지역 청소년들이 올 한해 동안 전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하고 99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중·고교생 6백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대회 참가자 전원이 '기아체험'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관련 상담창구도 개설한다.

올 한해 동안 대전지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된 자원봉사는 총 174종이며, 초·중·고교생 3만1천997명이 참여했다.

건강 365일 〈37〉 금앵자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옛날 어느 고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이 형제들 중 첫째와 둘째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나 막내에게만은 아들 하나가 있었다. 성장해서 청년이 된 이 아들은 외모가 준수하게 생겼으나 어려서부터 오줌싸는 병(야뇨증)이 있어 혼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의원을 찾아 치료를 해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약초 캐는 노인을 만났다.

길 가던 노인을 붙잡은 그는 자신의 대에서 손이 끊기게 됐다며 통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노인은 남방(南方)에 가면 야뇨증에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학질이 심해 갔다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한 노인은 "나도 자식이 없어 당신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지요"라면서 "당신을 위해 내가 직접 남방에 가서 약초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사라졌다.

야뇨증·여성 냉대하증에 효험
조루증·설사 치료제로도 쓰여

이 말을 남기고 떠난 지 세 달이 지난 어느날 노인은 얼굴이 노랗게 변한 탈진 상태가 돼서 돌아와 광주리에 있는 약초가 야뇨증을 고치는 약이라는 말을 남긴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를 지켜본 청년과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삼형제는 감동해 후하게 장사를 치러 주었다. 이 약초의 이름을 몰랐던 삼형제는 노인이 황금색 광주리를 메고 다녔다해서 약초 이름을 '금앵자(金櫻子)'라 이름 지었다. 이 금앵자를 복용한 청년은 야뇨증을 고쳤고 그 뒤 혼인을 해 아들을 낳았다.

금앵자는 야뇨증에만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대하증이나 냉증을 다스리는데도 좋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남자들에게는 조루증을 치료해 주며 정력 증강에도 도움을 준다. 복용량은 금앵자 8g, 여정자 8g을 달여 1일 2회 복용한다. (02)762-5510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녹수청산이 불교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전통 찻집 '녹수청산'이 종전의 운영형태를 바꿔 불자님들을 위한 만남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앞으로는 불교 신행단체의 공부모임이나 작은 법회, 문화강좌, 세미나 개최 등의 경우 불자라면 누구나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사용을 원하실 경우는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께서 별도의 서비스(음료제공, 장내정리 협조 등)를 원하실 경우에는 실비에 해당하는 약간의 법보시금을 받아 이를 군법당, 교도소 등에 보내는 신문발송비용으로 사용케됩니다.



한마음 불교사랑 운영자 합장

이용안내

▶이용가능한 시간
월~토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문의 및 예약접수처
전화 ☎ 02)736-3782

▶위 치
견지동 110-33 한마음불교회관내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일시 수용인원
50 ~ 70명

buddhapia shopping mall • buddhapia shopping mall • buddhapia shopping mall

부다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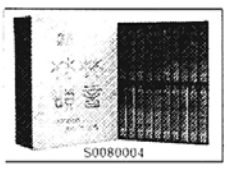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배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S0080004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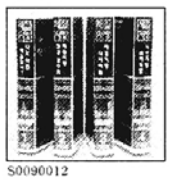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삼신이운
3 신장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욱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지징청사 I
14 지징청사 II 지징권공 I
15 지징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사이운 · 명전점안
20 중성 · 천수작법 · 요잡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S0090012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동력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체질이란 무엇인기?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사상의학이란?
체질 감별법
자신의 외모심성,병증으로 체질 진단
체질별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체질에 맞는 브의학 운동은?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브악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체질에 맞는 옥류,곡류 치소
과일,채들지 등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살찌는 체질?
체질과 비만의 관계
조리법이 비만을 부른다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조리법
다이어트 음식
살빠는 민간차
지압으로 빼는 군살
비만의 원인부터 억제하는 씨앗요법
살 빼는 심리요법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비만은 증합 질병이다
다이어트의 부작용
선택이 중으하다
질식으능이란?
쉽게 할 수 있다는데
혼자서 하는 물리요법 7가지
기법고 상쾌한 기분으로
생태학적 영양학의 식생활 실행조건
멋지게 보내는 하루

대나무 잔


S0090002

원진 자연산 대나무로 기공한 제품 대나무 힌 미디름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날개 ₩ 8,000

거산죽염

선조들의 비전 비방


S0090013

죽염은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건강염(건강염)제조 비방에서 전래된것으로 생명유지의 필수 불가결한 염처(염성)을 강화시켜 주고 인체내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는 신비의 건강 염입니다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법성게 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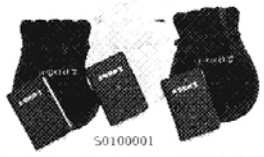

S0010009 S0010010 S0010011

크기 500×460 (㎝)
색상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택 뒤에 넣어 드립니다


S0100001

크기 45 (가로)㎝
62 (세로)㎝ 547쪽
가격 : ₩ 4,000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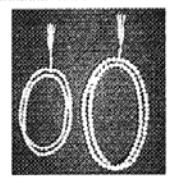

S0010008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디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윤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윤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발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발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건강 옥 염주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은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품 발산하여 고혈압 두통 소화불량 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가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종 류 청옥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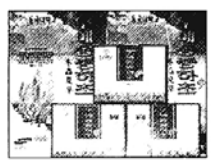
관음보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시어 모습의 지세나 옷의 다른 모습으로 나티내심을 변화신(變化身)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신의 모습은 중친신의 숫자만큼 삼십삼신의 여러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이를 삼십삼신의 관음(삼십삼관음신)을 33천신이라고도 한다 본 좌상은 수월관음좌상으로서 물위의 연꽃위에 앉아계시며 물에 비친 달을 관(觀)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S0020006 S0020005

크기 260×300(㎜)
종류 수월관음좌상(금색)
가격 : ₩ 120,000

크기 260×300(㎜)
종류 수월관음좌상(채색)
가격 : ₩ 99,000

누에 동충 하초 (冬蟲夏草)



동충하초란 월래 겨울에는 곤충의 몸속에 있다 여름에는 곰처럼 나타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동충하초가 안심 녹충과 함께 귀한 3대 한방 약재로 취급되어 왔으며 여러효과가 있다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방에서 약용으로

이용되어 온 대표적인 동충하초는 해발 3,000-6,000m의 지대에서 서식하는 까다로운 성육 환경 조건 때문에 절대수가 한정되어있는 아주 귀한 약재이다 이렇게 귀하다는 누에동충하초를 주원료로 하여 여러 한약재 등과 배합하여 살균 포장한 위생적인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수 있는 현대인의 식품

배합 한약재 이기리쿠스 버섯, 영치버섯, 복령림, 감근, 당귀 천궁 제피

본 제품은 동국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소와 동국산업과학연구소 산학협력으로 연구 개발된 제품입니다

가격 : ₩ 198,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S0020001 S0020003 S0020002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 350,000
(개금)
₩ 580,000

골동품형 개금형 브론즈코팅형

•재질 100% 황동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신화로 가는길 四君子



"시군자"를 통하여 선화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국내 최초의 사군자 기법의 체계화
단순화 기법의 안내서가 아닌
배우는 분의 정의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동반자격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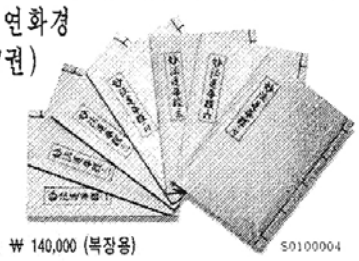
가격 : 최고급 양장
₩ 120,000 (부록포함)
타블로이드 판 / 253쪽

五福臨門 猛虎圖(오복림문 맹호도)


S0090010

신하 푸르른 산중에
맹호 노하여 위풍 떨치니
뭇새들 놀라 흩어지고
여러 짐승들도 달아난다
산비탈 치달리는 맹호앞에
진바람 휘몰아 치니
여러 짐승들은 무리윤에 떤다
사방의 산야는
싸늘히 푸르르고
해천녘 진바람은
댓닢은 흔날리는데
어지러운 세파에 맹호의
응대한 기상은
천의리에 위용을 떨친다
용큰 사랑을 짐동한다지만
맹호는 구름과 같이 어울린다
호풍이 한번 힘차게 불 때
천하의 사악한 무리들은
모두 놀라 쥐 구멍을 찾는다

묘법연화경 (전7권)


S0100004

가격 : ₩ 140,000 (복장용)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 양을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 제품 하나하다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용 도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이외 기도 기정 기도
제사, 신소등 응드다잉

프정제품
· 천연 으름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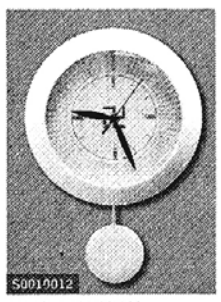

S0010019

규 격
청자항로(6㎝×5㎝) 1개
청자촛대(6㎝×4㎝) 2개
잉초 향 각 한정
촛대 비참막이2개

가격 : 1세트 ₩ 25,000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S0010012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브랑삼매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정에 두시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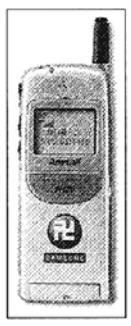
육바라밀 생시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브시(布施) 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반야(般若)라고 하는데서 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상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200×260×60㎜
원판내용 육바라밀 브랑삼대론

가격 ₩ 15,000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인체의 뇌파는 미세한 마이크로 웨이브 이지민 핸드폰은 900메가헤르츠의 전자파를 발산하며 뇌종양 유산등의 병을 유발합니다 본 제품을 붙이기만 하면 안심!! 핸드폰을 들고, 붙이기 전에 으링테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으링테스트 해 보시면 깜짝놀랄 정도로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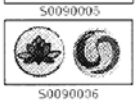

S0090007

강력한 키릴리안(KIRILIAN)이 유해전자파를 흡수 유해합니다


S0090004


S00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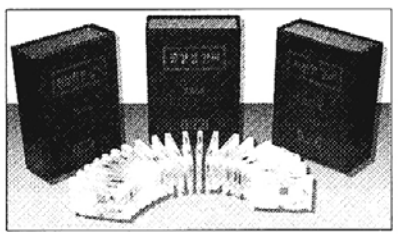
모든 전자기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S0090006

응도 휴대폰, 헤어드라이기,컴퓨터 전기히도기 진공청소기, TV 믹서 등과 수력피
규격 2개 1세트

가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눅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강로수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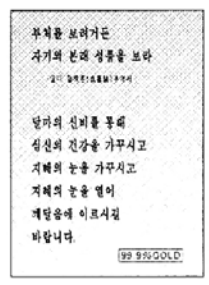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1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2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3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페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회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기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를 보려거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라

달마의 신비를 투해
성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
개당을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99.9%GOLD

특 징 손금을 최대한 잃게 뵙이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디닝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 격 : ₩ 20,000 S0090003

순금 99.9%

경전카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원력이 항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각 사찰이나 단체에 맞는 별도의 드안과 글씨도 가능 합니다


S0090011

가격 : ₩ 15,000 순금 99.9%


S0090013


S0090016


S0090017


S0090018


S0090015


S0090020

앞치마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 앞치마


원안


S0090009


내부그림 S0090008

색상 자주색
재질 T/C (면 혼합)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임의 가공

가격 ₩ 5,000


내부그림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지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심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브문품이 널리 목승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란하게 이루어 진다는 말을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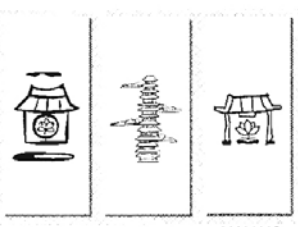


색상 진녹, 검정
비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55㎝(가로) 140㎝(세로)
재질 후로킹
특징 번색이 없음

S0030001 검정
S0030002 녹색

내부그림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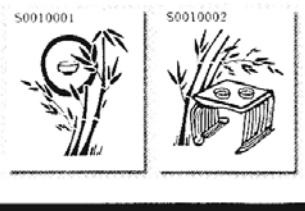

S0010003 S0010004 S0010005

기도포

디양한 불고적인 문양과 그림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디 기도하실때 한결 더 부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대(大)
기정 84㎝ 폭 39㎝
가격 ₩ 1,600

※ 원하시는 문구을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1 S0010002

다포

기정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6

반야심경 종 차걸이

밝은 증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증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낱개 ₩ 9,000

※ 금색줌

단주 열쇠고리

디양한 칼라 디자인


S0010020(검정줄)
S0010021(밤색줄)
S0010022(무명줄)

종 류 검정 빔색 무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S0010007

청동제품으로 함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지를 공예작기 범으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맑은 기운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S0030001

재질 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 × 42㎝

가격 : ₩ 50,000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먹어라" (중국 철학자 맹자)

-해풍에 3년 말린 사자발 약쑥 액기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 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딱으로 쑥덩의 느낌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S0090011

기술이후 한의학 박사 한달천(韓國天漢醫博士)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청담스님 친필 게송

임제운 (가로 59㎝×세로 33.5㎝) 가격 ₩ 3,000,000

청담스님 친필 임제운

청담스님 친필 게송·
친필 임제운을
가까이 두실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오

게송 (가로 49㎝ ×세로 43.5㎝)
가격 ₩ 3,000,000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S0100002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1) 한국불교의 현황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익술
2) 종단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서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국내의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S0090001

- 독특한 향 + 부드러운 촉감 - 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이택호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등등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금하로 인해 우선된 피부를 개선이 빚어나고 피부에 필수된 영양을 공급함으로 아니라 주우된 환경과과 경쟁기술가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식 무리가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신체든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하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중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공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영
세면비누는 이용점수물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처음대 이이디어 상품이다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법회안내



혜거스님(금강선원 주지)12월 10일~12일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 〈좌선의〉 강의 및 참선실수법회. (02)719-1855



진허스님(마곡사 주지) 27일 오전 10시 마곡사 대광보전 정기법회. (0431)271-2233



선일스님(부루나포교원장)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8시 〈금강경〉 강의법회. (032)576-9741



인경스님(천안 천불사 주지)음력 1일 오전 10시 30분 초하루법회, 음력 5일 오전 10시 30분 큰스님 초청법회, 음력 1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법회, 음력 24일 성지순례법회. (0417)557-3223



재연스님(광주 무량선원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보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및 기초교리강좌. (062)971-862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1월26일 (목)

■무료합동결혼식=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합동결혼식을 갖는다. (02)282-1100

11월28일 (토)

■운허스님 열반 18주년 추모법회 및 능엄학림 졸업식=봉선사는 운허스님 열반 18주년 추모법회 및 능엄학림 졸업식을 오전 10시에 봉행한다. (0346)555-5974

11월29일 (일)

■수종사, 현등사 불교문화기행=불교신행연구원은 경기도 남양주군에 위치한 나한도량 수종사와 보조국사가 중창했다는 참선도량 가평 현등사로 제35회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02)582-6613

■신륵사, 목아박물관, 고달사터 답사=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여주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신륵사와 박찬수씨의 불교조각 회화 공예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목아불교박물관, 국보 제4호 고달사터 부도 등을 찾아 답사기행을 떠난다. (02)725-1284

■동원정사 삼존불 점안대법회 및 장학금 수여식=동원정사는 오전 11시 3천옥불 조성 봉안 및 삼존불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또 자비행 정우장학금 수여식도 열린다. (0346)593-6829

■대조사 무량사 등 불교문화 유적답사=광주불교교육원은 옥구 죽산리 탑등 3층 석탑, 대조사, 성흥산성, 장하리 3층석탑, 부여정림사지석탑, 무량사 등지로 제40차 불교문화유적답사를 떠난다. (062)228-9098

■황해사 낙성식 및 1053 관음존상 봉안식=포항 황해사는 오전 10시 대웅전 낙성식 및 1053 관음존상 봉안식을 봉행한다. (0562)277-3611

■국난극복 법륜종 법회=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오후 2시 목포 보현정사에서 국난극복 법륜종 법회를 봉행한다. (02)732-4885

12월1일 (화)

■생명나눔실천회 회원 만남의 장=오전 11시 30분 강남 뉴월드호텔 14층에서 생명나눔실천회 회원 만남의 장이 열린다. (02)734-8050

佛器 닦으며…마음 닦으며

Focus

"마음을 닦듯이 불기를 닦읍시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이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과 불심을 동시에 다지기 위해 도봉산을 오르는 이들이 있다. 만월암 불기닦기모임 회원들이 바로 그들.

이 모임은 보타사, 조계종자원봉사센터, 길음복지관,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13명의 불자들이 의기투합해 절에서 하기 힘든 불기를 닦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부터 불기닦기를 시작했다.

19일 어김없이 도봉산을 찾은 만월암 불기닦기 모임의 팀장 이문희씨는 "향로, 촛대, 요령, 물잔 등 부처님전에 공양하는 불기들을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다보면 한달 동안 쌓였던 번뇌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신심이 절로 솟는다"면서 "뜻을 함께 하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정토사 삼천불전 준공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개산 10주년 삼천불전 준공 및 이천불봉불식을 28일 갖는다. 오전 10시 이천불 점안의식과 헌공축원으로 시작되는 이날 법회는 발원문, 경과보고,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개회 및 삼천불전현판식이 봉행될 예정이다.

태고종

대각국사 탄신 943돌



총무원(원장 인곡)은 16일 선암사에서 대각국사 탄신 943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인곡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산하 전국 사암 주지스님과 종도 1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선암사에 주석하며 천태선종을 창종한 선암사 중흥조인 대각국사의 정신을 선양했다.

충북종무원 신도교육

충북교구종무원(원장 각성)은 5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신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태고종 신도로서의 의무와 역할(법현스님) △기도하는 생활(이등성스님) △불교란 무엇인가(원명스님)를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하와이지원 25돌 맞아



총무원(원장 운덕·사진)은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하와이별원 창립 2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운덕 총무원장 총무부장 국성스님 교무부장 춘광스님, 사회부장 운덕스님 등 20여명의 종단 간부 및 스님이 참석했다.

관문사 수족침 무료강좌

관문사(주지 운덕)는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수족침과 종이공예 무료교양강좌를 개설키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종이공예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12시, 수족침은 매주 목요일 오후 1~3시(시간은 관문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에 강좌가 있다. (02)3460-5300

진각종

미국동부 교세 점검

각해 총인을 비롯한 성초 통리원장, 회정 총무부장, 지현 진각복지회 사무국장은 21일 미국동부지역 교세 점검차 출국했다. 27일 귀국한다.

통리원은 미국 워싱턴에 심인당 개설을 계획 중에 있다.

백혈병돕기 풍물공연



밀각심인당(주교 회정) 학생회는 14일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앞 광장에서 백혈병 어린이돕기 천지소리 풍물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을 통해 70장의 헌혈증과 1백24만4천920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총지종

탑골공원서 무료급식

통리원(원장 총지화)은 19일 오후 4시~11시 탑골공원에서 노숙자와 실직자, 어르신 1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날 무료급식에는 정혜서원당 지성 주교를 비롯한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원융종

법계고시 일정 논의

총무원(원장 법륜)은 23일 청사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12월에 실시할 법계고시에 대한 행사일정과 내년도 연중 법회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 알림

△산모도우미 파견 및 무료이용서비스=신도림복지관은 산모를 도울 산모도우미 파견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을 위한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매월 세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02)631-9792

△좋은책 고르기 부모교육=구로종합사회복지관 인표어린이도서관은 26일 오전 11시와 낮 12시30분 2회에 걸쳐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좋은책 고르기 교육을 실시한다. (02)852-0525

△장애인 직업 훈련교실=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작업활동에 필요한 기능과 사회적응 훈련기능 향상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등 직업적응훈련교실을 개강한다. 12월 1일부터. (0443)652-0900

♣ 강좌

△불자예절·기초교리=금강사 금강불교교양대학은 불교교리강좌와 신행강좌를 개설했다. 매월 음력 1, 7, 24일 오전 10시 30분 불자예절과 육법공양실습, 기본교리, 금강경 강설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02)993-3744

△불교교리=동산반야회는 12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개월 교육과정의 불교교리강좌를 개강한다. 불교의 정의, 불교의범, 불교의 특징등을 강의한다. (02)732-1206

△전통한지공예=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은 12월 1일 전통한지공예 초급반을 개강한다. 강사는 전통한지 공예연구가 이맹자씨. (053)784-3669

△꽃집 취업 및 전문인턴교육=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꽃집취업 및 전문인턴교육을 실시한다. (02)985-0161

△공예강좌=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스텐실, 테디베어, 펄 포아트 등의 공예강좌를 실시한다. 2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강의한다. (02)421-6077

♣ 모집

△금강불교대 신입생=천태종 금강불교대는 천태학과, 불교학과, 교법사 과정 등 신입생을 모집한다. (02)576-6401

△쌀, 옷보내기 운동 후원자=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저소득 실직가정의 겨울나기를 위한 쌀 옷보내기운동,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성금과 물품은 4개월간 도봉구와 강북구관내 저소득 실직가정1백50여세대에 전달된다. (02)720-7097

△여성문화교실 회원=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양재, 홈패션, 헤어커트, 스탠실, 포크아트, 메이크업, 퀼트, 패치워크, 컴퓨터교실, 서예 등 제10기 여성문화교실 회원을 모집한다. (0551)231-8017

△무료급식 도시락 지원 자원봉사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무료급식과 결식청소년 도시락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음식준비와 배식, 도시락 포장 등 주방보조일을 하게 된다. (02)282-1100

△보육교사 신입생=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은 99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고졸이상의 학력 및 99년 2월 졸업예정자로 연령제한은 없다. 주야간 선착순 1백명 모집. (02)929-5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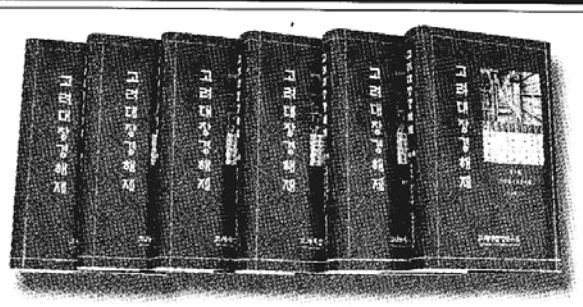
△볼자 보육교사=딸기원어린이집은 신심있는 불자보육교사를 모집한다. 보육교사 자격증 또는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0346)556-0108

♣ 부음

△김호성 동국대교수 조모 손동이여사 19일 별세, 21일 경북 영덕 본가에서 발인. (0564)734-3394

국내 최초 고려대장경 해설서
"고려대장경해제"

팔만사천여 경판 천오백십사종의 경전으로 구성된 팔만대장경을 보기 쉽고 찾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 정리하였습니다.



정가 150,000원
(총6권, 우송료 포함)

고려대장경 해제는

■고려대장경에 포함된 1,845종의 경전을 해설하였습니다.
고려대장경에는 1,514종의 경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제에서는 대장경에 입장된 1,514종의 경전과 소경전 331종,
모두 1,845종의 경전을 해설하였습니다

■주제 분류에 따라 경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경전마다 주제어를 주고, 주제어를 몇 개의 범주로 묶어서
경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제 3권, 목록 2권, 색인 1권, 총 6권 1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려대장경을 해설한 불교전문 사전입니다.
고려대장경의 판각이 완료된 지 올해로 727년이 되었지만,
중요한 소의경전들에 대한 해설서만 있었을 뿐, 대장경에
입장된 경전 전체를 해설한 책은 없었습니다
대장경의 경전 하나 하나가 모두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경전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전을 한글 음순으로 배열하여 보다 편리합니다.
1,845개의 표제어로 구성된 일종의 고려대장경 해설 사전입니다
보고자 하는 경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글 음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오는 10월 21일 출간 될 고려대장경 해제는 1,000질 한정 판매합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전화예약을 통한 주문판매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 예약 및 구입문의 〉 고려대장경연구소 (02)797-0585
온라인 번호 : 상업은행 169-07-096250 (예금주 :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개최공고

부산·경남지역 법사 단합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본 법사교단은 불교발전과 법사행원(法師行願)의 성취를 위해 1992년에 창립된 여법한 법사공동체적인 법사가나(dharma-bhanaka gana)입니다.
대승의 섭수정법(攝受正法) 행화를 정행으로 전법하는 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는 보다 더 그 역할과 도량의 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산·경남지역 법사 단합법회를 개최하오니 해당 지역 법사님들께서는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시 : 1998년 11월 28일 오후 2시
• 장소 : 국제신문사 24층 크리스탈홀 (부산, 교대전철역 앞)
• 대상 : 부산·경남지역(울산포함) 거주 법사(法師)
• 내용 : 부산·경남지역 법사 단합법회

비영리법인단체 승인고유번호 102-82-60066
주최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대학
주관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산·경남지역본부
후원 : 법사불교신문 · 법사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견지빌딩 3층)
☎ (02) 720-1836·733-1959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직지찾기 전담반 청주시 운영키로

청주시는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찾기 위한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직지찾기 본부를 비롯 각 시민단체에서 벌여온 '직지찾기 운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청주 고인쇄박물관 최진석관장을 반장으로 하는 2개 전담반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사찰, 도서관, 박물관, 서원, 향교 등에 대한 답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시는 내년 도내 10개 시·군 및 대학 도서관에 이어 2000년에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옛 인쇄문화 홍보전을 열고,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 전시회, 독일 구텐베르그 박물관 개관 1백주년 기념 전시전 등도 기획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사찰 · 교계단체

무료법률상담 '인기'

관문사 2주 동안 60여명 의뢰
중리 · 공창복지관도 접수 몰려
전세계약 · 車사고 · 보험 등 주류



◇천태종 관문사는 3일부터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 매주 화·금요일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 및 지역민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 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김모씨는 요즘 자녀 입시시험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년전 해약한 시험지가 '4년동안 미납됐다'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고시서를 받고부터이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자니 발길이 무겁고, 법적절차를 몰라 고민만 하다 17일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는 관문사를 찾았다. 큰 기대없이 찾았던 무료법률상담소는 의외로 분위기가 좋았고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이후 전세 임대차 등을 둘러싼 분쟁이 늘면서 각 사찰과 교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법적 해결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일 문을 연 관문사(주지 운덕) 무료법률상담소는 개원 첫날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2주동안 60여명이 상담을 의뢰할 정도다(02-3460-5300).

이처럼 무료법률상담소를 찾는 상담원들이 급증하자 월1회나 주1회에서 수시로 접수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산 공창사회복지관(관장 원천)은 월 1회 상담을 실시해 왔으나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이후 상담원들이 늘어 현재는 수시로 접수받아 문서로 발송해 주거나 불자 변호사에게 연계해 주기도 한다. 잠실 불광사, 부산불교부설 자비의 전화, 개금복지관 등의 무료법률상담소도 수시로 접수 받고 있다.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30일 실직세대, 저소득가정, 장애인세대 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0551-231-8017). 반응이 좋으면 정례화 할 방침.

상담 내용은 전세계약 및 해약, 채권채무, 상속, 세금, 교통사고 및 보험 등 생활법률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월주스님은 임기 4년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등을 통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확대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임기마친 월주 총무원장 4년

대사회 활동 폭넓게

20일로 임기를 마친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월주스님. 지난 4년동안 월주스님은 개혁종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새로운 계기를 준비하는 종단상을 정립하는데 종무행정의 초점을 맞춰왔다.

월주스님이 이끄는 개혁종단은 불교관계 대정부 법령 개정 부분에 있어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 95년 12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관람료 사찰의 관람료 징수액을 종단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불교관계 법령정비 성과
깨 · 사운동 시민 큰 호응
선학원 문제등 아쉬움도

10여년만에 문화재 관람료 현실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다. '전통사찰보존법'과 '자연공원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도 사찰의 수행환경 수호와 정재의 효율적 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98년 9월 '농지법' 개정안을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입법예고 함으로 월주스님 집행부는 당면한 대정부 불교관계 법령 정비작업을 완결지었다.

개혁종단의 이미지 제고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현양됐다. 95년 선포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96년 실무기획단 구성으로 본격 가동 불교단체에 대한 지원과 불우이웃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에 보살도를 실천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개됐으나 사업기금의 운용과 대상 선정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북녘동포 돕기불교추진위원회를 통한 대북 구호사업과 남북종교인 회의(97, 98년)를 통한 북방교류 등도 불교의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종단예산의 증가 폭이 큰데 대한 종단내 이견은 있었지만 많은 일을 하기위한 많은 지출이란 입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종단 예산의 증가와 아울러 정부의 예산 확보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성보박물관 건립, 동국역경원 고려대장경 한글화작업 기간 연장과 지원금 확보를 비롯 종책과 국책을 함께하는 사업들의 전개로 국익과 종단 위상 강화의 이익을 함께 거뒀다는 평이다.

종무행정의 표준화와 전산화 사업은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는 종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등축제의 다양화와 사설사암 등록 확대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요인 이면에는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도 없지 않다. 선학원을 비롯한 종단내 법인 관리에 대한 체계를 잃기 내내 잡지 못한점과 중앙신도회의 표류로 인한 신도조직 관리 허점등이 대표적인 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해인사 순환로 환경평가 잘못"

낙동강 환경관청 "사적등 환경 훼손…노선 조정해야"

국가지원 지방도로 59호선 가야~봉산간 2차로 축조공사에 앞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정진성)은 10월22일 59호선 도로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회신에서 △80m 이상의 대절토 구간이 2곳이어서 지형변화가 과다한 점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이 전체 훼손면적의 50.9%나 되는 점 △사적·명승지 주변의 환경훼손이 심한점 등을 들어 노선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잘못을 인정한 만큼 공사강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노선변경에는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공사를 강행할 뜻을 비추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59호선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4백억원의 예산으로 총연장 12.9km 노폭11m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인근주민을 비롯 해인사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2차에 걸친 주민공청회까지 실시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월정사 청년연합 법회
소년가장 장학금 전달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22일 큰법당에서 제1회 불교청년회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월정사 불교청년회를 비롯 교구 관내 10여 사찰의 불교청년회가 참석했다. 월정사는 이날 관내 소년소녀가장 10명을 초청, 총 3백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중근 기자



◇대둔사는 17일 대웅보전 중창불사 및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대둔사 성보박물관 개관

대웅전 중창 불사

해남 대둔사(주지 보선)는 17일 대웅전에서 천운 향림사 조실, 김봉호 국회부의장 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보전 중창불사 및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천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만 사회가 맑고 깨끗해지며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성보박물관에는 보물 제88호 탑산사 동종을 비롯 탱화, 고서, 다도관계 유물 등 90여점이 전시돼 있으며 초의선사관과 서산대사관도 마련됐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태고종 선암사서 13승정 추대식



총무원(원장 인곡)은 16일 선암사 대웅전에서 승정추대식을 가졌다.

이날 승정으로 추대된 스님은 문수사 벽응스님, 용운사 만운스님을 비롯해 13명이다. 이에따라 승정회의에는 총 19명의 스님이 참석하게 됐다.

임제종 총무원장 덕흥사 지산스님



임제종 제2대 총무원장에 인천 덕흥사 주지 지산스님 〈사진〉이 선출됐다.

12일 종로구 광화문 총무원에서 열린 종회에서 선출된 지산스님은 67년 고암스님을 은사로 출가, 현재는 인천불교연합회 부회장과 일붕 문도회 부회장, 〈종교뉴스〉 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지산스님은 "임기 중에 임제선풍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종단의 기틀을 다져 놓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대학생 불자회

지도법사가 없다

스님대신 교수 · 선배가 맡아…신행약화 우려

불자 교수들이 대학생들의 신행과 수행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의 불교학생회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20여개 대학에 불과하며, 이중 스님이 지도하는 불교학생회는 10여곳인 반면 대부분 불자 교수와 선배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대학중 불교학생회가 있는 곳은 41개 대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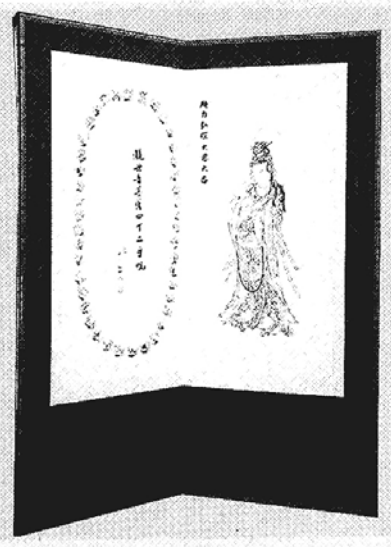
지금까지 대학생 불자 지도를 전담해 왔던 곳은 동국대 석림회 법사단(단장 설도스님)과 중앙승가대 포교연구부(회장 무승스님). 올해 초 법사단은 덕성여대, 홍익대 등 서울지역 12개 대학에서, 포교연구부는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서일전문대 등 10개 대학에서 지도했다. 그러나 현재 동국대, 광운대, 숙명여대 10여개 대학에서만 스님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불련 서울지부 고영삼 간사는 "학사일정에 얽매인 학인스님들이 대학생 불자들의 신행과 수행을 도맡아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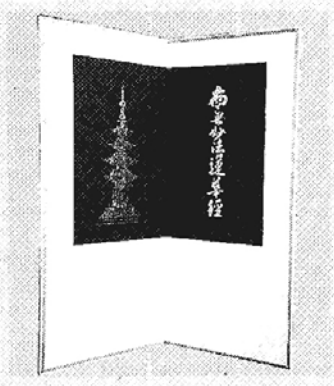
이에 따라 불자 교수들이 불교학생회 현장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불자 교수가 불교학생회를 지도하는 곳은 3곳. 이중 송위지박사(외대 불교학생회 지도·강사)의 활동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뜻밖의 재난! 액운을 미리막아 소원성취하는 호신진언가리개

소원성취 관음사십이수주



호신경 묘법연화경
여래수량품 제16탑



종합符(부)



관음부



가리개
· 관음사십이수주: 높이 5자 9치 넓이 2자 5치 한지 · 먹
· 묘법연화경: 높이 5자 5치 넓이 2자 5치 흑한지 금분
▶▶ 가격 ₩198,000

불국기획 02)737-0048 011)630-0108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탐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탐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탐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포교사고시 논란

정화회의 무기연기
포교원 예정대로 실시

22일 예정된 4회 포교사고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정화회의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18일 포교사고시의 연기를 알리고, 시험일이 정해지면 응시자에게 서신이나 신문지면을 통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28~29일 열릴 예정인 직장·직능단체 대표자 연수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제주빌딩3층 임시사무실에서 계속 종무를 보고 있는 포교원 종무원들은 예정대로 포교사고시를 치르기로 하고, 응시자들에게 착오없도록 당부했다. 문제지는 이미 인쇄된 상태이며, 면접관 및 시험감독관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어려운 때일수록 정진합시다"

영남불교대 10년기도 입재
만일염불회 · 정토회 1만일결사

매일 108배-수행일지-하루 천원 보시



◇정토행자들이 지난 10월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제2차 천일결사중 제9회 입재식을 봉행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어렵다. 실업의 공포는 가시지 않고 있다. 실직노숙자들은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다. 조계종사태로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정신적 의지처를 잃고 혼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불자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한다. 본지의 '10만배 기도운동 확산' 기사(196호 23면)가 나간 후 영남불교대학에서 10년 기도에 입재하는 등 기도결사가 주목받고 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음사(주지 우학) 신도 5천여명은 19일부터 '10년 기도정진결사'를 입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매일 108배 △매일 금강경 1/3 독송 △매일 2시간 관음정진 △년 1회 이상 3천배 △년 3명 이상 포교 △늘 친절하기 여섯 가지 수칙을 정했다. 2008년 음력 10월 초하루 회향한다.

매일 사시예불 때마다 금강경 독송과 108배 기도를 집전하고 있는 우학스님은 "기도는 턴뇌를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해준다"며 "불자들로 하여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수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만일염불회는 이미 지난 8월 2천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1만일 아미타불염불 결사에 들어갔다. 93년 3월 시작된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1만일 결사 가운데 제2차 천일결사를 진행중이다.

정토회의 1만일 결사는 기도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해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사 참가자들은 1백일 단위로 하는 입재 때마다 정토회에서 펼치고 있는 북한돕기, 인도지원, 환경보호 등의 실천과제를 선택한다.

1만일 결사는 입재와 회향식 때를 빼놓고는 개인정진으로 진행하나, 특별히 다섯 가지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일 108배를 하며, △이 때의 느낌을 수행일지에 기록한다. 또 △하루 1천원씩 보시해야 하고 △천일·백일 입재·회향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1만일 결사에는 지금까지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 1천36명이 참여하고 있다. 1만일결사 중 제2차 천일결사는 99년 1월 13일 회향한다.

영남불교대학 053-474-8228, 475-3707. 염불만일회 02-732-1206. 정토회 02-581-4077.

이윤호 · 오종욱 기자 (yhlee@buddhapia.com)

군종화합 세미나
장교 150여명 참석

군내 종교화합을 위한 군종세미나가 17~18일 서울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국방부 군종실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영관급 이상 군종장교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6면〉

장교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세미나는 '종교화합을 위한 불교적 제언' '군내 종교간 공존을 위한 군종의 과제' '한국종교의 평화적 공존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분과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종단협등 9개 종교단체
'실직자 정보센터' 설립 지원키로

복지부, 사업비 지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실직자 정보센터' 설립 지원단체로 선정돼 각각 9천만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실직자정보센터 설립계획을 신청한 불교 기독교 등 16개 종교단체 가운데 9개를 선정, 모두 6억9천만원을 지원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98년 11~12월 정보지원센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98년 11월 이후 불교사회복지 정보 축적 △98년 11월~99년 4월 조계종 사회복지 현황 조사 △99년 1~4월 불교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D/B 개발사업 △조계종 사회복지 현황조사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후원사업 등이다.

종단협은 조계·태고·천태·진각종을 포함한 각종단의 사회복지 정보를 통합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된 조계종과 진각종을 비롯 태고종과 천태종을 주축으로 불교 사회복지 정보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의 공동사업도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세계유산보호 조례제정 촉구

유네스코한국위 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는 22~23일 해인사 관광호텔에서 세계유산지정 지역자치단체장과 문화재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세계유산보호위원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갖고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5점과 예비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대책으로 △세계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모니터링 방법론의 개발 △문화유산보호 시민봉사대 발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세계문화유산보호를 위한 특별조례' 제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 문화재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 등의 방법론이 제시됐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화장-납골 장묘법안
황규선의원등 국회제출

'화장-납골 중심'의 장묘법안이 18일 한나라당 황규선의원 등 5명의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황규선 김병태 오양순 양성철 정의화의원이 제출한 '법률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의 신고제로 전환 △시한부 매장제 도입 △분묘 1기당 면적을 현행 30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 이내로, 개인묘지 규모는 현행 8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납골·화장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우리가 남인가' 등 교계 4개 프로그램
실업극복 2차 제안사업 선정

교계 4개 단체가 제안한 실업극복프로그램이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지원하는 실업극복 제안사업 제2차 공모에 16일 선정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우리가 남인가'(지원금 1억221만5천원), 이웃을돕는 사람들의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6천8백99만원, 두 번째로 선정),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의 '실직자가정 위한 자비의 쌀, 옷 모으기 운동'(1천8백만원), 덕유사회복지관의 '생활보호대상 실직자 창업지원서비스'(4백10만원) 등이다.

'우리가 남인가' '가족사랑 수당'(가구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자조클럽 '두레'를 발족시키며, 가족문제를 예방·극복하기 위한 '부부사랑 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열린학교'는 실직가정 어린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돕고, 대졸 미취업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쌀·옷 모으기 운동'은 98년 12월부터 99년 3월까지 서울 강북구, 도봉구 관내 저소득 실직가정 약 1백 가구에 쌀과 옷 지원하는 사업.

'생활보호대상 실직자 창업지원서비스'는 부천시 중동 아파트 단지내의 생보자를 대상으로 2·3명씩 10개의 조를 편성해 떡볶이, 튀김, 풀빵, 호떡, 아이스크림(여름용) 등의 기기사용 및 요리법을 교육한 후 후원자의 제조기기를 지원한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한자리에 서십시오

정성운 〈취재1부 차장대우〉

스님들끼리 불리적 충돌을 빚었고, 이 모습은 텔리비전을 통해 온국민의 안방에 전해졌다. 외국의 언론도 조계종사태를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세계적인 뉴스공급사인 BBC와 CNN은 조계종총무원 청사에서 벌어진 불상사를 12일 정오뉴스의 세 번째로 보도했다. 한국과 한국불교를 어찌 볼 것인가. 몇 주 전 기자는 이 난에서 50만원으로 한국불교를 알리는 일을 전하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재가불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비록 우리의 힘이 적다 하더라도 불교내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흐지하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라며 비장한 마음을 내비쳤다. 재가불자연합 우리는선우 등 9개 재가단체가 17일 성명서를 낸 것이다.

스님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참된 종단개혁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모든 승가가 사심을 버리고 합심화합하여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가불자들이 끝내는, 참으로 불자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도 했다. "재가불자들은 승가적 위의를 갖추지 못한 스님들에 대한 공양·청법·예참하지 않기, 청정승가 공양·예경하기를 대중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태는 혼미를 계속하고 있다. 어디까지 가려는가. 스님이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피습당하는 사건마저 일어났다. 월주스님의 후보사퇴 이후 조계종사태는 정화회의와 종회의 양자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불자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그래도 불자들은 스님들을 여전히 삼보의 한 축으로 공경하고 있으며, 거룩한 스님들이 중생들을 향해 참된 삶의 이치를 깨우치는 사자후를 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월주스님과 월탄스님은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진정으로 미안하다면,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서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 넋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빈다.

나무석가모니불. (swjung@buddhapia.com)

뉴스 & 뉴스

봉은사 신임주지 진산식

봉은사는 19일 제20대 주지 원혜스님 진산식을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에는 조계종 종회 부의장 명진스님, 건봉사 주지 해장스님, 봉은사 비상대책위원회 안승기 위원장 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원혜스님은 취임사에서 "가람수호와 전법포교, 도제 및 인재양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찰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신병포교 활성화' 세미나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24~2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현역 및 예비역 군법사와 군불교 후원단체 대표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군승 배출 3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찾고 군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키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세미나와 기념법회, 정기총회 등으로 진행됐다.

'신병의 불교신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군불자 신행교육을 위한 제안' '신병포교의 현황' '신병포교 활성화 방안'의 주제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이 결쳐졌다. 정기총회에서는 군법당 재정투명화를 골자로 한 군승단칙을 개정했다.

정성운 기자

새불교승가회 3돌 법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대표 진관·석담)는 12월1일 조계사 교화사무국 2층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1부 창립 기념법회, 2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되며, 정기총회에서는 98년 사업 및 결산보고, 99년 사업계획 심의, 회칙개정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달성 법계사 봉불점안

조계종 법계사(주지 환암, 경북 달성군)는 24일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법계사 삼존불은 4자반 크기의 비로자나불과 3자반 크기의 문수·보현보살이며, 청동좌불로 조성됐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승가대 신입생모집 요강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자하)는 9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을 확정했다.

일반전형은 내신 40%, 필기 40%, 면접고사로 우선 선발하며, 특별전형은 조계종 승려로써 고졸이상 강원대교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불교학, 역경학, 포교사회학, 사회복지학과 등 총 1백22명을 모집하며 원서교부 및 접수는 12월 14일~99년 1월 11일까지다.(02)925-5507(교환 202, 205) 이은자 기자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천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허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켜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맥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0)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입 문

천부경의 입체적 해석



■베일벗은 천부경/조하선 지음

천부경은 우리나라의 정신적, 사상적 뿌리를 이루는 민족 고유의 성전이다. 그러나 그동안 천부경의 위상에 걸맞는 확고한 학문적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천부경에 대한 완전한 입체적 해석이 담긴 이 책은 삼일신고, 다물흥방가, 도덕경, 팔리 등을 천부사상에 입각해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체적 조감을 위해 전세계의 종교 신화가 총망라되었고, 고대 유물 유적을 통한 고증을 이뤄냈다. 또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책암유록의 핵심 비밀들이 밝혀져 있다.

천부경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해석이 시도되어져 왔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최소한 천부경에 대한 최 기적인 실마리다

물병자리, 15,000원 (02)735-8160

불교입문의 교과서



■절에서 배우는 불교/혜자스님 엮음

자성을 고요한 마음으로 연마하고 탐·진·치 번뇌에 오염된 심신을 씻어내고 해탈토록 하는 곳이 바로 절이다. 이곳 절에는 산문을 시작으로 전각, 예배의 대상, 조형물, 공양구, 의식구, 장엄구, 상징물, 생활용구 등이 중생들의 해탈과 교화의 방편으로써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들을 대하면서도 그 속에 깃든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으며, 또 궁금하더라도 마땅히 이를 해소할만한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줌은 물론 그 속에 깃든 깊은 의미와 뜻을 바로 전달하는데 교과서가 될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절을 찾는 일반인들도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출판사, 12,000원 (02)313-5047

에 세 이

업을 벗어난 아름다운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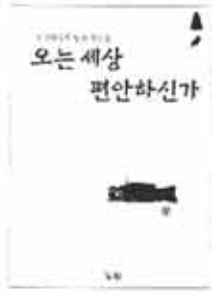
함께 사는 아름다움-금강경·반야심경 풀이/정화스님 지음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삶의 모습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빈 마음으로 함께 사는 아름다움'과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한 마음의 차이다. 우리의 삶은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한 '자기 한정'이란 업에 매여있다.

(금강경)과 (반야심경)에 '함께 사는 아름다움'의 진리가 담겨있음을 말하고, 모든 불자들이 이 경전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라고 이 책은 권한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한정'의 업을 벗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행상담식으로 두 경전이 담고 있는 가르침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에세이식의 소주제로 내용을 분류해 읽는 부담도 덜었을뿐만 많은 일화가 담겨 있어 재미있다

시공사, 10,000원 (02)588-0831

나에 대한 믿음과 희망



■오는 세상 편안하신가/묘심화법사 지음

희망보다는 좌절의 쓴 맛을 곱씹는 시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꾸주는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묘심화법사는 그 종교는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희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포츠서울에 '영혼 4차원의 세계'를 연재하고 있기도 한 묘심화법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주어진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마음'을 주제로 인간과 정신의 세계를 조명한 부분도 흥미롭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시련을 한탄치 말라. 자신에게 물고 답할 수 있도록 되라"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다.

누림, 7,500원 (02)323-2100

기 타

가려뽑은 감로수 300가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정휴스님 엮음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주어야 한다. 상대를 불행하게 한다면 감옥이라도 주거서는 안된다.' (보행왕정론)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 경전과 조사들의 어록 가운 정신적 삶을 중요롭게 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

이 책은 인간의 영혼을 깨우치는 아름다운 언어들로 장 가름운 등을 피운다. 살다보면 상처도 받고 절망도 하기 마련. 이때 듣는 부처님 말씀은 그야말로 감로수가 아닐 수 없다. 경전에서 가려뽑은 부처님 말씀 300가지가 이 책에 실려있다. 사랑과 고뇌, 그리고 삶에 절망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반드시 자기를 배우고 비워서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족사, 5,000원 (02)732-2403

불교이해의 자료



■100문 100답-불보살·신중 편/고명석·고광영 지음

불·보살·신중을 모두 망라해 그들의 이름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역할, 간략한 이야기, 신앙상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일목요연하고 알기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상·하 두 권. 대관정사가 펴내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중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산톨 및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앙이 불교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사전과 같은 자료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

대원정사 각권 8,500원 (02)754-1614

금주의 추천도서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한국불교 기도성지/정성운외 지음.

불교에서 기도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한 불보살의 원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 중생이라도 지옥고를 받는 자가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 병든 사람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약사여래, 천개원눈과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펴 어루만져 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불보살의 원력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갖가지 모습으로 나투어 감응하신다. 사찰에 전해오는 수많은 영험담이 이를 증명한다.

이 책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등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교계 잡지·신문의 전문기자가 필자로 참여, 발로 쓴 생생한 정보가 가득한 이 책에는 신비로운 기도성취 영험담, 절의 역사, 문화재, 절을 찾아가는 길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불교시대사/값 7,000원/(02)730-2500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제품모델

G2-F21

한화의 새로운 PCS-G2

- 도시감각적 디자인
- 절친 기능 - 세계최초의 경성서 착용
- 깨끗한 통화(Filter 사용으로 잡음 울림 제거)
- 자동검색 기능 (이름의 일부입력으로 전화번호 탐색)
-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문자 메시지는 한글/영문 혼용)
- 17종의 다양한 전화벨 소리
- 유해 전자파 방지 도료(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 전자계산기 기능
- 자기번호 송출 기능
- 비상 전화 다이얼 기능



한화 G2

크기 : 25×44×26 mm(H×W×D)
무게 : 44g(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시간 : 배터리 S 90분 / 배터리 M 168분 / 배터리 L 300분
연속대기시간 : 배터리 S 26시간 / 배터리 M 46시간 / 배터리 L 87시간
색상 : 은색

사은가격:₩60,000(가입비 포함)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016 PCS 최저가격 · 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원연스님 지음

운명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찰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보살의 질문에 스님은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자 운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며 자세히 답한다.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구성된 법문집이라 읽바른 삶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 괴로움과 욕심, 본래 자기에 대한 공급증을 속시원히 풀어준다. 어리석음의 근원은 욕심에 있고, 욕심의 근원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법문의 핵심이다. 읽고 나면 텅 빈 마음만 남는 책. 그래야만 새로운 무욕의 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 테니까.

운주사 6,000원 (02)720-9372

잡아함 1,362경에서 가려뽑은 금쪽 같은 말씀 100가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홍사성 지음

세상이 어수선하고 삶이 버거울 때, 막연한 불안 속에서 이정표를 찾을 수 없을 때, 생각나는 분. 부처님.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경전을 읽는다. 아함부 경전에서 부처님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풀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법을 하신다. 난해하고 현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삶의 진상이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솔직하고 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책은 아함부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잡아함 1,362경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100개의 경전을 골라 간단한 독후감을 덧붙인 것이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원작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장승 8,000원/(02)723-1679

불교환경운동의 지침서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법륜스님 지음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 등 인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법륜스님(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은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연기법을 세계관으로 삼는다.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무아·무소유·무아집을 수행의 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앎과 수행의 통일을 강조한다.

스님이 이끄는 정토회에서 법문한 내용을 엮은 이 책은 세상과 자신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고 참된 자기실현과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갈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정토행자와 수행과 앎,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인간에 대한 스님의 간절한 염원이 묻어난다.

정토출판, 5,000원 (02)3471-5100

불교환경운동의 지침서



■불교와 환경보존/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엮음

불교사상과 환경을 테마로 한 본격 단행본. 청정국토본부가 창립 6주년을 맞아 불교사상과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논문을 한 데 모은 것으로 불교환경운동의 교과서와 같은 책.

부처님의 사상 가운데 환경보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논문이나 글을 모아 다시 분야별로 세부 목차를 정해 편집했다. 불교도 환경 선언문 및 성명서를 비롯해 경전속에 나타난 환경보호 정구(戒律), 불교와 자연관, 불교사상과 환경보전, 사찰환경보전, 불교환경운동, 불교의 환경교육, 불교의 생명사상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법정, 법륜스님을 비롯 목정배 오형근 박선영 연기영 전재성 교수 등 23명이 집필위원으로 참석했다.

아름다운 세상, 17,000원 (02)278-6956

불교교리의 체계적 이해



■불교입문/다까사끼 지끼도 지음

여래장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저자가 30여 년간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축적한 해박한 지식을 총동원해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주고 있는 역작.

대승불교권의 불교인들에게 익숙한 구사(俱舍)·유식(唯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전통불교학의 맹점인 비역사적 태도를 지양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 모든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간된 많은 입문서·개설서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종파주의적 해석에서 치우쳤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최대의 장점.

홍사성 편역. 우리출판사 4,500원 (02)313-5047